

2019

사 업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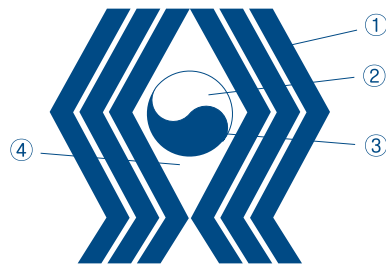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 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비철 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뜻함.
 3. 원 : 공존공영의 변형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함을 나타내고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밤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략
용 - 팜 로 호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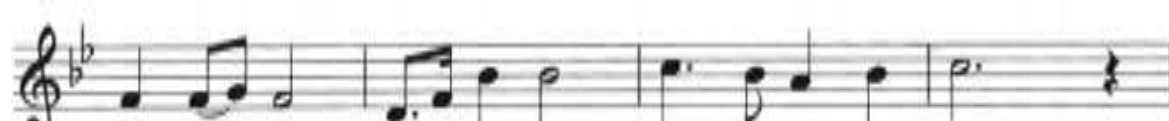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몽 친 우 리 - 들
하 - 늘 파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찻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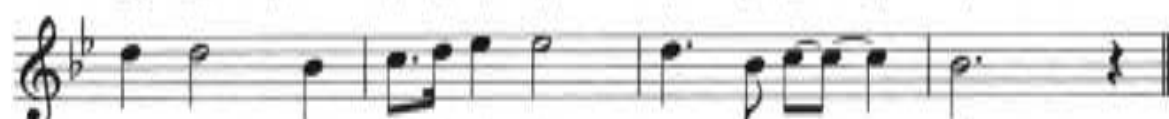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머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백 어 넓 이 먼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천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짓 발 강 - 철 의 대 오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국 궁 제 유 을
뜻 모 - 은 루 혼 속 에 내 제 일은 밤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련
인 류 의 평 화 지 켜 금 속 노 - 련
복 지 를 다 처 가 는 금 속 노 - 련

위원장



김만재

지도위원



박인상



유재섭



이병균



장석춘



변재환



강영섭



최웅길

상근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 김해광



사무처장 김준영

부위원장



강 국 모



권 동 섭



김 동 의



김 동 준



김 수 환



김 영 국



김 용 안



김 인 덕



김 인 철



김 종 국



김 태 완



남재 환



박 칠 규



박 태 우



배 상 호



배 준 호



백 선 진



석 승 희



신 석 곤



안 병 철

부위원장



어진호



오인상



오지수



원철식



윤각열



윤동현



윤복현



이남철



이상철



이장호



이준덕



장재성



정란홍



정상준



최정열



최해경



한명선



한승연

회계감사



김삼두



송해광



조소희



최철



황성원

사무처



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정책본부장 김영미



노사대책실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



조직국장 노윤철



조직국장 정태교



정책국장 광상욱



법규안전국장 나병호



조직부장 최재원



홍보부장 박강원



홍보차장 이의선

2019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2019 정기대의원대회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 (2019.5.14.한국노총 중앙교육원)

회의 및 행사



▶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2019.4.10.대한산업안전협회 대회의실)



▶ 2019년 핵심 추진 사업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유
(2019.4.24.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제185차 중앙위원회에서 2019년 정기대의
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결의
(2019.5.3.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금속노련 상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9.6.3.경사노위 대회의실)



▶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대회기획단
구성하기로 결의 (2019.6.13.공주 솔향펜션)

회의 및 행사



▶ ‘노동·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참석
(2019.06.17.참여연대2층 회의실)



▶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보고대회 (2019.8.15.)



▶ 금속노련 58주년 창립기념식
(2019.8.23.여의도 백화점)



▶ 여성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출범을 선언
(2019.11.7.제주도 오션스위치)



▶ 제21대 총선 노동존중실천단 출정식 (2020.3.27.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회의실)

열사 추모제 및 국제교류 활동



▶ 김태환열사 추모제 (2019.6.14.마석 모란공원)



▶ 장진수열사 추모제 (2019.12.4.마석 모란공원)



▶ 인터스트리얼 집행위원회의 (2019.5.20.벨기에)



▶ 대만 ROCMU 대의원대회 (2019.6.24.대만)



▶ 베트남 산업통상노동조합 교류회의 (2019.7.3.베트남)

교육활동



▶ 제조연대 교섭위원 2차 교육
(2019.4.1.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제조연대 노동법률 교육
(2019.4.15.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한국노총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2019.7.12.)



▶ 제조연대 산업안전 교육
(2019.9.25.한화리조트 양평 연실)



▶ 금속노련 노동법률 교육
(2019.11.13.서울 국제청소년센터)



▶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2019.11.20.서울 국제청소년센터)



▶ 금속노련 신임대표자 및 임원 교육
(2019.11.27.비발디파크)



▶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
(2019.12.11.울산 안전보건공단교육원)

노동문화경연대회와 체육대회 (2019.10.15.-16.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기자회견



▶ 2020년 최저임금 삭감안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2019.7.8.서울역)



▶ 2020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기자회견 (2019.7.17.한국노총 6층)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 규탄 기자회견 (2019.11.6.한국노총 6층)



▶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규탄 기자회견 (2019.12.11.한국노총 6층)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식 기자회견 (2019.11.16.한국노총 6층)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출범식 기자회견 (2020.2.20.한국노총 6층)

조직화 캠페인



▶ 하이텔서비스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 포스코협력사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투쟁활동



▶ 서울반도체노동조합 출근투쟁(2019.4.25.)



▶ 포스코노동조합 임·단협 출정식
(2019.5.24.)



▶ ASE코리아노동조합 파업출정식
(2019.5.27.)



▶ 동해기계항공노동조합 파업출정식
(2019.6.5.)



▶ 휴스틸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9.6.28.)



▶ MEMC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9.6.28.)



▶ 포스코노동조합 본사앞 1인시위 (2019.7.31.)



▶ KCFT노동조합 출근투쟁 (2019.8.20.)

투쟁활동



▶ LS산전노동조합 파업출정식 (2019.8.21.)



▶ LS산전노동조합 천안지부 총파업 출정식 (2019.8.22.)



▶ 포스코사내협력사노동조합 결의대회 (2019.8.21.)



▶ 볼보인천물류노동조합 출근선전전 (2019.8.23.)



▶ 휴스틸노동조합 상경집회 (2019.8.28.)



▶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자회사설립반대 상경집회 (2019.9.9.)



▶ 포스코사내협력사 집회 (2019.9.19.)



▶ 국제종합기계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2019.9.20.)

투쟁활동



▶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2019.11.6.)



▶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9.11.11.)



▶ 세강산업노동조합 포스코 앞 상경집회
(2019.11.25.)



▶ KCFT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2019.11.27.)



▶ KUM노동조합 분리매각 반대투쟁 (2019.11.27.)



▶ 성암산업노동조합 포스코 앞 상경투쟁
(2020.3.12.)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머리말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지난 2019년 한해를 되돌아봅니다.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던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으며, 온전한 실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요구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의 유연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그 영향은 바로 우리의 현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온전한 노동시간단축, 노동유연화 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200만 조직화 요구에 발맞추어 2020년 20만 금소노련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하여 무노조 아성을 깨고 포스코, 삼성 그룹사에 진짜 노동조합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또한 초기업노조인 금속일반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사내 하청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노조인 중소기업노조 조합원들을 조직해 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의 결과를 만들고 지켜보며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던 제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우리 금속노동자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2019년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또다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거울삼아 2020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과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했던 1년의 시간을 이 보고서에 소중하게 모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노련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셨던 것처럼 2020년 연맹의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동지여러분들과 조직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만 재

목 차

선언, 강령, 연혁 및 간부명단	25
총 론	39
정책기획활동	71
조사통계활동	133
교육활동	165
총무활동	175
조직활동	191
국제연대활동	237
법규활동	247
산업안전보건활동	261
대외협력활동	271
홍보선전활동	283
여성문화활동	331

선 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평등·복지·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 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 2 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3 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59. 3. .	유익배	한승용,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60.10. .	임한식		김사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10. .		준비위원회: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성대회	61. 8.25	지연일 (인 천 중 공 업)	김재범(대한중기), 이수영(삼양산업), 이령(금천철공)	박종현 (삼성기계)	609
제2차대의원대회	62. 7. 2				
제3차대의원대회 (임시대회)(선출)	63. 4.12	박종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 이수영(삼양산업), 권종오(한국기 계)	김득성 (기아산업)	5,034
제4차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박세천(한국기계)		8,455
제5차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규(금성사), 이명구(인천강업)	이건성 (인 천 중 공 업)	9,110
제6차대의원대회 (임기)	66. 1. 8	박세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 김병용(기아산업), 박종선(한국공업)	허만성 (인 천 중 공 업)	9,984
제7차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규(금성사), 김병용(기아산업), 이의용(인천중공업)	홍순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대의원대회	68. 4.30				15,223
임시대의원대회 (보선)	68. 9.20	김병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 이성학(조선기업), 문익모(이천전기), 이규 운(봉신주철), 강준석(한국베아링)	이택용 (인 천 중 공 업)	17,947
제9차대의원대회	69. 4.29		문익모(이천전기), 이규운(봉신주물), 강준모(한국베아링), 허재업(조선공사)(보선), 강기태(금성사)보선	이헌구 (한국기계) -보선	23,960
제10차대의원대회 (임기)	70. 4.30	김병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 정남수(조선), 하준(조선기업), 이우년(한 국기계)	최종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1.16	김병용 (기아산업)	정남수(조선), 하준(조선기업), 문익모(이천전기)(보선)	최종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28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13차대의원대회 (임기)	73. 4.25	김병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 강준석(한국베아링), 정부경(금성사), 한달수(대한전선), 팽종출(조선공사), 김정배(대한중기)	최종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임기)	76. 4.21		강준석(한국베아링), 정부경(금성사), 하준(승리기계), 한달수(대한전선)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임기)	79. 5.11	김병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 정남수(부산지부), 이현구(대우중공업), 팽종출(조선공사), 이중석(남서울지부), 정낙균(금성전선)	최종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임시대의원 대회, 정기대의원대 회같은)(보선)	81. 2.23	팽종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 민정식(금성사), 박인상(조기), 이준(화천), 한창석(인천제철), 김장선(대한전선), 이상숙(금성통신), 권수태(대림자동차)	김성문 (대한전선)	108,846
제22차대의원대회 (임기) (1983, 1984년은 중 앙위원회로 같음)	82. 5. 7	팽종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민정식(금성사), 김장선(대우전자), 한창석(인천제철), 조태식(효성중공업), 최정원(대선조선), 이성균(새한자동차), 허성원(금성전선)	김성문 (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임기)	85. 5.30	민정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 김장화(아세아자동차), 유철규(평화크랫치)	한창석 (인천제철)	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정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 김장화(아세아자동차), 유철규(평화크랫치)	한창석 (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임기)	88. 5.27	박인상 (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유철규(평화크랫치), 강영섭(금성사), 임창기(대한중기),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 이금수(크라운전자), 양동생(대우조선),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김성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인상	김장선(대우전자)	김성문	389,060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조기)	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대한전선)	
제29차대의원대회 (임기)	91. 5.15	박인상 (조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 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 (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동해전장), 염 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럭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최웅길 (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박인상 (조기)		최웅길 (동양강철)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인상 (조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 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 (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동해전장), 염 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럭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김영철(현대전자), 김관태(기아자동차)	정창영 (금성전선)	
제32차대의원대회 (임기)	94. 5.17	박인상 (조기)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 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 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서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 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김 동교(인천제철),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럭키금속), 하영일(금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 중공업), 김운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정창영 (금성전선)	243,271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인상 (조기)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 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 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서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 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김 동교(인천제철),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럭키금속), 하영일(금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 중공업), 김운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 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정창영 (금성전선)	183,200
제34차대의원대회 (보선)	96. 5.15	유재섭 (LG전자) -보선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웅길(동양강 철)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정 기춘(화천),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럭키금속), 하영 일(LG전선),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운주(범양냉방), 백종 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정창영 (LG전선)	160,327
제35차대의원대회 (임기)	97. 5.16	유재섭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 기)	이병균 (대우전자)	169,628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나찬경(LG전자),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강석수(창원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김운주(범양냉방),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박영구(LG금속)		
제36차대의원대회	98. 5.20	유재섭 (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김만재(현대전자), 이병균(대우전자), 박병용(대창단조), 김수도(대우전자)	이병균 (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20	유재섭 (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장석춘(LG전자), 허원(칩팩코리아), 도정복(LG전선), 김두형(대성공업), 신성균(한화구로), 박병도(LG정밀), 신향철(대한전선), 문광주(세진전자), 강영철(현대반도체), 변재환(LG필립스)	이병균 (대우전자)	124,097
제38차대의원대회 (임기)	00. 5.24	유재섭 (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파견),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장석춘(LG전자), 강창영(동부제강), 김상수(동아건설), 김수도(대우전자), 서갑순(한국특수공구), 하영일(LG전선), 김영철(현대전자), 지수식(삼영전자), 도정복(LG전선), 허원(칩팩코리아), 황창배(대우전자), 손종홍(대한제당), 이병욱(태양금속), 강한우(삼신),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김경조(쌍용중공업대구), 김두형(대성공업), 강진호(연합철강), 박병용(대창단조), LG필립스(변재환), 강영철(현대반도체), 박병도(LG이노텍), 배동한(한국철강), 이정석(기아특수강)	이병균 (대우전자)	106,126
제39차대의원대회	01. 5.25.	유재섭 (LG전자)	보선-정상영(하이닉스반도체), 조병철(대한전선), 김인배(LGPhilipsDisplays)	이병균 (대우전자)	102,770
제40차대의원대회 (보선)	02. 5.10	이병균 (대우전자)	보선-김한모(칩팩코리아), 김준수(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한성(충북본부), 선택기(울산본부), 정일진(LG전자), 김길주(기아특수강), 김광호(안산시흥본부), 이문호(경남본부), 김도론(포항본부)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1,985
제41차대의원대회 (임기)	03. 5.22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황창배,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선택기, 손은진, 김경조, 김무호,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김길주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0,850
제42차대의원대회	04. 5.20.	이병균	상임-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이정석	100,942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대우일렉트로닉스)	장석춘.서갑순.최경호.김순호.하영일.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김한모.허원.이복교.황창배.손종홍.이병욱.김광호.김두형.강한우.강창영.김한성.김준수.이문호.최해경.강진호.권동재.신태기.손은진.김경조.김무호.이복교.변재환.강영철.김인배.강학중	(세아베스틸)	
제43차대의원대회	05. 5.25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허원.손종홍.이병욱.김광호.김두형.강한우.김한성.김준수.이문호.최해경.권동재.신태기.손은진.김경조.이복교.변재환.강영철.김인배.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틸)	105,445
제44차대의원대회 (임기)	06. 5. 3	장석춘 (LG전자)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허원.정상영.윤동현.변재환.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김재업.백승탁.김정근.손창두.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배승천.장재성.고석희.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박병용.주해식.황대선.김희근.권동재.박한봉.장준영.박준수.정진용.이상협.김순창.이복교.정한근.신석곤.강영철.김인배.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김흥배	손종홍 (대한제당)	114,919
제45차대의원대회	07. 5.22	장석춘 (LG전자)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허원.정상영.윤동현.변재환.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김재업.백승탁.김정근.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배승천.장재성.고석희.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박병용.주해식.황대선.김희근.권동재.박한봉.장준영.박준수.정진용.이상협.김순창.이복교.정한근.신석곤.강영철.김인배.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	손종홍 (대한제당)	108,206
제46차대의원대회 (보선)	08. 5.22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박준수.조병철.김정근.허원.정상영.윤동현.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문광주.김재업.백승탁.손창두.손종홍.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오기순.배승천.장재성.고석희.박정용.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조경주.박병용.황대선.김희근.권동재.이상철.장준영.최해경.정진용.이상협.김찬중.김순창.정한근.신석곤.김동준.강영철.김인배.김동의.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03,429
제47차대의원대회 (임기)	09. 5. 7.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허원.김길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종철.문광주.노남섭.김덕수.백승탁.박상규.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권동재.황대선.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주해식.이상철.최해경.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김순창.김동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김동의.조성륜.김병수.정상준.이동철.장복이.하헌준.최정열.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06,897
제48차대의원대회	10. 5. 4.	변재환	상임-김만재.정일진.김성수.	김성수	106,804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LG Display)	서갑순. 박준수. 김정근. 조병철. 오용환. 허원. 김길섭. 윤동현. 박종현. 박덕규. 정종철. 문광주. 노남섭. 김덕수. 박태석. 백승탁. 박상규. 오인상. 강영석. 김광호. 김형기. 오기순. 배승천. 박정용. 고석희. 정덕순. 왕용호. 이승현. 김준수. 조경주. 윤종남. 권동재. 황대선. 박병용. 조용석. 김희근. 전광언. 주해식. 이상철. 최해경. 박한봉. 장준영. 정진용. 박한배. 김수환. 김동준. 윤승오. 김채민. 신석곤. 나영섭. 강영철. 김인배. 김동의. 이상덕. 김병수. 정상준. 이동철. 장복이. 김찬중. 하헌준. 최정열. 석승희	(OTIS엘리베이터)	
제49차대의원대회	11. 5.18.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 정일진. 김성수. 서갑순. 배상호. 김기태. 허원. 윤동현. 김길섭. 박종현. 박덕규. 정종철. 박태석. 김덕수. 문광주. 노남섭. 이기동. 박상규. 김정근. 오인상. 강영석. 김광호. 김형기. 오기순. 배승천. 박정용. 고석희. 정덕순. 왕용호. 이승현. 김준수. 조경주. 윤종남. 황대선. 주해식. 박병용. 조용석. 김희근. 전광언. 이상철. 최해경. 배동한. 박한봉. 장준영. 정진용. 박한배. 정상욱. 이동철. 장복이. 김찬중. 김수환. 김동준. 윤승오. 김채민. 신석곤. 나영섭. 강영철. 김인배. 김동의. 이상덕. 석호진. 김병수. 정상준. 최정열. 하헌준. 설승욱. 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08,178
제50차대의원대회 (임기)	12. 5.1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석호진. 정일진. 김성수 서갑순. 김길섭. 김영국. 강영석. 오기순. 정덕순. 왕용호. 황대선. 이상철. 이동철. 김수환. 서성목. 정상준. 최정열. 설승욱. 석승희. 배상호. 김기태. 박태석. 윤동현. 이기동. 문광주. 윤자심. 박은미. 이영자.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정금선. 김준수. 조경주. 전광언. 정상욱. 장준영. 김봉영. 김동준. 신석곤. 한창욱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6,690
제51차대의원대회	13. 5.1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석호진(수석)정일진.(상임), 김성수(상임), 서갑순. 김길섭. 김영국. 윤석진. 오기순. 정덕순. 김광희황대선. 이상철. 이동철. 김수환. 서성목. 정상준. 최정열. 석승희. 배상호. 박태석. 윤동현. 윤자심. 박은미. 윤복현.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장준영. 김봉영. 김동준. 신석곤. 한창욱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7,383
제52차대의원대회	14. 5.2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석호진(수석)정일진.(상임), 김성수(상임), 장세종. 김길섭. 김영국. 윤석진. 오기순. 정덕순. 김광희황대선. 이상철. 이상협. 김수환. 서성목. 정상준. 최정열. 석승희. 배상호. 박태석. 윤동현. 윤자심. 박은미. 윤복현.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장준영. 김봉영. 김동준. 신석곤. 한창욱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8,582
제53차대의원대회 (임기)	15. 5.2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정일진.(수석), 김성수(상임), 장세종. 김길섭. 오인상. 윤석진. 오기순. 정덕순. 김광희. 황대선. 이상철. 이상협. 김수환. 서성목. 김영근. 최정열. 석승희. 김태완. 배상호. 박태석. 윤동현. 권동섭. 윤복현. 윤자심. 김영국.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장재성.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최해경. 정진용. 김봉영. 김찬중. 김동준. 박철규. 한창욱. 김동의. 정상준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8,905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54차대의원대회	16. 5.17.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정일진.(수석).김성수(상임). 장세종.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 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서민호.최정열.석승희.김태 완.배상호.허정우.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 윤동현.김광호.한명선.장재성.김준수.조경주.정상욱.최 해경.정진용.김봉영.김찬중.김동준.박철규.신석곤.한창 욱.김동의.정상준	김성수 (OTIS엘리 베이터)	129,163
제55차대의원대회	17. 5.23.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정일진.(수석). 김해광.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 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배준호.천정근.최정열.석승 희.김태완.배상호.허정우.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 박상규.윤동현.김광호.한명선.장재성.강국모.류재선.최 해경.정진용.이준덕.김동준.박철규.신석곤.한창욱.김동 의.정상준	김준영 (부천지역)	127,447
제56차대의원대회 (임기)	18. 5.15	김 만 재 (SK하이닉스)	상임-김해광(수석). 김용안.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 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배준호.정상준.최정열.김태 완.석승희.배상호.권동섭.권윤미.윤복현.허정우.윤자심. 김영국.윤동현.한명선.장재성.정란홍.강국모.박태우.안 병철.김종국.류재선.최해경.이준덕.김동준.박철규.신석 곤.김동의.어진호	김준영 (부천지역)	136,009
제57차대의원대회	19. 5.14	김 만 재 (SK하이닉스)	상임-김해광(수석). 김용안.원철식.오인상.백선진.이남철.정덕순.이해관.윤 각렬.이상철.남재환.김수환.배준호.정상준.최정열.김태 완.석승희.배상호.권동섭.오지수.윤복현.이장호.한승연. 김영국.윤동현.한명선.장재성.정란홍.강국모.박태우.안 병철.김종국.김인덕.최해경.이준덕.김동준.박철규.신석 곤.김동의.어진호.김인철	김준영 (부천지역)	148,275

○ 임 원 (2019. 5. 14)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위 원 장	김만재	SK하이닉스이천	수석부위원장	김해광	LG전자
사무처장	김준영	부천지역	부위원장	김용안	위니아SLS
부위원장	원철식	에이엔피	부위원장	이장호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오인상	삼성공업	부위원장	한승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백선진	명화공업	부위원장	김영국	머큐리
부위원장	이남철	진합	부위원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부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부위원장	박태우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정란홍	두올아산
부위원장	윤각렬	대한제강	부위원장	강국모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이상철	세아창원특수강	부위원장	안병철	부산주공
부위원장	남재환	울산알루미늄	부위원장	최해경	한국중천
부위원장	김수환	카פק발레오	부위원장	김종국	덴소코리아마산
부위원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부위원장	김인덕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정상준	TCC한진	부위원장	이준덕	풍산
부위원장	최정열	대우전자민주	부위원장	김동준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김태완	세아베스틸	부위원장	박철규	에스엘
부위원장	석승희	한일전기	부위원장	신석곤	평화산업
부위원장	배상호	LG전자	부위원장	김동의	LG이노텍
부위원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부위원장	김인철	포스코
부위원장	오지수	LG디스플레이	부위원장	어진호	LS엠트론
부위원장	윤복현	세진전자			

○ 지도위원

박 인 상	유 재 섭	이 병 균	장 석 춘
변 재 환	강 영 섭	최 웅 길	

○ 회계감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송해광	JMI	최 철	핸즈코퍼레이션
김삼두	SL라이텍	황성원	대철
조소희	LG디스플레이		

○ 중앙집행위원 2019. 3. 31 기준

직 책	성 명	소속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조합명
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본노련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본노련
총무실장	박선자	본노련	노사대책실장	전종덕	본노련
조직국장	정태교	본노련	조직국장	노윤철	본노련
법규안전국장	나병호	본노련	정책국장	곽상욱	본노련
정책기획2국장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정책1기획국장	김경호	삼영전자
홍보선전국장	김동일	현대종합금속	조사통계국장	정진영	LG디스플레이
통일사업국장	최인석	삼양감속기	정치국장	안교신	삼 동
노사대책국장	김성수	세원셀론텍	대외협력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조직1국장	허일욱	대덕전자	조직2국장	하두호	TK-FUJIKIN
여성국장	모경임	현대모비스	법규국장	윤재욱	AST
문화국장	김영삼	SK하이닉스청주	산업안전국장	손성범	화천기공

○ 중앙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상걸	LG전자	김귀녀	한국보그워너T/S
정혜영	LG전자	한주연	SK하이닉스청주
오성원	롯데알미늄	박대엽	YKSteel
김송훈	신한일전기	김근수	성우하이텍
김정수	ASE코리아	김은겸	GMB코리아
오유진	파주전기초자	손승일	세방전지
민한기	리한	이정희	삼성공조
김수호	동부인천스틸	조대형	고려아연
신진호	스태츠칩팩코리아	김기표	경창정공
박상규	동국제강	이상윤	평화오일셀
강영석	삼보오토	허도영	평화정공
장영기	PN풍년	채근욱	LGDisplay
김진업	서진산업	한창욱	SK실트론
윤익병	남선기공	이종욱	세아제강
강진연	대한전선	조석연	조선선재
양시준	동양철관	이창언	플랜트건설
이창수	애디언트코리아	이기화	스태츠칩팩코리아
강현민	한라스택폴	김학송	대유글로벌
이상용	한국보그워너T/S	엄태욱	오토리브
중앙위원 예비			
전상	K-MEC	남원섭	스타리온성철
이용식	도루코	허문근	DIC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황성원	대철
조제현	남양넥스모	정동민	노틸러스효성
진현주	알루코	이수출	유일
최중진	인팩	정관	대유에이텍
박대철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김훈	가온전선
박창혁	대창단조	이종상	토다이수

총론

1. 2019년 정세 전망.....	41
가. 정치.....	41
나. 경제/고용/사회정책.....	42
다. 노사관계.....	45
2. 2019년 금속산업(제조업)전망.....	47
가. 13대 주력산업 전망과 특징.....	47
나. 2019년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48
다. 2019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51
3. 2019년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요구.....	62
가. 한국노총 제조연대 2019년 3대 목표.....	62
나. 2019년 금속노련 임단투 요구.....	63

1. 2019년 정세 전망

가. 정치

1) 국내 정치

○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결 격화 전망

- ▶ 2019년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민생·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여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대결이 치열할 것.

○ 포용적 성장과 개혁의 갈림길

- ▶ 재인 정부는 지지율 만회와 국정안정화를 위해 연초 청와대 인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경제활력제고로 경제정책의 중심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전략과 남북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려 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득권관료집단의 국정 장악 가속화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부정책의 형해화와 적폐청산을 비롯한 전반적 사회개혁의 좌초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임.

○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예상

- ▶ 올해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통영,창원 2곳)로써,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각축과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 등을 계기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이 예상되며, 특히 '17년 대선과 '18년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보수정치권의 대통합 시도가 이루어질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개혁도 거대 정당간 전략적 담합으로 무산될 수 있음.

2) 한반도 정세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진전

- ▶ 2019.2.27~28. 양일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합의(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를 보다 진전시키기는 방향에서 세부 의제를 조율 중. 특히 이번 회담의 기간이 이틀로 잡은 것은 각 의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표현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연일 표명하고 있는 상황.

○ 북미관계 개선에 발맞춘 남북관계 진전

-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에 따라 성과있게 마무리될 경우, 이는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담보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지난해 남북 정상간 합의된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그 부속합의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상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핵심 요인이 미국의 대북제재 및 군사전략에 있는만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간 선언의 이행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군사분야 합의의 이행 등이 이루어지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 <4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 74년만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쌍방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남북관계 역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임.

○ 4.27 판문점선언 기념행사를 핵심으로 한 민간교류 확대전망

- ▶ 민간단체들의 남북간 연대·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9년 민간연대교류사업의 핵심은 4.27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전후로 개최될 민족공동행사이며, 이는 작년 10월 개최된 <10.4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의 형식과 유사하게 당국·국회·정당·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이 모두를 묶는 별도의 남북 공동의 조직이 건설될 가능성도 있음. 그 외 6.15공동선언 19주년, 10.4선언 12주년 등 주요 계기에 따라 민족공동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남측 내 각종 단체들의 공동행보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노동분야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남북 민간연대교류에서 선도적 역할을 요청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남북노동자 3단체의 독자적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민족공동행사에서 노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 또한 남북 노동자의 단일한 통일운동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건설로, 더욱 조직적이고 폭넓은 연대교류사업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나. 경제/고용/사회정책

1) 경제·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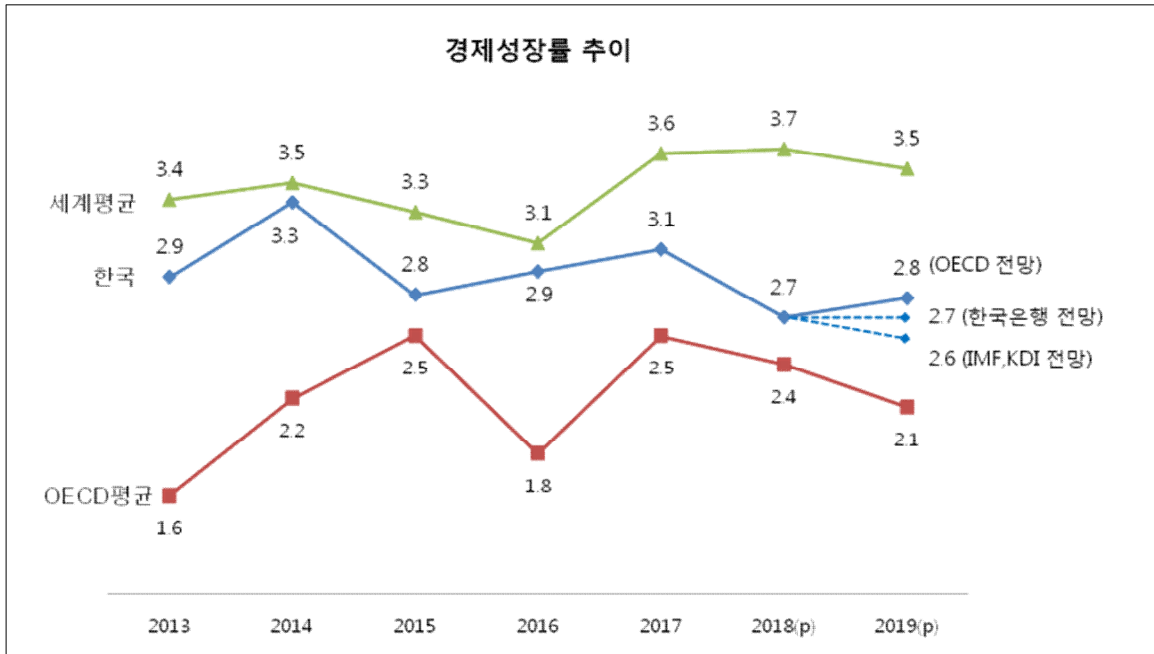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성장세 (*OECD 전망: '18년 3.7%→'19년 3.5%)가 전망되며,

△미중무역분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경제 하강가능성,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

○ 한국경제성장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 전망

- ▶ 내수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작년(2.7%)과 동일하거나 소폭 낮은 2.6~2.7%(*정부 전망치)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출처 : OECD.Stat

내수경기 둔화 요인	수출증가세 약화 요인
• 가계소득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 vs.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및 자산효과 축소 등은 민간소비를 제약 • 반도체산업 투자 마무리,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폭 둔화 •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 지속	• 반도체 산업 둔화 → 2분기 이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한미FTA개정에 따른 자동차 수출 대란 가능성

○ 실업률·고용률 전년도 수준 유지 전망

- ▶ 현 경제상황에서 고용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인구구조변화 영향), 취업자 수 증가폭은 소폭 개선(*전년도 기저효과)될 전망이다.

○ 고용·경제에 위협요인 증가

-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가능성 존재, 출산을 저하와 고령

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단시간·저임금일자리 확산 우려

-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주력하기 보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완전 폐기와 친기업 정책 전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단시간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 경제·일자리 정책

○ 경제활성화로 경제정책 중심이동

- ▶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제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로 설정함.

< 2019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투자활력 제고: 민간투자확대,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등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 소비·관광 활성화 • 수출 경쟁력 강화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핵심규제 혁신 •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공공기관 직무급 전환, 지역상생형일자리 모델 확산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 보완 • 공정경제질서확립: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협력 이익공유제·임금격차해소운동 확산	• 4차산업혁명 대비 • 저출산·고령화 대응 •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 노동정책 후퇴 및 친기업 성장정책 본격화

- ▶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경제질서확립 등 긍정적 정책도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존속 (“최저임금결정구조 변경 및 탄력근로제 확대”), △공공

성 훼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확대”), △임금하향평준화 (“공공기관 직 무급전환, 지역상생형일자리 모델 확산”) 등 과거 보수정부의 경제정책들로 퇴행.

3) 사회정책분야 전망

○ 개혁적 사회정책의 갈림길

- ▶ 2019년은 작년 한 해 동안 논의되었던 관련 정책들이 실제 도입되어 구현되거나 좌초되 어 사실상 폐기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 사회정책 확대 요구 증가

- ▶ 한국사회 내외부의 경제·사회·정치적 환경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으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정책분야는 당분간 강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임금전략 개발 필요

- ▶ 사회정책분야 전반이 적정급여-적정부담 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 께 사회임금쟁취를 위한 전략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해 야 함.

다. 노사관계

1) 핵심 이슈

- 2019년 노사관계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간 제도개편, △ 최저임금 인 상 및 결정구조 변경,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논의로 뜨거 울 것으로 전망

- ▶ (2월, 노정관계·사회적대화의 분기점)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결정구 조 변경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국회 가 노총이 합의하지 않는 개악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경우 노정관계 및 사회적 대화 파탄의 신호탄이 될 것.

< 2019년 1~2월 노동정책 분야 쟁점 >

고용	계절(졸업시즌)영향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 마이너스 가능성
임금	[최저임금] △ 1.1부터 8350원 적용에 따라 보수진영과 경제지의 맹 공 예상됨. △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 정부안 발표 → 2월 국회 논의, 개정

노동시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제도 논의 → (2월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노조법개정 및 ILO협약 비준	(경사노위) 단결권+교섭권, 쟁의행위 등 포괄적합의 추진 → 합의여부에 따라 (2월국회)노조법 개정 논의 ※ 단결권의 사용자 주장(단협 유효기간 확대,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등 포함 가능성 높음)
비정규직	[공공비정규] △ 자회사 모델 가이드라인 발표, △ 3단계 전환(민간위탁기관) 시행
기타	(경사노위) △ 산업안전 : 과로사방지법 등 논의, △ 연금특위: 4월+3개월 논의

○ 노조법개정 및 ILO핵심협약비준

- ▶ 정부는 2월 노조법 개정,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 핵심협약 비준완료를 목표로 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12월 공익위원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노동정책이 중단됨으로써, 노정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질 것임.

2) 그 외 주요 이슈

○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전환

- ▶ 정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경사노위 내 관련 위원회 설치·지원할 것임을 밝힘. 공공부문 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추진될 경우 공공부문 노정갈등이 심화될 것임.

○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협상

- ▶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노사단체의 치열한 격돌과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 제조업 구조조정

- ▶ 자동차산업 등 주력업종에서조차 정리해고 등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음.

3) 사회적 대화

-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제도 및 ILO 핵심협약·노조법 재개정 관련 의제의 합리적 처리여부는 사회적 대화가 순항하느냐 중단되느냐를 결정할 것임.
- 연초 핵심 쟁점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화와 합리적 타협으로 노사정간 신뢰를 축적한다면 사회경제 개혁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들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
- 경사노위가 당면한 갈등국면에서 공정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자리매김할 때, 업종별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산업과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2. 2019년 금속산업(제조업)전망

가. 13대 주력산업 전망과 특징

- 2019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둔화하여 3.6% 증가 전망
 - ▶ 선진권의 경기 둔화, 개도권의 성장 정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유가 횡보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폭 제한, 반도체 가격 인하 등 부정적 요인 지속 예상
- 2019년 생산은 수출 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부진 전망
 - ▶ 반도체(6.8%)는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목적의 생산시설 확충, 조선(8.4%)은 2017년 이후 수주회복기 고가 LNG운반선의 본격 건조와 기저효과로 증가세 반등
-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위축하며 전반적인 부진 전망
 - ▶ 자동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등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 내수가 증가하겠으나, 수요산업의 국내생산 부진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류의 내수는 둔화 전망

〈2019년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제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음식료		○	○	○	○

주 : 1) 전망 :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나. 2019년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1) 세계경제의 제한적 성장, 중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 부정적 영향 지속

○ (세계경제의 제한적 성장) 글로벌 경기의 제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는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세 전망

- ▶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 정보통신기기의 스마트폰 시장은 5G폰 및 폴더블폰 수요로 부진이 개선되고, PC시장은 6년 부진에서 벗어나 소폭 성장 전망
- ▶ 대형 이차전지 세계 수요는 세계 주요국의 노후 전력계통 인프라 교체 수요 및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산 등으로 큰 폭의 성장 지속 전망

○ (중국 성장세 둔화)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수출의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나머지 산업에서의 수출은 부정적 영향 예상

- ▶ 자동차는 중국 성장세 둔화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로컬업체들과 외자합작업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동차 수요 하락 전망

- ▶ 조선은 LNG 수요 증가세 둔화와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미중간 해상물동량 감소로 인해 전방산업인 해운시황과 LNG운반선 시장에 간접적인 악영향 예상
 - ▶ 중국 성장 둔화 시 일반기계는 대중 수출 둔화, 철강은 철강가격 하락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
 - ▶ 정유는 아스팔트와 고부가가치 경질유의 대중 수출 부진, 석유화학은 중국 내 전방산업의 저성장으로 수요 위축 등 우려
- (보호무역 기조 강화) 2019년에도 보호무역 강화로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가전, 이차전지, 음식료, 자동차, 섬유 등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 자동차는 수입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보류로 직접적 영향은 작지만,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양국 경기 둔화 시 자동차 수요 위축 등 간접적 영향 우려
 - ▶ 일반기계는 NAFTA 재협상,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등 미국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교역 불확실성 리스크에 의한 대중 수출량 감소 우려
 - ▶ 철강은 보호무역주의가 EU 및 신흥국으로 확산, 섬유는 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섬유 소비위축 우려, 석유화학은 국산 화학 중간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며 아시아시장 내 공급과잉 우려
 - ▶ 이차전지는 2016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자국 배터리 위주(한국기업 보조금 대상 제외)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 보호무역 강화가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2) 2019년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국내경기 부진) 2019년 국내경기 부진 시 소비위축으로 자동차, 섬유, 가전, 음식료 등 소비재와 석유기반 산업의 업황 위축
- ▶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는 일차적으로 자동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등 소비재의 수요 위축 야기
 - ▶ 산업활동 위축으로 전후방산업 간 선순환 파급효과가 낮아지고 특히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소재 등 소재산업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
- (소비둔화) 2019년 민간소비 위축 전망으로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의 업황 위축이 예상되며, 정유 및 디스플레이의 연쇄부진 전망
- ▶ 자동차 및 가전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신규 수요 감소, 디스플레이는 세트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수요위축을 초래할 전망
 - ▶ 의류는 중저가 제품 수요 및 수입 확대, 중국인 단체관광객 확대 등으로 소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음식료는 경기 비탄력적인 특성상 소비둔화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

- (국내투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의 국내투자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IT산업, 석유화학, 음식료산업의 투자확대 전망
 - ▶ 자동차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품업체 투자 감소, 섬유는 내수 및 수출 부진 전망으로 국내 생산 투자 소극적
 - ▶ 일반기계는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 반도체산업 주도의 대규모 설비투자 마무리 등으로 투자가 다소 부진 전망
 - ▶ 반도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대비하여 기술 초격차 전략을 위해 첨단제품 개발 및 생산 설비 증설 예상
 - ▶ 디스플레이는 OLED 신규 및 추가 투자 확대, 이차전지는 중대형 이차전지 중심의 R&D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해외투자) 해외투자 확대로 자동차, 일반기계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빠르게 진전된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 자동차는 2019년 하반기 인도에 기아차 생산공장 신규 가동 예정으로 국내 부품수요 증가예상
 - ▶ 일반기계는 기아차의 인도공장 건설 시 현지 생산공장의 자동차 생산설비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는 등 수요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신설에 따른 국내 기계류 수출증대 기대
- (고용)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영실적이 좋은 산업에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업종들의 고용은 부진할 전망
 - ▶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으로 고용증가, 이차전지 역시 국내투자 확대로 고용증가 예상
 - ▶ 조선은 2017년 이후 수주회복기의 물량생산, LNG운반선 등의 본격 생산, 친환경 기자재시장 확대 등으로 고용의 증가세 전환 전망
 - ▶ 2019년 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섬유, 가전 등에서 고용감소 예상
 - ▶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 섬유 및 가전은 해외생산 확대,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생산 물량이 감소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저하

다. 2019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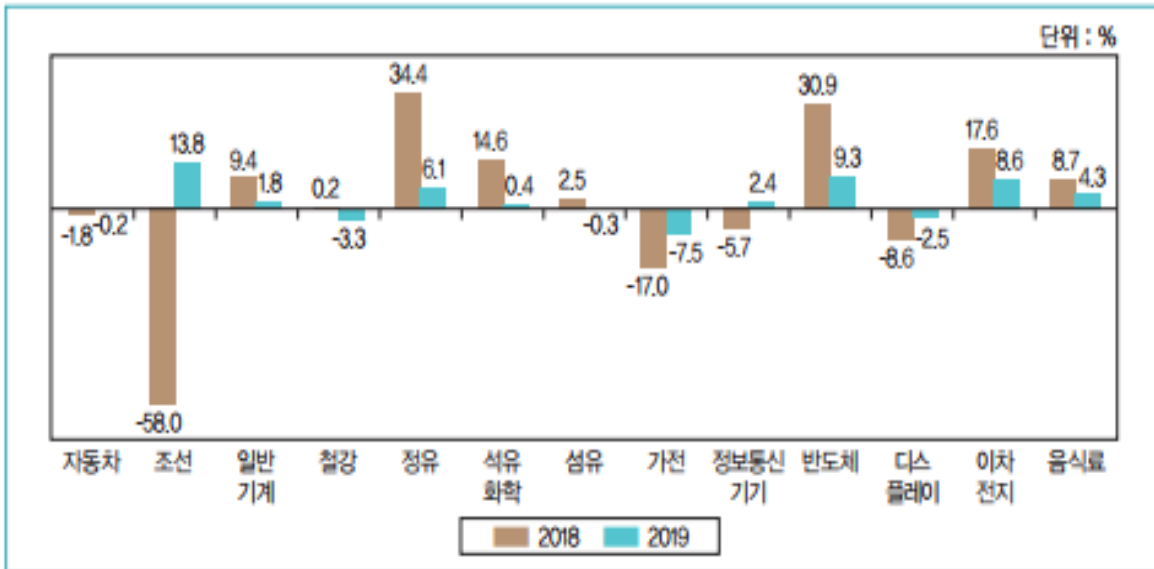
1) 수출은 2018년 5.2% 증가에서 증가폭이 둔화하여 3.6% 증가

- 13대 주력산업의 2019년 수출은 선진권의 경기둔화와 개도권의 성장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유가 횡보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폭 제한, 반도체 가격 인하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 ▶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지속되고, 글로벌경쟁 심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 수출증가세는 전년(5.2%) 대비 다소 둔화하겠으나 증가세는 지속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은 고가에 수주받은 LNG운반선의 건조와 생산량 증가로 13.8% 증가 전환, 일반기계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증가세 둔화
 - ▶ 주요 선진시장의 자동차 수요 감소 및 신흥시장 수요가 크게 둔화하여 완성차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0.2% 감소 예상
- (소재산업군) 정유는 국제유가의 안정화로 석유제품 수출단가 상승폭 제한, 글로벌 석유제품의 수요확대 추세 둔화 및 주요국의 대규모 정제설비 가동으로 인한 공급확대 추세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6.1% 증가
 - ▶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수출단가가 보험세를 유지되며 0.4% 증가, 철강은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단가하락으로 3.3% 감소 전망
 - ▶ 섬유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글로벌 섬유수요 부진과 수출단가 인상 제약으로 0.3% 소폭 감소세 전망
- (IT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 수출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6.1% 증가가 예상되나, 2018년(14.9%)보다는 증가세가 둔화
 - ▶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발달로 인한 수요증가로 9.3%의 수출 증가세 유지
 - ▶ 이차전지는 중대형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폭발적 수요 증가 및 대형 이차전지의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증가율은 8.6% 전망
 - ▶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SSD의 호조세 지속과 5G폰, 폴더블폰 등 차세대 스마트폰 출시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4%의 소폭 증가 전환
 - ▶ 디스플레이 수출은 중국 대비 LCD의 경쟁력 약화, 패널가격 하락, 중국기업들의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대비 2.5% 감소, 가전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와 글로벌

별 경쟁심화 등으로 7.5% 감소

- 음식료 수출은 대중국 수출시장 회복 및 新남방, 新북방 등 신흥국의 한국산 가공식품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4.3% 증가세 유지

〈2019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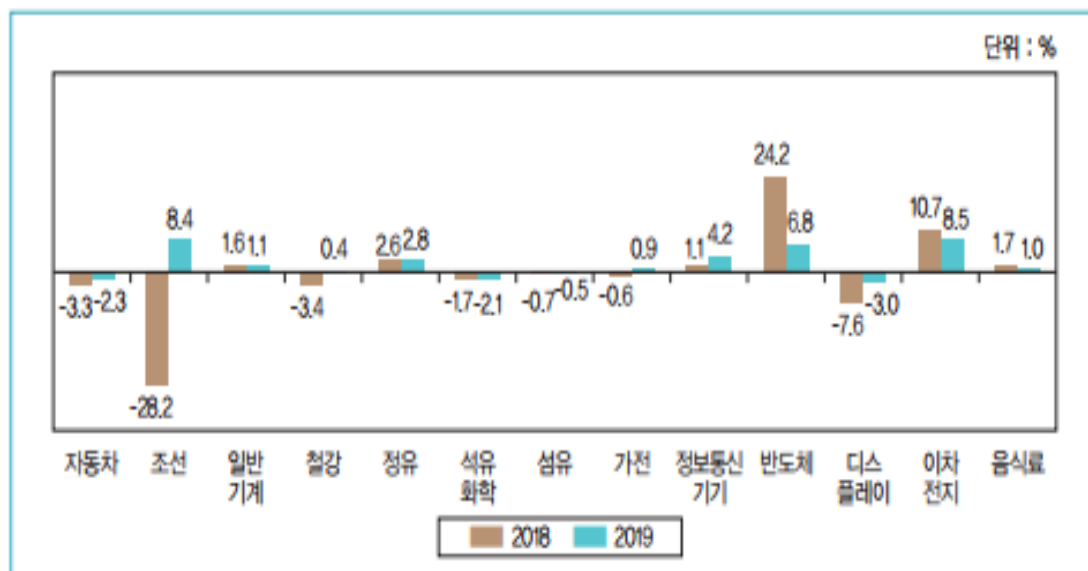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2) 생산은 수출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부진 전망

- 조선, 철강, 가전의 생산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의 생산 감소세 지속, 반도체, 이차전지, 일반기계 등의 생산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면서 생산 증가를 제약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 생산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및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생산부진 전망
 - ▶ 자동차 생산은 수출 및 내수 부진 지속,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강화 영향으로 중소 부품업체들의 생산이 위축되어 전년대비 2.3% 감소

- ▶ 조선은 2017년 이후 수주회복기 수주분의 본격 건조와 기저효과로 증가세로 반등하는 반면, 일반기계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생산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침.

〈2019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소재산업군) 철강 및 정유 생산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및 섬유생산 감소로 소재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전망
 - ▶ 철강은 상반기 내수의 부진 여파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지만 하반기에 판재류 수출 영향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년 수준의 생산 전망
 - ▶ 정유 생산은 대규모 신규설비 확장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고도화 설비 중심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공급확대로 수출주도 생산 확대가 어렵고 재고 증가 우려로 전년대비 2.8% 확대 전망
 - ▶ 석유화학은 전방산업의 내수부진 지속 및 수출물량 증가율 정체로 가동률도 하락하고, 섬유는 지속적인 해외투자 및 수출 부진과 수입급증으로 국내 생산이 소폭 감소 전망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주도하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고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IT산업군 생산은 전년대비 소폭 둔화
 - ▶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 설비를 확충 및 수출 확대 영향으로 6.8%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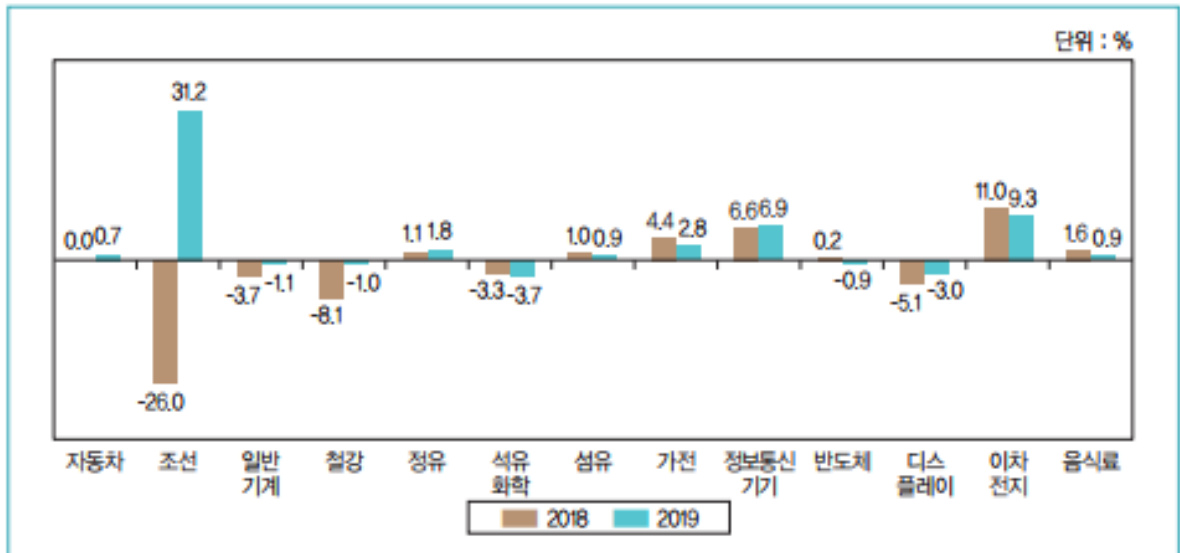
- ▶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의 공급자 지위 강화로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공급부족 현상으로 생산증가 지속
 -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5G 통신기기, 폴더블폰 등 신제품 출시, SSD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해외생산 비중으로 전년대비 4.2% 제한적 성장
 - ▶ 이차전지 생산은 수출증가 추세에 힘입어 중대형 이차전지 중심의 R&D 투자 및 국내 신규설비라인 구축을 통한 생산 확대로 8.5% 증가 지속
 - ▶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업체들의 OLED 패널 채용 속도가 느리고 생산구조조정에 따른 LCD 공급 감소, 패널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0% 감소 예상
- 음식료는 수출 확대, 내수의 견실한 성장 기조, 소비자 대응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예상

3)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부진하며 전반적인 위축 전망

- 자동차,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등 소비재의 높은 수입 확대로 내수가 증가하겠으나, 수요산업의 국내생산 부진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류의 내수둔화 전망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 내수는 일반기계 내수부진이 자동차 내수증가로 만회하면서 전년수준 유지
 - ▶ 자동차 내수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업체들의 내수 판매 전략 강화 및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0.7% 소폭 증가 전망
 - ▶ 조선은 국내 해운사가 2017년부터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의 건조가 2019년에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큰 폭의 회복세 시현
 - ▶ 일반기계 내수는 정부의 SOC 투자 감소와 반도체산업이 주도했던 기계류 설비투자가 마무리되고, 설비투자 위축으로 전년대비 1.1% 감소
- (소재산업군)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 및 석유화학 내수가 부진하고 섬유 내수는 보합, 정유 및 섬유 내수가 미증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둔화
 - ▶ 철강은 자동차, 기계 등 수요 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건설투자 하락세 전환 등 내수부진과 수출위축으로 전년대비 1.0% 감소
 - ▶ 정유는 민간소비 및 운송부문 주도의 내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산업부문의 소비는 소폭 감소하며 전년대비 1.8% 증가 예상

- ▶ 석유화학은 생산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 섬유, 건설산업 등 수요산업의 업황 개선이 불투명하여 석유화학 중간재 수요 위축 등으로 3.7% 감소 전망
- ▶ 섬유 내수는 수입 주도의 섬유수요 확대로 1.0% 증가세 예상

〈2019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IT산업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 가전 주도의 내수성장 전망
 - ▶ 이차전지 내수는 소비심리 일부 개선 및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산 정책 기조 강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전망
 -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5G 이동통신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고 관련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9% 증가
 - ▶ 가전 내수는 건강가전과 프리미엄 시장 확대, 다양한 IoT 가전 신제품 출시, 스마트홈 서비스 확대 등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8% 증가 전망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주요 수요산업의 국내 소비량 축소 및 해외 생산 확대로 감소 예상
- 음식료 내수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고급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0.9% 성장 전망

4) 수입은 소재산업을 제외하고 소비재와 IT 부품 수입 확대에 힘입어 4.3% 증가세 유지 전망

○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수출 성장세 둔화, 내수 및 국내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4.3%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기 부문의 수입이 확대되었으나, 내수부진에 따른 일반기계 수입 감소로 기계산업 수입은 0.7% 확대

- ▶ 자동차는 수입차 업체들의 가격인하와 다양한 신모델 출시, AS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전망
- ▶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선박수입과 외국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LNG운반선과 같은 고 기술선박의 생산에 따른 기자재 수입으로 10.9% 증가
- ▶ 일반기계는 수입수요를 견인하는 기계류 설비투자 위축이 심화되면서 2.7% 감소

○ (소재산업군) 정유와 섬유 수입 증대에 힘입어 소재산업의 수입은 전년대비 2.4% 증가 전망

- ▶ 정유 수입은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으로 석유제품 수입물량 확대폭 축소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5.3% 확대로 증가세 둔화
- ▶ 섬유는 해외생산 의류의 역수입 지속 확대,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 합리적 소비 확산에 따른 중저가 섬유제품의 수요증가로 증가 예상
- ▶ 철강은 수요산업 부진 및 건설투자 위축 등 국내수요 부족, 석유화학은 국제유가의 보합세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세 등으로 수입감소 예상

○ (IT산업군) IT산업 수입은 제품 및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8.4% 확대되어 총수입 증가를 견인

- ▶ 이차전지 수입은 저가 중국산 부분품 및 완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15.0% 증가 전망
- ▶ 반도체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신규 산업에서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0.9% 증가 전망
- ▶ 가전은 국내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제품(개도국)과 프리미엄 제품(선진국) 수입 수요의 동반성장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예상

- ▶ 정보통신기기는 외산 스마트폰, PC와 완제품 제조용 부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7.0% 증가 전망
- 음식료는 맥주, 고급 유가공품 등 고급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전년대비 1.7% 증가 예상

〈2019년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주 :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19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64,824 (-1.4)	31,869 (-4.5)	31,785 (1.1)	63,655 (-1.8)	31,723 (-0.5)	31,795 (0.0)	63,518 (-0.2)
조선	42,182 (23.1)	10,813 (-54.8)	6,902 (-62.2)	17,716 (-58.0)	11,062 (2.3)	9,093 (31.7)	20,154 (13.8)
일반기계	48,607 (10.1)	26,267 (8.6)	26,910 (10.2)	53,177 (9.4)	27,180 (3.5)	26,980 (0.3)	54,160 (1.8)
철강	34,211 (19.9)	16,789 (-0.5)	17,488 (0.8)	34,277 (0.2)	16,621 (-1.0)	16,516 (-5.6)	33,137 (-3.3)
정유	35,037 (32.4)	22,001 (34.2)	25,072 (34.5)	47,073 (34.4)	24,768 (12.6)	25,192 (0.5)	49,960 (6.1)
석유화학	44,688 (23.6)	24,962 (13.2)	26,271 (16.1)	51,233 (14.6)	25,960 (4.0)	25,457 (-3.1)	51,417 (0.4)
섬유	13,742 (-0.5)	7,177 (5.0)	6,908 (0.1)	14,085 (2.5)	7,215 (0.5)	6,831 (-1.1)	14,046 (-0.3)
가전	8,830 (-22.1)	3,692 (-18.4)	3,636 (-15.6)	7,328 (-17.0)	3,445 (-6.7)	3,330 (-8.4)	6,775 (-7.5)
정보통신기기	31,867 (-16.7)	14,721 (-4.7)	15,342 (-6.6)	30,063 (-5.7)	15,011 (2.0)	15,780 (2.9)	30,791 (2.4)
반도체	97,952 (57.4)	61,278 (42.9)	66,911 (21.5)	128,189 (30.9)	65,080 (6.2)	75,030 (12.1)	140,110 (9.3)
디스플레이	27,379 (9.1)	11,131 (-15.7)	13,889 (-2.0)	25,020 (-8.6)	11,298 (1.5)	13,097 (-5.7)	24,395 (-2.5)
아차전지	5,950 (19.7)	3,385 (20.0)	3,614 (15.5)	6,999 (17.6)	3,737 (10.4)	3,862 (6.9)	7,599 (8.6)
음식료	4,726 (8.0)	2,533 (11.8)	2,605 (5.9)	5,138 (8.7)	2,670 (5.4)	2,690 (3.3)	5,360 (4.3)
13대 합계	459,995 (16.3)	236,618 (5.3)	247,333 (5.1)	483,953 (5.2)	245,770 (3.9)	255,653 (3.4)	501,422 (3.6)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공학기기(715) 제외 기준.

〈2019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4,115 (-2.7)	2,005 (-7.3)	1,973 (1.1)	3,978 (-3.3)	1,938 (-3.3)	1,949 (-1.2)	3,887 (-2.3)
조선 (만CGT)	1,057 (-14.3)	446 (-25.1)	314 (-31.3)	759 (-28.2)	454 (1.8)	370 (17.8)	823 (8.4)
일반기계 (십억원)	105,106 (6.4)	53,425 (1.8)	53,340 (1.4)	106,765 (1.6)	54,195 (1.4)	53,795 (0.9)	107,990 (1.1)
철강 (천톤)	77,073 (3.7)	37,962 (-1.2)	36,515 (-5.5)	74,477 (-3.4)	37,836 (-0.3)	36,939 (1.2)	74,775 (0.4)
정유 (십만배럴)	12,297 (6.2)	6,143 (3.1)	6,472 (2.1)	12,615 (2.6)	6,337 (3.2)	6,636 (2.5)	12,973 (2.8)
석유화학 (천톤)	21,976 (4.3)	10,817 (-0.1)	10,777 (-3.3)	21,594 (-1.7)	10,581 (-2.2)	10,551 (-2.1)	21,132 (-2.1)
섬유 (십억원)	78,085 (4.9)	39,470 (1.6)	38,100 (-2.9)	77,570 (-0.7)	39,050 (-1.1)	38,132 (0.1)	77,182 (-0.5)
가전 (십억원)	42,095 (-1.1)	21,374 (0.7)	20,468 (-1.9)	41,842 (-0.6)	21,588 (1.0)	20,631 (0.8)	42,219 (0.9)
정보통신기기 (십억원)	56,147 (5.4)	27,607 (1.3)	29,133 (0.9)	56,740 (1.1)	28,575 (3.5)	30,553 (4.9)	59,128 (4.2)
반도체 (십억원)	111,495 (38.4)	68,226 (42.6)	70,284 (10.4)	138,510 (24.2)	72,310 (6.0)	75,610 (7.6)	147,920 (6.8)
디스플레이 (십억원)	70,676 (2.1)	31,212 (-12.5)	34,065 (-2.6)	65,277 (-7.6)	30,982 (-0.7)	32,329 (-5.1)	63,311 (-3.0)
이차전지 (십억원)	11,960 (10.5)	6,222 (13.1)	7,016 (8.6)	13,238 (10.7)	6,894 (10.8)	7,468 (6.4)	14,362 (8.5)
음식료 (십억원)	86,755 (3.6)	43,750 (2.4)	44,500 (1.1)	88,250 (1.7)	44,080 (0.8)	45,020 (1.2)	89,100 (1.0)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를 기준으로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9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1,794 (-1.8)	897 (-0.8)	897 (0.9)	1,795 (0.0)	910 (1.4)	897 (0.0)	1,807 (0.7)
조선 (만CGT)	104 (-1.0)	45 (-10.0)	32 (-40.7)	77 (-26.0)	45 (0.0)	56 (75.0)	101 (31.2)
일반기계 (십억원)	84,117 (5.9)	41,490 (-0.7)	39,550 (-6.6)	81,040 (-3.7)	40,009 (-3.6)	40,113 (1.4)	80,122 (-1.1)
철강 (천톤)	56,314 (-1.3)	26,707 (-6.5)	25,052 (-9.8)	51,759 (-8.1)	26,338 (-1.4)	24,903 (-0.6)	51,241 (-1.0)
정유 (십만배럴)	9,401 (1.7)	4,681 (1.9)	4,820 (0.3)	9,501 (1.1)	4,757 (1.6)	4,911 (1.9)	9,668 (1.8)
석유화학 (천톤)	11,631 (3.6)	5,691 (-1.5)	5,554 (-5.1)	11,245 (-3.3)	5,448 (-4.3)	5,382 (-3.1)	10,830 (-3.7)
섬유 (십억원)	79,727 (6.0)	40,056 (3.1)	40,482 (-0.9)	80,538 (1.0)	40,221 (0.4)	41,073 (1.5)	81,294 (0.9)
가전 (십억원)	39,580 (9.9)	21,348 (7.6)	19,970 (1.1)	41,318 (4.4)	21,973 (2.9)	20,518 (2.8)	42,491 (2.8)
정보통신기기 (십억원)	50,929 (18.8)	26,117 (6.8)	28,189 (6.5)	54,306 (6.6)	27,650 (5.9)	30,376 (7.8)	58,026 (6.9)
반도체 (십억원)	47,338 (-6.9)	24,971 (18.0)	22,439 (-14.3)	47,410 (0.2)	25,197 (0.9)	21,787 (-2.9)	46,984 (-0.9)
디스플레이 (십억원)	45,558 (3.9)	22,175 (-6.7)	21,079 (-3.3)	43,254 (-5.1)	21,405 (-3.5)	20,563 (-2.4)	41,969 (-3.0)
이차전지 (십억원)	6,546 (15.3)	3,378 (9.8)	3,887 (12.0)	7,265 (11.0)	3,689 (9.2)	4,255 (9.5)	7,944 (9.3)
음식료 (십억원)	94,852 (3.8)	47,827 (2.0)	48,639 (1.2)	96,466 (1.6)	48,273 (0.9)	49,104 (1.0)	97,377 (0.9)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9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6,475 (2.9)	9,156 (15.7)	8,383 (-2.1)	17,540 (6.5)	9,482 (3.6)	8,914 (6.3)	18,396 (4.9)
조선	2,466 (-24.4)	1,269 (-2.5)	1,253 (7.7)	2,522 (2.3)	1,458 (14.9)	1,338 (6.8)	2,796 (10.9)
일반기계	30,042 (10.0)	15,175 (2.5)	14,630 (-4.0)	29,805 (-0.8)	14,525 (-4.3)	14,485 (-1.0)	29,010 (-2.7)
철강	21,885 (9.5)	11,020 (-5.9)	10,347 (1.7)	21,367 (-2.4)	10,891 (-1.2)	10,289 (-0.6)	21,180 (-0.9)
정유	15,118 (26.0)	9,965 (31.2)	11,540 (53.3)	21,505 (42.2)	11,092 (11.3)	11,563 (0.2)	22,655 (5.3)
석유화학	13,774 (15.7)	7,076 (-0.5)	7,871 (18.1)	14,947 (8.5)	7,387 (4.4)	7,383 (-6.2)	14,771 (-1.2)
섬유	15,194 (4.7)	7,710 (12.6)	9,074 (8.7)	16,784 (10.5)	8,265 (7.2)	9,537 (5.1)	17,802 (6.1)
가전	6,608 (16.2)	3,668 (11.0)	3,192 (-3.4)	6,860 (3.8)	3,789 (3.3)	3,227 (1.1)	7,016 (2.3)
정보통신기기	27,353 (12.0)	13,337 (2.6)	14,513 (1.1)	27,850 (1.8)	14,185 (6.4)	15,611 (7.6)	29,796 (7.0)
반도체	41,176 (12.5)	21,11 5(9.6)	22,487 (2.7)	43,602 (5.9)	22,250 (5.4)	26,100 (16.1)	48,350 (10.9)
디스플레이	5,142 (69.3)	2,733 (-0.9)	2,326 (-2.4)	5,059 (-1.6)	2,755 (0.8)	2,352 (1.1)	5,107 (1.0)
이차전지	893 (26.5)	742 (87.4)	828 (66.6)	1,570 (75.8)	878 (18.3)	928 (12.1)	1,806 (15.0)
음식료	11,926 (8.9)	6,322 (7.0)	6,290 (4.6)	12,612 (5.8)	6,410 (1.4)	6,420 (2.1)	12,830 (1.7)
13대 합계	208,052 (11.6)	109,288 (7.2)	112,734 (6.2)	222,023 (6.7)	113,367 (3.7)	118,147 (4.8)	231,515 (4.3)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3. 2019년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요구

2019 돌파! 승리하는 제조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장시간 노동 방치하는 노동계약 돌파!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및 노동기본권 확대!
2019년 통일의 시대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전진하자!

가. 한국노총 제조연대 2019년 3대 목표

◆ 노동조합 역량강화와 노동존중사회 건설

- 조직확대
- 제조연대 활동 강화
- 타임오프 제도 및 창구단일화 절차 철폐
- ILO핵심협약 비준
- 제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 제조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 금속노련 임금인상률 9.4%
-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 확보
- 임금저하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쟁취
-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 위험의 외주화 및 불공정 원하청 관계 근절
-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일·생활 균형 확립

◆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노동조합

- 노동자의 정치 참여 확대
-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응강화
- 사회연대 활동 강화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
- 직장내 갑질 근절

나. 2019년 금속노련 임단투 요구

1) 표준생계비에 기초한 목표임금 쟁취

-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조합원 가구원수와 물가인상 예상치, 도시근로자(2인 이상)가구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기초로 2019년 금속노동자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생계비 충족률 90%, 기본급 대비 8.3% (168,05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함.
- 가맹노조는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소속 조합원의 가구원수,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 조합원의 요구수준등 주·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 실정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율과 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가맹노조는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지침과 조직실정에 기초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관철함으로써 생계비에 기초한 목표임금을 쟁취

2) 노사공동결정 원칙 확립 및 인사·경영참여 확대

-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됨. 이 경우 민주주의란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을 말함.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노동자 경영참여란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 및 해고, 기술변경과 생산기구의 구성, 사회적 영향과 투자 및 투자계획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기업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노동자가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업조직 내에서 노동자 또는 그 대표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제도와 관행”을 의미함.
- 시대의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조직의 입장에서든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인력의 능동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력관리 방식에

있어 기존의 ‘통제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이해, 참여,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집단적 경영참여를 제도화해왔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 주로 노동자들의 개별적 경영참여, 비공식적 경영참여 등의 형태를 발전시켜옴.

-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먼저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토대로 한 실질적 경영참가 실현을 위한 경영협의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회사 운영의 의사결정 참여확대를 실현해야 함.

[요구]

- ▶ 회사의 휴·폐업, 합병·양도·이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사전 합의 또는 협의 규정 구성
-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등의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
- ▶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전보 등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절차 마련
- ▶ 단협상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의 실질적 근거 마련
-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

3)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 우리나라의 취업자 기준 연간노동시간은 2,240시간에 이르며,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1,764시간)보다 무려 480시간 정도를 더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임.
-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적용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적용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고용노동부의 불법적 행정해석·포괄임금제·낮은 교대제 등이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이 됨.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40시간 제한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시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금속노련의 가맹노조 다수는 아직도 주52시간이 넘는 불법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주야 맞교대, 심야·휴일 근로의 형태로 현장에 만연해 있음.
- 장시간 근로와 심야근로를 동반하는 교대제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

며, 가족관계 형성과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임. 또한 장시간 노동은 낮은 생산상과 기업경쟁력의 약화 요인일 뿐임.

- 휴일·연장노동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 행정해석의 폐기 없이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처리를 강행함 (△1주(7일) 주52시간 단계적 시행(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2019.7.1.시행)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12.31.까지는 특별연장노동 시간 8시간 추가허용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불인정(현행대로 50% 할증임금만 인정), △‘특례업종’: 현행 26개 업종 → 5업종 축소(연속휴게시간 최소 11시간 보장).
- 장시간·저임금노동체계 개선과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불법적 행정해석 즉각 폐기와 주52시간 상한 확립, △낮은 교대제의 개편,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휴가·휴일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이뤄야 함.

[요구]

- ▶ 교대제개편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교대근무자 보호 단체협약을 통한 교대제 개편
- ▶ 교대제 개편시 시·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 ▶ 실노동시간 상한제 및 추가채용 의무 부가
- ▶ 소정노동시간 단축시 임금·노동조건 저하 금지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남용방지

- 도입요건 : 노사 서면합의절차 유지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 단위기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
- 사전확정 : 3개월 초과하는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장기간에 걸쳐있어, 노동일별 노동시간의 사전확정에 애로가 있고, 변동가능성이 있는 점 고려 → 주별 노동시간으로 확정하되 최소 2주전에는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고시하여 노동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임금보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장치로서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방법(보전수당, 할증 등)과 절차(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정하고, 미

이행에 대한 금전적 징계이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함. 단, 노사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절차행위에 있어 예외로 함.

[요구]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등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은 반드시 노사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할 것
-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 특정일의 노동시간 한도 및 임금보전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것

5) 최저임금 탈법행위 근절 및 온전한 임금인상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기업의 편법꼼수, 탈법행위 및 최저임금 제도개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측의 탈법적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여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를 타파해나가야 함.

[요구]

- ▶ 최저임금 상승분의 온전한 인상 요구
- ▶ 노동조합 동의 없는 임금체계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

6)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확대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뚜렷이 밝히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법적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의 고정성 판단에 있어 앞서 수차례 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어온 각종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기업에 초래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을 이유로 들어 법정 기준이하로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등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노사합의를 사실상 용인하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범성을 무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식의 무리한 확대해석하고 있음. 그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통상임금’ 부분에서는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신설하되, 통상임금 제외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재직자요건 등의 다툼이 있는 통상임금성 부분을 제외코자하는 의도를 드러냄.
- 금속노련은 정기상여금이 일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

[요구]

-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확보를 위한 단협체결
- ▶ 각 종 제 수당의 통상임금성 확보를 위한 단협 체결

7) 공휴일 및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

- 한국에는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음. 국회가 관공서 공유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규모별·단계적 시행의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국회의 단계별 시행 입법과 별개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면적 적용을 요구하여 정부부분과 민간부분의 공휴일 사용에서 불평등을 빠르게 해소하여야 함.
- 단체협약에서 특단의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 (설날, 어린이날, 추석에만 대체휴일제 적용)
- 조합원의 유급휴가 확대를 위해 관련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요구.

[요구]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단협에 명시 유급휴일로 요구
- ▶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 될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요구

8) 임금피크제 환원, 임금손실 없는 정년보장

- 한국사회가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고 조합원들의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속년수가 높은 조합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직이 어렵고 자녀교육과 주거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년연장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정년 60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진 문제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현장의 요구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실은 정년60세 법제화와 맞물려 임금피크제 도입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신규채용과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임금피크제가 신규고용창출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들어나고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음. 이에 금속노련은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거부하며 기 체결된 임금피크제 또한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함.

[요구]

- ▶ 사측의 임금피크제 요구 거부 및 정년연장 요구
- ▶ 기 체결된 임금피크제의 환원 요구

9) 고용안정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평균 실업률보다 낮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특히, 근속기간도 OECD 평균보다 한참을 못 미쳐 고용불안이 고착화되고 있음.
- 또한 조선업을 위주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로 대기업의 일자리가 2천 개나 줄어드는 등 일자리 감소-고용불안-실업률 정체 현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올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

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타 제조업 및 금융, 서비스 일자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 등 조선업의 구조조정 여파와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업, 금호타이어 매각,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쉐코어 법정관리, 오토리브 인력감축, 페르노키아코리아의 매각 등 구조조정이 고용불안을 가중시켰음.
- 이들 구조조정의 유형을 보면, 인소싱-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사내하청 전환-공장폐쇄로 이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은 유한회사인 다국적 기업의 구조조정(경영공시의무 없음)도 발생 함.
- 따라서 2019년은 정리해고·징계해고·통상해고, 명예퇴직·희망퇴직과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업회생절차가 조합원들의 고용위기가 여전히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요구]

- ▶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정책기획활동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73
가. 성과 및 한계.....	73
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74
2. 노동현안 대응활동.....	75
가. 근로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75
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	81
다. ILO 결사의 자유협약 정부안 대응.....	92
라.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94
마.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 (2019년 하반기).....	96
3.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보고.....	116
가. 제조연대 2019년 공동사업.....	116
나. 국무총리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116
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총선 요구안 준비.....	120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가. 성과 및 한계

○ 노동현안 대응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계속되는 최저임금 법령개정에 따른 금속현장의 목소리를 총연맹에 전달하고 한국노총 제조연대 틀을 활용하여 성명 및 입장을 발표
- 연 2회에 걸친 지역순회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정부안, 실노동시간 단축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등의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교육을 통하여 연맹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설명
-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 노동경제정책의 표류와 노동존중협약의 미이행 등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양상으로 전개. 금속노련의 입장과 의견의 표출은 있었으나 법 개정과정에 적극적 투쟁을 조직하고 대응하지는 못함

○ 사회적 대화

-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로 제조업종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으며, 양대노총 제조연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로 한계를 노정.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이름으로 제안키는 하였으나 경사노위 내 업종별 위원회 건설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사회적대화 공간에 제조업종의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을 구성하고 1년 정도 운영. 자동차 산업 관련 정부기관, 노동계, 경영계, 학계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확인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단계. 향후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해를 더욱 넓히고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활동해야 함

○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공동사업 전개

- 한국노총 산하의 7개 제조산별의 상설적 연대회의를 새롭게 확대 출범 이후 2년차에 접어듦. 2019년 공동임단투 및 포스터 제작사업, 정책요구안 마련 사업, 공동교육사업,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함으로 인하여 제조산업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노동자연대 실현의 초석을 마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설치를 공식제안하고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를 요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성과들을 2020년 마련해 내야 함

-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강령과 규약의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조노동자 공동의 이해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향후 제조산업 노동운동 발전전망을 논의하는 초석이 될 것임
- 다양한 성명과 입장발표를 통하여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은 있었으나 이것을 실천을 담보하는 공동의 실천투쟁으로 만들기 까지는 미흡

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 제조노동운동의 발전

-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2년간의 상설적 연대의 경험을 상실함 없이 가져가기 위하여 한국노총 임원선거 이후 정지되어 있는 제조연대 집행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금속노련으로부터 필요하며, 공동사업을 넘어 공동투쟁을 조직해 내야 함
- 법제도 공간의 사회적대회를 넘어 다양한 틀의 사회적 대회 공간을 마련하고 제조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야 함.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를 강력히 추동하여 한국노총 제조노동자 뿐아니라 민주노총 제조노동자를 포괄하는 양대노총 제조연대와의 공조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조산업협약체 건설로 나아가야 함. 자동차 산업 노사정포럼 역시 한단계 높은 수준의 논의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함

○ 노동현안 대응의 강화

- 근로시간 관련 근기법의 개정이후 지속적인 노동의 유연화 요구와, 처벌 유예 등으로 실근로 시간단축 정책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역시 그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2020년 다양한 형태의 산업구조조정의 예견되어 짐.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넘어 현장을 조직하고 실천적 투쟁을 담보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
- 한편으로 4.15 총선이후 구성될 노동존중실천단 제조업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한 대응이 필요. 제조산업에 관련한 노동입법 요구안을 마련하고 추진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제조산업특별법' 입법활동을 제21대 국회에서 실현시켜 내기 위하여 제조업종위원회를 공세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함

2. 노동현안 대응활동

가. 근로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1) 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 및 조기시행 사례

○ 현장 현황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금속노련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음. 2017년 말 기준으로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비중은 41.8%로 조사되어졌으나 2018년 말 기준으로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비중은 26.5% 정도 인 것으로 파악
- 사업규모.업종 불문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본격화 : 사업장의 사업규모.업종과 관계없이 ‘1주 최대 52시간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논의 중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편법적 도입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 동원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 정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활용 저조 : 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활용도가 낮음.
- 교대제 개편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정비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진 않겠다.’는 평가

○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조기시행 사례

- [사례1] KBI메탈 (300인 미만 사업장)

3조 3교대, 7일 가동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6시간이었음. 2019년 초부터 교대제 개편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논의를 시작함. 교섭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신규채용, 임금보전 등의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어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4조 2교대로의 교대제 개편을 단행함. 노동시간을 1주 56시간에서 42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고, 기존 평균임금의 90% 정도 수준으로 임금보전을 합의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사례2] HL그린파워협력사 (300인 미만 사업장)

주야 맞교대 사업장이며 사내하청 3사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조합원 320명으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음. 종전 1주 평균 노동시간은 68시간 이상이었으나, 도급사인 사측과 교섭을 통해 휴일노동을 없애고 월~금요일 5일 근무, 1일 10시간 및 1주 50시간 수준의 근무형태, 라인증설 및 신규채용을 합의하고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하된 임금을 일정수준 보전시켜 나가고 있음.

2) 전방위적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

○ 50~299인사업장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및계도기간부여

- 2020.1.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됨.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다만, 정부는 법시행과 동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주 처벌을 유예함. 즉, 위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함.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근기법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으로서,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근기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시작함.
-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부터 도입되었던 이른바 “인가 연장근로제도”는 1989년 노동부장관의 인가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차례 법률 개정되면서 유지되어 온 제도임. 현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
- 법률제정 이래 정부의 인가요건인 “특별한 사정”은 “자연재해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변함없이 유지되어 옴. 이번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종전 해석기준과 전혀 다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의 경영상 사유를 추가함.

3) 탄력적근로시간제 경사노위 합의 대응

○ 한국노총 탄력적근로시간제 사회적 합의

① 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② 노동시간 사전확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금보전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함 보직수당, 학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⑤ 시행시기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사노위 합의문 문제점 (금속노련의 입장)

① 기간 확대에 따른 과로사 위험 증가

-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될 경우 3개월간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주단위로 적용하면 연속 13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함. 현재,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4주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이면 과로로 인정받고 있음.

② 불분명한 임금 보전 방안

- 합의문에는 임금 보전을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할증율이나 보전 수당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상황임.

③ 노동자와 합의없는 불규칙한 노동이 가능함.

- 현행 제도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합의해야 도입이 가능함. 그러나 합의문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단위 노동시간을 도입할 수 있게 했으며,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근로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④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무차별적 도입이 우려되는 상황임.

4)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또다시 발표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계획 철회와 법시행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1주일의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법 시행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또한, 정부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점 또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시점을 설정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졸속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협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임금 체계 개편을 협의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처벌 유예도 함께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이유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특혜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사용자에게는 무제한의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주52시간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계와 합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30만 제조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기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했다. 사실상 노동존중·소득주도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노동공약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고 비정규직은 자회사 전환 말고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실업률 등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 악화로 수구야당과 족벌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더니 자본의 대변인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려 위법을 합법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 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제조업은 주야 맞교대, 휴일근로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교대제와 함께 왜곡된 저임금체계가 연장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재사망률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적 야합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자본과 수구 기득권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려고 수백만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또 다시 배신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롯이 자본을 달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러한 정치야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등 앞으로의 총력투쟁에 30만 제조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

1) 최저임금 제도 변화 경과 및 주요내용

○ 산입범위 확대(2018.5월, 최저임금법 개정)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 산입제외 임금

·소정근로시간(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고용노동부령)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명칭에 관계없이 위 3가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고용노동부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사전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1개월 단위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산입범위 개편 요약>

구 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외의 임금	①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미산입
		②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③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④기타 ①,②,③에 준하는 임금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①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
		②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미 산입
		통화로 지급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산입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미산입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 산입범위 변화>

개정 전		개정 후	개정내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다음의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매월 지급될 경우 해당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월최저임금액의 25%(2024년까지 비율 0%로 단계적 축소)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지급 사유와 산정 기간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수당은 원칙적으로 산입범위 포함 (월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만 제외)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삭제 *임시·돌발적으로 지급하여 임금 아님 → 최저임금 미 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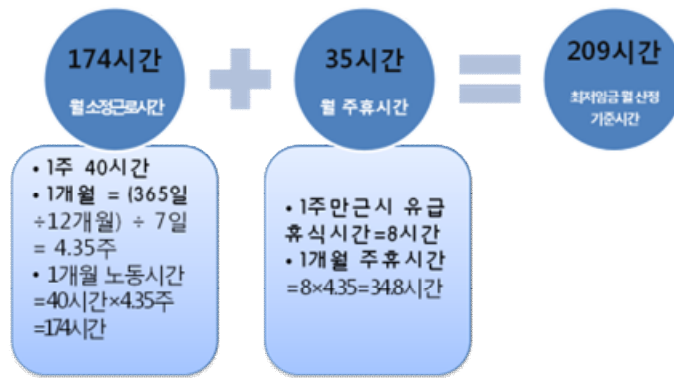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직, 숙직수당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위 3가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임금·수당 분류 변경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명시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월최저임금액의 7%(2024년까지 비율 0%로 단계적 축소)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	-매월 1회 통화로 지급되는 생활보조, 복리후생수당은 산입범위 포함 (월최저임금액의 일정 부분만 제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특례 조항 삽입 (2018.5월, 최저임금법 개정)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변경됨. (최저임금법 제6조의 2, 신설)
-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저임금법 제28조의 제3항 신설)

○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 (2018.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제5조의2 신설)

-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기준 시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차이가 있어, 주휴일과 관련된 시간과 금액은 모두 포함하고, 약정 휴일과 관련된 시간과 금액은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 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고정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약정휴일 제외

- 월급에는 법정 주휴수당 등 법정휴일에 대한 임금 뿐 아니라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
- 이 경우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을 ①이를 구성하는 총 시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②환산된 시급에 약정유급휴일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 (1\text{주 소정근로시간} + 1\text{주 유급처리 시간})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일정 시간의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예: 매주 토요일 8시간이 약정유급휴일)에는 1주의 약정유급휴일시간 수를 1개월의 약정유급휴일 시간 수로 환산해서 곱하여야 함

※월 약정유급휴일 시간 수

$$= 1\text{주 약정유급휴일시간}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부여(2018.12.24. 국무회의)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함.
-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노사 간 합의 등을 통해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 부여

※자율 시정기간 부여대상 :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9.1.1. 이후의 최저임금 위반금액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 근로감독 및 진정사건 : 사업장의 임금체계 미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침(근로기준정책과-8653, 2018.12.27.)에 따라 시정지시

※2019.12.31.까지 접수된 부여대상 사건에 대해 자율시정기간 부여 : 취업규칙 개정 필요시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 필요시 최장 6개월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2019.12.11. 고용노동부 행정기준 시행)

- 경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에 대한 상이한 행정해석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2019.12.11. 새로운 행정해석 발표

- 주요 내용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을 산정함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이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함.

※ 2011년 행정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한 기본임금인 100%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인 50%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 예시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의 문제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293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예)주 40시간 노동자, 상여금 700,000원, 복리후생비 200,000원 기준

2020년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 초과금액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기준 적용시

상여금 - 340,938원 복리후생비 110,234원 최저임금 산입

통상시급 5,531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적용시) 시급 8,297원 (최저임금보다 293원 ↓)

특히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될 경우 지금의 293원은 2,203원까지 삭감 폭이 확대됨

- 문제점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을 적법화시킴

임금구조의 편법적 운용과 장시간 노동 확산 : 수당에 재직자 기준을 두어 최저임금에는 넣고, 통상임금에서는 빼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조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부추김

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의 내용과 문제점

○ 결정체계 변경

- 경과

2019.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정부안 초안 발표

2019.2.13. 비공개 당정협의 : 정부안 확정

2019.2.27. 정부안 발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발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입법발의)

여야간 갈등 장기화와 보수야당의 추가개악 요구로 입법시도 무위

○ 주요 내용

- 결정구조 이원화

	기 능	구 성
구간설정 위원회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9명 (노사·정이 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선출)
결정위 원회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	21명 (△노·사·공익 각 7명으로 구성,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 기업·소상공인 대표 포함, △공익위원은 정부가 3명, 국회가 4명 추천)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변경

현 행	변경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①근로자의 생활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 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고용·경제상황 :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 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 심의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
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 요청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
원회에 제출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
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문제점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임.

제도개편이라는 중요사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생략 : 정부는 1월초 개
편안 초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1개월간의 형식적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의 극히 일부만을
수정한 채 최종안을 확정함.

정부주도성 탈피 및 갈등완화라는 개편취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음 : △공익위원의

역할이 제한적임 △구간설정위원회 심의 역시 정부추천 공익위원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노·사단체는 보다 유리한 상·하한 구간에서 결정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부터 개입할 것인 만큼 오히려 노사간 갈등은 기존보다 장기화될 수 있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ILO 협약에 부합한다고 하나, 최저임금의 상한-하한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으로 현재 제도보다는 ILO협약의 취지에서 멀어지는 것임.

결정기준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 것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역행 :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도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차등적용

-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사용자단체는 꾸준히 업종별·지역별·연령별·기업규모별 차등적용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정치공세가 거세진 상황을 이용해 요구의 수위를 높임.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함. 이로 인해 노사갈등, 노·노갈등, 심지어 사회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각각 차등적용 수준별로 등급이 규정되는 것이고 결국, 더욱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마저 초래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 초기 1988년 1회 2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용 했다가 바로 1989년부터 하나로 통합 후 차등적용은 없었음. 1년만에 통합된 후 차등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차등 시행’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임. 최저임금법 4조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국제적 망신.

전국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임.

○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유급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주 40시간 노동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8/7 \times 365 / 12 = 208.57$)으로 계산됨.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은 수당은 받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40/7 \times 365/12 = 173.8$)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임. 즉, 분모를 줄여 최저임금수준을 임의로 높게 조작하겠다는 것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이중 차별임.

3) 현장 대응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 법 개악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최저임금 산입항목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돌 수 있음. 각종 상여금 및 수당 등 임금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로만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사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최저임금에 새롭게 포함되는 임금명목들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맞추는 방안들을 요구

○ 각종 수당을 보전수당으로 단일화하는 시도 거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사측이 기존의 각종 수당 명목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반을 모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 경우 10년 전 입사자와 신규 입사자간의 임금차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함.
-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숙련의 반영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거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련된 요구

-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임.
-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함.

4)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성명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한국노총 제조연대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투쟁 선언**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폭거에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을 여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의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동존중 국정 기조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이 지급 여력이 충분한 재벌대기업에게만 유익한 법이라는 것을 더하기 빼기 몇 번만 해봐도 알 수 있음에도 “영세 중소기업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호도하지 말라.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궤변도 늘어놓지 말라.

자본주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은 절대 평등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존중해 온 노동법을 무력화시킨 폭거를 저지르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 말라. 노동을 배제하고 철저히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지 말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함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라면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보수언론의 호들갑에 굴복한 것이라 고백하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가계소득은 그래도 조금 올랐다.”라는 통계만 보면서 위안 삼지 마라.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순탄치 않은 길을 헤치고 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뚜벅 뚜벅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지지를 고공행진에 취해 있는 정부·여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곱씹어 보라. 국민적지지 없는 정책 결정은 그림의 떡이고, 국민적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조노동자는 일부 재벌대기업 호들갑에 굴복하는 정권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더는 정부·여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 온 노동자의 역사를 곱씹고 반성하며 그 투쟁의 길을 가 고자 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전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밝힌다.

2018. 05. 29.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5) 최저임금삭감안 제출 사용자 단체 규탄 광고



다. ILO 결사의 자유협약 정부안 대응

○ 기본입장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 노·사·정의 기본적 의무이자, 과제임
- ILO 핵심협약 비준과 준수는 원칙의 문제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님
 -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원칙의 문제이지 노사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공익위원 의견이 ILO 핵심협약의 취지나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에 배치되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
 -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이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정부의 입법적 개입 배제 및 노사자치에 맡기라는 ILO의 입장과 배치
 -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
- 노동인권 보장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편적 원칙인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방향은 ILO기본협약의 취지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내용에 충실하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이에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전에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입법사항들로는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개정, ▲실업자, 해고자 등 노조가입 제한 및 노조임원 자격제한 조항 개정,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조항과 노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조항의 삭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선,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확대, ▲쟁의행위관련 노조법상 형사처벌 제도 및 업무방해죄 적용문제 개선,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해소 등에 대해서 ILO핵심협약의 원칙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 및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정부 입법안 내용

- 실업자·해고자 :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가능,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노동조합 임원자격 : 노조 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결정 가능,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
- 전임자 급여지급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 삭제, 근로자는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규정 신설,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산업·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신설)
- 사업장 점거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 위해,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정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 단협 유효기간 : 현행 2년 상한을 3년 상한으로 확대
- 공무원노조법 : 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가입대상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 교원노조법 : 퇴직교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대학교원 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제기

- 노조법상 전임자의 삭제 :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 전임자) -> 제24조(근로시간면제자 등)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초과요구 처벌규정을 삭제 해 놓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법안’,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및 법개정을 하기로 한 정책협약에 위반
-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후퇴 : 경영계의 요구인 단체협약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쟁의 행위 시 사업장 점거의 금지는 최소한의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협약이라고 밝힌 ILO 핵심협

약과 어떠한 상관도 없음. 결국 정부입법안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킨 개악법안임.

라.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 포럼 운영 개요

- (운영목적)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경쟁력 회복 방안과 미래비전 공동 모색
- (구성) 금속노련, 금속노조,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 (주요 논의방향)
 -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 및 전망
 -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현황
 - 미래 환경변화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 노사정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회의운영)
 - 월 1~2회 개최 *, 산업부 간사 역할
 - 금속노련·금속노조·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회차별 주관기관
 - *이 회의 주재 * 각 기관이 회차별로 회의장 마련
 - 논의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발표 등 준비
- (공동연구) 포럼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산업연·노동연 연구과제 수행)
 - *연구과제 수행비용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협조

○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운영안 합의

[합의문 전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이하 노동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하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이하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정부 (이하 ‘당사자’라고 한다)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동 포럼을 운영하기로 한다.

- 가. 당사자들은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미래 자동차산업 환경변화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 나. 당사자들은 노·사 협력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포럼을 통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간다.
- 다. 필요시 업계·전문가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관련 연구 및 논의·소통을 활성화 해 나간다.
- 라. 포럼은 1년 간 운영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마. 동 운영(안)은 당사자 간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 출범식 개최

- (추진배경)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 (일시/장소) 1.23(水) 14:00~15:30(잠정) / 자동차산업협동조합(잠정)
- (참석, 8명) 산자부 장관, 고용부 장관, 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련 위원장, 산업연구원 원장, 노동연구원 원장
- (진행)

시간		일 정	비고
14:00-14:10	10'	인사 말씀 (언론공개)	장관님 등 참석자
14:10-14:13	3'	참석자 이석 (미정)	
14:13-14:23	10'	자동차산업 동향·전망(미정)	미정 (산업연, 노동연)
14:23-14:33	10'	노사 Best-Practice 소개	미정 (노동계, 산업계)
14:33-15:30	57'	자유토론	포럼 참여자*

마.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 (2019년 하반기)

<http://www.metall.org>

2019년 하반기 지역순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 하반기 교육 일정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11/6~8	오션스위즈	금속노련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11/18~20	국제청소년센터	금속노련
금속노련 홍보담당자교육	11/20~21	미정	금속노련
금속노련 신입대표자교육(가안)	11월 하순경	미정	금속노련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	12/11~13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연대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정부안)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9.10.1.)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 정부는 오늘(10. 1.)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실업자·해고자

-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가능
-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임원자격

- 노조 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결정 가능
-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전임자 급여지급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정의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 삭제
- 근로자는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사업장 점거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 위해,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 현행 2년 상한을 3년 상한으로 확대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교섭창구단일화제도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산업·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신설)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 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 가입대상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교원노조법

- 퇴직교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 대학교원 교원노조 설립·가입 허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정부입법안 문제점



노조법상 전임자 삭제?

-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 전임자) > 제24조 (근로시간면제자 등)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초과요구 처벌규정을 삭제 해 놓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앞뒤가 모순되는 법안
-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및 법개정을 하기로 한 정책협약에 위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후퇴

- 경영계의 요구인 단체협약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와 금지는 최소한의 노동 인권에 대한 기본 협약이라고 밝힌 ILO 핵심협약과 어떠한 상관도 없음.
- 결국 정부입법안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킨 개악법안임.

타임오프 제도 개선 한국노총의 로드맵?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조문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2주 이내 단위

- 취업규칙(이)에 정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

3월 이내 단위

-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

노사 서면합의 당사자

사용자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노사 서면합의 사항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기준	단위	주	노동시간	주당평균	합의연장	연장포함
취업규칙	2주	1주	48 (+8)	40	12	60
		1주	32 (-8)		12	44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3개월	6주	52 (+12)	40	12	64
		6주	28 (-12)		12	40

국민일보

2019년 02월 20일 수요일 001면 종합

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 확대



최종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노동·경제위원회는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 대표단이 서울 종로구 경시노회 브리핑실에서 합의를 발표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동

탄력적근로시간제 경사노위 합의문



탄력적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대응에 합의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 도입으로 주회되는 노동자의 근로를 방지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 31시간 한도 초과시간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아울러,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회의 제정할지 결정 하되, 도입 시, 이 경우,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제2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할당하여야 한다.

5. 또한, 서명할지 시 사용자의 제정할지 결정 하되, 제정 시, 이 경우,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제2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할당하여야 한다.

6.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7. 또한, 근로자대표회의 제정할지 결정 하되, 제정 시, 이 경우,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제2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할당하여야 한다.

8. 또한, 근로자대표회의 제정할지 결정 하되, 제정 시, 이 경우,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제2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할당하여야 한다.

9. 또한, 근로자대표회의 제정할지 결정 하되, 제정 시, 이 경우,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제2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할당하여야 한다.

10. 또한, 근로자대표회의 제정할지 결정 하되, 제정 시, 이 경우,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회의 제정할지 결정, 제2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할당하여야 한다.

2019. 2. 19.

노사정총·주·최대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사정 합의(2019.2.19)



① 합의문(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 도입요건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 기간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에 1주간의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일에 1일 8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제한 특정 주의 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최대 주당 60시간까지 허용)	● 도입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회의 서명동의 ● 기간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제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최대 주당 64시간까지 허용)	● 도입요건 화동 ● 기간 3월을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제한 화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사정 합의(2019.2.19)



② 합의문(노동시간 사전확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개월이내 단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 사전확정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사전확정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 사용자는 최소 2주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 단, 기계고장 등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 노사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사정 합의(2019.2.19)



④ 합의문(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개월이내 단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 연속휴식 없음.	■ 연속휴식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함. 집중근로에 따른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현재 결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과로사방지법 제정등을 논의하고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사정 합의(2019.2.19)



③ 합의문(임금보전)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개월이내 단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 임금보전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도록 규정 (처벌규정 없음)	☐ 임금보전 임금보전장치로서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방안(보전수당, 할증 등)과 절차(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미이행에 대한 금전적 징계이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함. 단, 노사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질차행위에 있어 예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사정 합의(2019.2.19)



⑤ 합의문(시행시기)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시행시기는 1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하여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시 300인 이상은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부터는 아래와 같이 2020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와 같음.

300인 이상 사업장

2018.7.1~

50~299인 사업장

2020.1.1~

5~49인 사업장

2021.7.1~

경사노위 합의문 문제점 - 입법과정에서 변경가능



기간 확대에 따른 과로사 위험 증가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될 경우 3개월간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주단위로 적용하면 연속 13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함.
현재,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4주연속 64시간, 12주연속 60시간이면 과로로 인정받고 있음.

불분명한 임금 보전 방안

합의문에는 임금 보전을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할증율이나 보전 수당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상황임.

노동자와 합의없는 불규칙한 노동이 가능함.

현행 제도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합의해야 도입이 가능함.
그러나 합의문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단위 노동시간을 도입할 수 있게 했으며, 전제지변, 업무량 급증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근로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무차별적 도입이 우려되는 상황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



[사례 2] KBI메탈 (300인 미만 사업장)

- 3조 3교대, 7일 가동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6시간이었음. 2019년 초부터 교대제 개편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논의를 시작함. 교섭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신규채용, 임금보전의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어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4조 2교대로의 교대제 개편 시행, 근로시간을 56시간에서 42시간 수준으로 단축, 기존 평균임금의 90% 정도 수준으로 임금보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잠정합의 함.

[사례 3] HL그린파워협력사 (300인 미만 사업장)

- 주야 맞교대의 사업장이며 사내하청 3사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조합원 320명으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동조합.
- 종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8시간 이상이었으나, 도급사 사측과 교섭을 통해 휴일 노동없이 월~금요일 5일 근무, 1일 10시간 및 1주 50시간 수준의 근무형태를 합의한 후 라인증설과 신규채용을 진행중임.
- 임금교섭을 통하여 일정수준 임금보전을 실현하고 내년 정도 과거 평균임금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측됨.



금속노련 실근로시간 단축 실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금속노련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음. 2017년 말 기준으로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비중은 41.8%로 조사되었으나 2018년 말 기준으로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비중은 26.5% 정도 인 것으로 파악

[사례 1] 영신정공 (300인 이상 사업장)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야맞교대 사업장이었음. 2014년 노사공동위원회로 주간연속2교대 TF 구성. 2016년 9월까지 TF활동을 통하여 현장표준화 도입과 MODAPTS기법을 적용하여 현장생산성 분석. 이 과정에서 생산성의 13.8%정도 상승효과를 확인하고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의 전환을 결정.
- 근무형태 변경으로 근로시간은 15.8% 정도 줄어들었으나 13.85%의 생산량 증가로 생산실적이 줄어들지 않음. 주야맞교대 근무형태의 임금을 100% 보전 받게 되어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 등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었음.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1주 7일 명시 및 주52시간

- 시행시기 : 규모별 구분하여 3단계
 - ✓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7.1
 - ✓ 299-50인 2020.1.1
 - ✓ 49-5인 2021.7.1
 -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7.1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특근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특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공포후 즉시 시행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30인 미만)

- 2021. 7. 1 ~ 2022. 12. 31
-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까지 허용
- 부칙 : 2022. 12. 31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적용 논의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을 전면 도입(유급휴일화)

- ✓ 300인 이상 2020.1.1
- ✓ 299-50인 2021.1.1
- ✓ 49-5인 2022.1.1
- ✓부대의견 : 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

❖특례업종 26개 (453만명)→ 21개 업종 341만명이 폐지, 5개업종(112만명) 축소

- 존치업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운수업 중 노선버스 제외
- 존치 5개 업종은 근로일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11시간 보장 (2018. 9. 1 시행)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17.3% 그쳐 ... "정부, 중소기업 지원 집중해야"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이 내년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연근로제 확대나 주 52시간 시행유예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면>

기업 10곳 중 9곳 "준비 완료 또는 준비 중"

고용노동부가 50~299명 기업 1천300곳을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주 52시간 시행준비 차원에서 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됐다.

노동시간단축이 우리 사회에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며 "노동부는 근무체계 개편과 신규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계가 주장하는 유연근로제 대폭 확대나 일부 여당 의원까지 동조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유예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내년 시행 준비 충분'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39.9%는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유연근로 요건 완화"를, 37.1%



KEF
경총

www.kefplaza.com

홍 보 팀
3270-7314
3270-7355

報道資料 **경총, 유연근무제 개선 정부 건의**

-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후 보완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산업 현장 어려움 지속
-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운용 환경을 조성해야
 - 유연근무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입법 시까지 정부가 시행 규칙, 고시 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 줘야 함.
 - 근로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3월 14일 (수요일)

2014년 3월 14일 수요일

자유한국당 속내는?

유연근무제 확대로 '껍데기뿐인 주 52시간' 노리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 요구
노동계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수단" 반발

여당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연평균 근로 12시간 포함) 실현세를 접시했다. 주 52시간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재계가 요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개정안 부칙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주력했던 재계가 노동시간단축 1년 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여당은 재계 요구에 힘입어 "유연근무제 확대 없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 유연화하지 않으면 별 유연화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회한한 논리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태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재량근로제인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고용노동부의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 만나 "경제자유도 반영으로 내거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정교를 외면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대부분 제 조합에 해당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직이나 IT산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협상이 된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상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수용될 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월28일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보면 임이자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단계별 시행 등을 실행하면서 "3당 간사회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새 기저로 (총력)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에 유지하되 주 52시간 정착시점에서 재논의하라고까지 얘기가 왔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노동시간단축 시행 1년 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면서 선택적 근로



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 정책일관성 유지해 달라”

여야 5당에 “중소기업 시행유예 논의 중단” 건의서 전달

한국노총이 여야 5당에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괄 상한제가 시행된다. 시행유예 같은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방안을 논의하지 말라는 요구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일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여야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제계와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 시행유예와 제도 기간 부여·유연근무제 도입요건 완화·불발상

황시 연장노동 예외인정 확대는 현장에서 노동 시간단축 정책 포기선언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불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판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IT기업인 A사는 노조가 있지만 과반수가 초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탄핵적 근로시간제 서명합의를 했다.

탄핵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

건도 갖추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A사는 일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형성격으로 탄핵근로제를 바꾸집이식으로 도입한 사례”라며 “이런 판법활동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권한·선출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정부지원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노동시간단축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영 기자

8 매일노동뉴스



2019 임금피크제 대응 사례



현대엘리베이터 임금피크제 폐지

- 58세 부터 10%씩 임금 감소하는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X, 호봉승급 X)
- 2019년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합의.

SK하이닉스 임금피크제 감소율 축소 합의

- 58세 부터 10%씩 임금 감소하는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X, 호봉승급 X)
- 2019년 단체교섭에서 58세 부터 5%씩 임금 감소 합의.

LG디스플레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축소 합의

- 만 55세 부터 2년간 통결 후 3년간 10%씩 임금 감소하는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O, 호봉승급 X)
- 2019년 단체교섭에서 58세 부터 10%씩 감소하는 임금피크제 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

<개정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3. 가족돌봄휴가 신설
4.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 주요내용('19.10.1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휴가기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최초 3일 유급)	유급 10일
청구기간	출산한 날부터 30일	출산한 날부터 90일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주요내용('19.10.1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단축시간	日 2~5시간(주 10~25시간)	日 1~5시간(주 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日 1시간 단축분, 총 1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수준 유지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3. 가족돌봄휴가 신설 주요내용(20.1.1 시행)

1) 가족돌봄휴가 신설(고령법 제22조의2제2항)

-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현행	개정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

2) 가족의 범위 확대(고령법 제22조의2제1항)

- 주요내용: 돌봄 대상 현행 '가족'의 범위(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4.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 주요내용(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 1. 1, 30인~299인 사업장 '21. 1. 1, 30인 미만 사업장 '22. 1. 1 시행)

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고령법 제22조의3)

-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신청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거부 사유) 다만,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
- (시간·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1년 + 2년 연장 가능(학업사유는 연장불가)

2)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고령법 제22조의3제5항, 제6항 및 제22조의4)

- 주요내용: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금지(근로자 청구 시 12시간 이내 가능)
- 단축 후 동일 직무 또는 유사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3.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보고

가. 제조연대 2019년 공동사업

○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계획	담당
교육사업	▶ 제조연대 상반기 교육 [경영분석교육, 교섭위원교육(2회), 선전선동교육, 노동법률교육] ▶ 제조연대 하반기 교육(공동기획·공동집행) [신임대표자 교육 + ∞]	금속노련
선전·홍보사업	▶ 2019년도 임단투지침 표지 ▶ 2019년도 임단투지침 포스터	화학노련
정책·연구사업	▶ 제조연대 공동임단투 지침 제작 및 발간 - 산별별 임금인상요구율(액) 발표 ▶ 모범단체협약(안) 발간	섬유·유통노련
워크숍	▶ 워크숍 - 사무처 임간부 워크숍(6월 27일~28일) - 대표자 및 집행위원회 + ∞ (11월 21일~22일)	집행위원회 식품산업노련
기타사업	▶ 지역제조연대 - 지역본부 의장 전체회의/지역제조연대 권역별 설치 ▶ 통일사업(한국노총 통일사업) ▶ 제조산별위원회(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 ▶ 노동개악 저지 및 제도개선 공동투쟁 ▶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나. 국무총리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 한국노총 제조연대-산업통상자원부 노정협의체 구성 제안

○ 추진 배경

- (현황) '16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7.1%를 차지하고 OECD 29 개국 중 7번째임. 서비스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경제의 고용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및 원·하청 불공정 거래) 노동소득분배율은 '16년 63.3%로 OECD 28 개국 중 21번째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으며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인한 포용국가, 노동존중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구조조정) 한계기업이 '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16년에는 전체 기업의 14.2%에 이르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12.4% 수준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 (인력부족 및 신기술 도입) 설비 자동화, 해외이전, 최저임금 영향 등으로 단순 생산직 및 기술직 인력감소 심화 및 4차 산업혁명 및 ICT 등 일방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현장갈등 증폭.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설치 필요성)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편중된 위원회 구성과 일자리 위원회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존중사회건설에 한계가 있음. 정부와 산업별 위주의 산업정책의 운영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음.

○ 주요 내용 : '한국노총 제조연대-산업통상자원부 노정협약체' 구성

- 한국노총 제조연대 7개 연합단체(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대표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구성
- 경사노위에 제안한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제조산업위원회의 구성이 담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경제주체의 한축으로써 산업별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대화의 마중물 역할
- 노정협약체 산하에 한국노총 제조연대 7개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서간의 업종별 실무협약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업종별 현안 등을 논의
- ※ 예시 : 섬유·유통노련-섬유세라믹/금속노련-자동차 항공과 업종별 실무협약체 구성
- 4차 산업혁명, ICT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0만 제조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포용국가, 노동존중사회 건설에 적극

○ 기대효과

- 노정협약체 논의⇒상시적 구조조정 완화 및 4차 산업혁명, ICT 등 기술혁신 변화대응⇒고용 안정 및 기술혁신 부응⇒고부가가치 산업 및 공정거래로 체질전환 등 연착륙⇒신규인력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축
- ※ ‘14년 기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제조업 평균 취업계수(2.7%), 취업유발계수(9.3%)
- 노동계와 관련 부처의 협의회를 통한 산업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

1) 2019년 제조연대 상반기 워크숍

○ 목적

-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의 위상을 격상하기 위하여 제조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함.
-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의 기치아래 출범한 3기 집행부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함.
- 제조연대에 가입한 산별노(조)련의 단결과 화합을 지속하기 위함.

○ 진행방향

- 제조연대 워크숍의 성격에 맞게 단결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려함.
-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제조연대(제조업)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강의를 청취하고 볼링, 탁구대회를 개최하여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7월 18일(목) ~ 19일(금)
- 장 소 :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 참석대상 : 각 산별 임원 및 사무처 간부

○ 일정 표

날짜	시간	순서	내용	비고
첫째 날 7월 18일 (목)	12:00~13:30	점심식사	▷ 산별 개별 식사	
	13:30~14:00	집결 및 접수		강의실 앞
	14:00~15:50	특강	▷ “제조연대가 가야할 길” 또는 “제조업의 미래_4차 산업혁명”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사회: 집 행 위 원 장
	15:50~16:00	사진촬영 및 이동	▷ 워크숍 참석자 전원 사진촬영 - 강의실 또는 정문 앞_날씨에 따 라 조정 ▷ 경기장으로 이동	
	16:00~18:00	명랑운동회	▷ 제1경기 : 볼링 -7팀 참가(2명 구성), 점수제 단일 승부 ▷ 제2경기 : 탁구 -4팀 참가(2명 구성_복식), 4강-3,4 위-결승	진행 : 대변인 심판 : 집 행 위 원 4명
	18:00~18:30	이동 및 정리	▷ 집행위원 정리 -숙소 이동 및 샤워 후 로비로 집 결	
	18:30~	저녁식사	▷ 제조연대 단결의 밤	

날짜	시간	순서	내용	비고
둘째 날 7월 19일 (금)	07:30~09:00	기상 및朝食	▷ 참석자들 개별 체크아웃	
	09:00~11:30	트레킹	▷ 인근 산책(산행) -비발디파크 곤돌라	전원참석
	11:30~	중식	▷ 중식 후 해산	

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총선 요구안 준비

○ 제조연대 정책담당자 TF를 통하여 초안 마련

의제명	: 근로기준법 제24조 개정(정리해고 요건 강화)
-----	-----------------------------

제안배경	○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0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7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천명 증가했다.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섬유제품’, ‘기계장비’, ‘전자·통신’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섬유와 의복, 모피, 고무, 플라스틱은 수출부진과 해외 설비 이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둔화되면서 ’17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통계청도 지난 9월 11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45만2천명(1.7%) 증가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40대를 제외한 고용률은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과 추가사업 발굴 등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방침이면서도 <u>상시적 구조조정과 구조전환이 불가피한 상황</u>이라고 밝혔다. 이에 <u>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완화</u>하겠다는 것이다. ○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아래의 요건에 따라, 그 소속 노동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 11339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60193 판결)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즉,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

○ 또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도 판례는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아 50일 전의 통보 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유효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제안내용

가.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엄격히 제한

→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를 명확하기 위해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현존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나. 제1항 후문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삭제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어느 쪽이 정리해고의 주체가 되는지 학설이 갈리고 있음. 다수설은 양도인 또는 피인수·합병인에게 정리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함. 즉, 경영악화의 우려에 직면한 기업이기 때문임. 법률의 다양한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1항 후문을 삭제하고자 함.

다. 제3항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를 구체화

→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 판례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해 “5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노동조합(근로자대표)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서면통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함.

1. 해고회피 방법/2. 정리해고의 제안 이유/3. 해고할 근로자 수/4. 해고자 선정의 방법/5.구체적인 해고시행방법/6. 법정 외 정리해고 관련 수당의 계산방법 등

라.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벌칙조항 삽입

→ 신고는 정리해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없음. 따라서 부칙 제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제24조 제4항 삽입.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을 두도록 함.

신·구 법률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u>긴박한</u>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u>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u>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u>50일 전까지</u>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u>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현존하는 긴박한</u>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후문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u>50일 전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노동조합(근로자대표)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서면통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u>협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u> 1. <u>해고회피 방법</u> 2. <u>정리해고의 제안 이유</u> 3. <u>해고할 근로자 수</u> 4. <u>해고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u> 5. <u>구체적인 해고시행방법</u>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자 2. (생략)	6. 법정 외 정리해고 관련 수당의 계산방법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자 2. (현행과 같음)
--	---

의제명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	-----------------------------

제안배경	*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확대되었음. *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7% 초과분이 산입되어 계산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 수당 등이 100%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될 예정임.
------	---

* 더불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였음.

제안내용

*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성, 일률성,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고정성 여부를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직자 규정(일할규정이 없는 경우)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경우 상여금이 미포함 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신·구 법률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② (생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신설>	④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제명	:	외투기업 먹튀 규제 강화
-----	---	---------------

제안배경	
------	--

-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자본의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외투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없는 상황임.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일부 투자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하고 있음.
- * 일부 외투 기업의 경우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경우처럼 기술 유출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시키거나, 옥시 등과 같은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철수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공장 매각 등을 진행하는 등 국내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음.
- * 또한,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과도한 배당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본 유출이 심각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은 없는 상태임.
- *이에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자본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감독을 통해 국내기술 유출 방지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내용	
------	--

- * 기술유출, 적대적 합병 등을 막기위한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를 추가함.
- * 외국인투자자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분별한 폐업을 막기위한 심사 절차의 강화

신·구 법률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생략)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 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 한받지 아니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u>4. 단기투자이익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 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기업의 성 장잠재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u>
	<u>5.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의 경 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u>
	<u>6. 기술유출, 생산물량 축소, 연구개발기 능 해외 이전, 공장폐쇄, 대규모 정리해 고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저해하 고 노동기본권 실현에 심각한 지장을 초 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 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	

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의2 (외국인투자 지원 제한 및 환수) <신 설>	<u>제9조의2 (외국인투자 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 <u>1.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질서,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u> <u>2.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u> <u>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u>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9조2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u> <u>8. 제21조 제7항의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u>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u>이행에 관한 사항</u> ③·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u><신 설></u> (생략)	3. ----- ----- <u>이행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1의2.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6. <u>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자</u>

의제명	:	민간부분 비정규직 ZERO 추진
------------	----------	--------------------------

제안배경	
-------------	--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전격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함.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84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8년 8월 59.3%로 나타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자회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따라 비정규직 감소, 임금격차 해소, 저임금계층 감소와 조합원수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에 따르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87만명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38.5%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6.1%인데, 1000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으며,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에서는 45.3%를 나타내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제안내용	
-------------	--

*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축소하는 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ZERO 정책이 필요함.

의제명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	---	--------------

제안배경

- 한국경제의 재벌중심 수출지향적 성장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종재를 생산하는 소수의 대기업=원청기업, 중간재를 생산하여 조달하는 중소기업=하청기업이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됨.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별로 확산됨
- 수직적 하도급구조와 교섭력 우위에 기초한 생산비용 절감압력이 하위 도급업체에게 그대로 전가. 이로써 하청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위축시키고, 이들이 외주화, 사내도급, 재하청 등과 같은 저비용 전략에 의존함에 따라 하도급 하위단계로 내려갈수록 임금 등 고용조건 악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별 대.중소기업간 경영실적 및 하도급구조 내 고용관계별 임금격차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대기업 원청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및 노동시장의 계층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기업 사이의 수직적인 하도급 관계와 이에 따른 시장 교섭력 격차로 인해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가중되어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술개발 투자유인을 저하시키며 지불능력의 감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지격차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 등 노동조건 및 복지의 격차 확대는 대기업원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 외주화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고용분화와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직적.종속적 하도급구조는 사회적양극화를 구조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제안내용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방지 : 집단교섭 허용을 통한 하청업체의 교섭력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납품단가 결정 및 조정,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하도급 대금 결제 방식의 개선 등 - 공정거래 위반 업체 제재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상시적 감시, 감독 체제 구축 - 산업 업종별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또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	
신·구 법률 대조표	
현행	개정안

○ 4.15 총선 요구안 미제출, 한국노총 제조연대 정책요구로 향후 반영

- 한국노총 제조연대 4.15 총선 요구안 초안 논의 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4.15 총선요구안을 발표코자 하였으나, 한국노총 임원선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 못한채 표류 함으로 인하여 요구안 제출은 불발로 끝나고 추후 제조연대의 정책요구로 반영해 나가기로 함.

조사통제활동

1. 2019년 임금교섭 결과.....	135
가. 2019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135
나. 2019년 임금교섭 결과	136
2. 2020년 임단투 준비활동 (실태조사).....	136
가. 개요.....	136
나. 조사 결과.....	137
3. 2020년 임단투 지침 및 포스터 발간.....	149
가. 2020 임단투 지침.....	149
나. 2020 임단투 포스터.....	153
4. 현안 실태조사.....	154
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154
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사업장 피해 기초조사.....	158
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실태 및 고용상황 점검 실태조사.....	160

평가 및 개선방향

조사통계활동은 금속노련 산하 노동조합 현장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상황,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객관적 현황파악을 통해 연맹 활동의 과학적 논리를 제 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 조직을 비롯한 모든 부서 활동의 기초가 된다.

2019년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은 2019년 임단투 결과 및 임금을 비롯한 현장 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2020년 임단투 지원을 위한 실태조 사 및 분석 · 임단투지침서 발간 · 지침교육 등 가맹노조의 임단투 지원을 위 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를 한국노 총과 함께 실시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2020년 최저임금심의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영향을 주 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어느정도 산업구조조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유예조 치가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조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금속연맹의 조사통계활동도 구체적 사안별로의 조사사업이 일상화 될 필요가 있으며, 분석능력의 키워내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이 그 대표성을 가질수 있는지의 문제가 상 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련의 조사통계활동에 대표성을 부여 하기 위해서는 단위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히 응답하려는 노력이 뒷받 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난관의 해결을 위해서 현장과 중앙의 깊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1. 2019년 임금교섭 결과

가. 2019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 임금인상요구율

생계비 충족률 90%	기본급대비 8.3% (168,050원)
생활물가의 인상으로 임금인상의 욕구와 기대심리,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9년도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는 표준생계비의 90%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8.3%(168,05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 임금인상안 요약

2019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금속노동자 평균가구원수 3.01인 생계비		4,661,040원
2019년 물가상승률(1.4%)을 반영한 생계비		4,726,295원
근로소득비중(88%)을 반영한 생계비 (목표생계비)		4,159,140원
금속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2019 임단투지침 실태조사)	기본급+수당+상여일할	3,455,470원
	임금총액 (초과급여포함)	4,206,248원
목표생계비와 금속조합원 고정급여 차액	임금차액 (목표임금)	703,670원
	충족 요구율	20.4%
2019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인상 요구율	8.3%
	기본급 인상 요구액	168,050원
	생계비 충족율	90%

나. 2019년 임금교섭 결과

○ 2019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율

- 가맹노조 본조기준 496개 노조 중 98개 노조 응답 (응답율 19.76%)
-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은 6.84%이며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은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기간은 3~4개월이 응답의 41%로 가장 높았음.

임금교섭기간	제출노조	응답률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	2019년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
1개월 미만	5개	5.26%		
1~2개월	27개	28.42%	6.84%	3.29%
3~4개월	39개	41.05%		
5~6개월	17개	17.89%		
6개월 이상	7개	7.37%		
합계	95개	100%		

2. 2020년 임단투 준비활동 (실태조사)

가. 개요

1) 조사 목적

- 2020년 임·단투에 임하는 단위노조의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연맹의 정책근거로 삼기 위해 실시한 조사
- 본 조사는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파악 및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금속연맹은 본 조사를 토대로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 및 임·단투 지침을 결정하는 기초로 활용

2) 조사 기간

- 2019년 12월 19일 ~ 2020년 1월 17일

3) 조사 방식 및 대상

- 금속노련 산하 496개(본조, 2019년 12월 기준)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였고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으로 하였다.

4) 수거율

- 총 분석대상 477개 중 수거된 설문지 98부
- 조직수 대비 19.76%의 수거율

나. 조사 결과

- 총 분석대상 496개 조직 중 수거된 설문지 98부(조합대비 수거율 19.76%)의 유효설문지 분석

1) 설문응답노조 유형별 분류

가) 설문응답현황 -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는 충북지역본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금속노련 전체조직수 대비 19.76%의 수거율을 기록해 향후 임단투 지침의 실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본부별 제출현황				
지역	제출노조	응답률	지역전체노조	제출/지역
서울	2개	2.04%	13개	15.38%
경기	14개	14.29%	59개	23.73%
인천	7개	7.14%	28개	25.00%
안산시흥	7개	7.14%	42개	16.67%
대전	1개	1.02%	5개	20.00%
충남	12개	12.24%	46개	26.09%
충북	15개	15.31%	40개	37.50%
부산	9개	9.18%	32개	28.13%
경남	11개	11.22%	51개	21.57%

울산경주	2개	2.04%	19개	10.53%
대구경북	7개	7.14%	60개	11.67%
구미	4개	4.08%	15개	26.67%
포항	4개	4.08%	37개	10.81%
광주전남	0개	0.00%	33개	0.00%
전북	2개	2.04%	11개	18.18%
강원	1개	1.02%	5개	20.00%
합계	98개	100.00%	496개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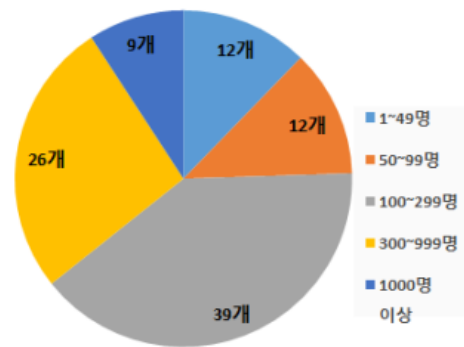
※연도별 설문지 수거 추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거량	152개	150개	112개	122개	125개	98개

나) 설문응답현황 - 조합규모별

전체 가맹 노조(496개 본조기준) 중 설문에 응한 조합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조합원 규모 100~999명의 노조가 응답의 66.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규모	제출 노조	응답률	전체 노조	제출/ 전체
1~49명	12개	12.24%	147개	8.16%
50~99명	12개	12.24%	123개	9.76%
100~299명	39개	39.80%	155개	25.16%
300~999명	26개	26.53%	56개	46.43%
1000명 이상	9개	9.18%	15개	60.00%
합계	98개	100%	496개	19.76%



2) 임금 등 노동조건 현황

가) 노동시간 및 근속년수, 연령, 가족규모 현황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음에도 뚜렷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으며, 이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유예의 부작용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평균 근속년수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은 신규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조합원 평균 가족규모는 2.89인으로 나타났다.

구분	주당평균 실노동시간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		평균 가족규모
		남	녀	남	녀	
2019년결과	50.4시간	15.2년	13.0년	42.6세	43.5세	2.89인
2018년결과	50.4시간	14.1년	12.1년	42.3세	43.1세	3.01인
2017년결과	51.9시간	14.1년	12.2년	42.2세	42.6세	2.95인
2016년결과	49.3시간	13.8년	12.6년	41.6세	43.3세	2.89인
2015년결과	52.4시간	13.6년	12.2년	43.3세	43.1세	2.97인
2014년결과	53.0시간	13.2년	11.5년	41.0세	39.5세	3.15인

나) 금속노련 조합원 임금실태 (2019년 12월 현재, 단위: 원)

설문에 응답한 98개의 노조 중 94개의 노조가 임금 현황에 답했으며, 기본급은 2,209,281원, 고정급여는 3,622,351원, 변동급은 632,998원으로 평균 임금 총액은 4,255,348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A)	고정 및 기타 수당 (B)	상여월할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2,209,281	327,875	1,085,195	3,622,351	632,998	4,255,348

※ 소수점아래의 금액이 보여지지 않는 관계로 A+B+C의 합과 A+B+C+D의 합은 단순 합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 금속노련 지역별 임금실태 (2019년 12월 현재, 단위: 원)

지역	응답수	기본급 (A)	수당 (B)	상여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94	2,209,281	327,875	1,085,195	3,622,351	632,998	4,255,348
서울	2	2,225,000	126,000	875,000	3,226,000	1,125,000	4,351,000
경기	14	2,559,649	321,239	901,770	3,782,658	495,983	4,278,641
안산시흥	6	2,078,525	458,102	1,234,116	3,770,743	575,538	4,346,281
인천	6	2,200,250	292,789	862,789	3,355,828	479,382	3,835,210
대전	1	1,709,711	191,009	1,075,515	2,976,235	838,455	3,814,690
충남	12	2,194,484	138,181	953,795	3,286,459	600,954	3,887,414
충북	14	2,130,516	355,505	1,174,786	3,660,807	654,804	4,315,611
부산	9	2,198,514	452,308	1,015,055	3,665,877	470,372	4,136,249
경남	11	2,235,571	364,498	1,280,237	3,880,305	618,065	4,498,371
울산경주	2	2,337,370	209,387	1,632,072	4,178,828	778,653	4,957,481
대구경북	7	2,206,848	437,700	933,260	3,577,808	775,407	4,353,215
구미	3	2,062,583	153,608	758,706	2,974,897	591,651	3,566,548
포항	4	1,770,018	556,908	1,557,142	3,884,067	559,525	4,443,592
전북	2	2,178,697	198,401	1,706,885	4,083,983	833,314	4,917,296
강원	1	1,718,161	91,126	1,150,522	2,959,809	699,988	3,659,797

라) 금속노련 규모별 임금실태 (2019년 12월 현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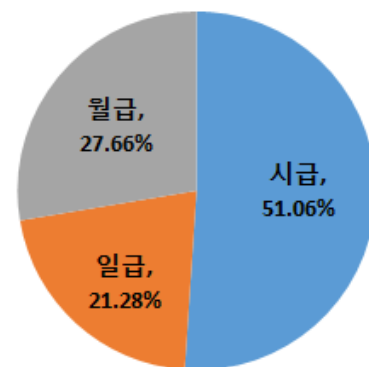
조합 규모별 임금 수준을 보면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기본급과 고정급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와 고정임금은 일정한 형태로 정의 비례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	응답수	기본급 (A)	고정수당 (B)	상여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94	2,209,281	327,875	1,085,195	3,622,351	632,998	4,255,348
1~49명	11	2,092,494	205,488	914,304	3,212,287	667,717	3,880,004
50~99명	11	2,078,445	341,008	1,090,071	3,509,525	765,456	4,274,980
100~299명	39	2,160,797	329,610	1,054,863	3,545,270	508,336	4,053,606
300~999명	25	2,314,631	368,372	1,101,232	3,784,235	735,467	4,519,702
1000명 이상	8	2,456,906	343,083	1,411,216	4,211,206	395,079	4,606,285

마) 임금지급형태

금속노련 가맹 사업장은 임금형태에 관련하여 시급제가 가장 많은 응답(51.06%)을 보였으며, 예년에 비해서 월급제 사업장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시급	48개	51.06%
일급	20개	21.28%
월급	26개	27.66%
합계	94개	100%



바) 2019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율 (기본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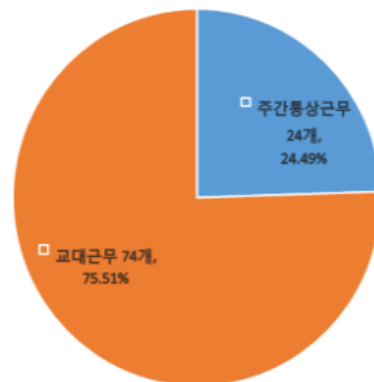
금속노련 가맹노조의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은 6.84%이며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은 3.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교섭기간은 3~4개월이 응답의 41%로 가장 높았다.

임금교섭기간	제출노조	응답률
1개월 미만	5개	5.26%
1~2개월	27개	28.42%
3~4개월	39개	41.05%
5~6개월	17개	17.89%
6개월 이상	7개	7.37%
합계	95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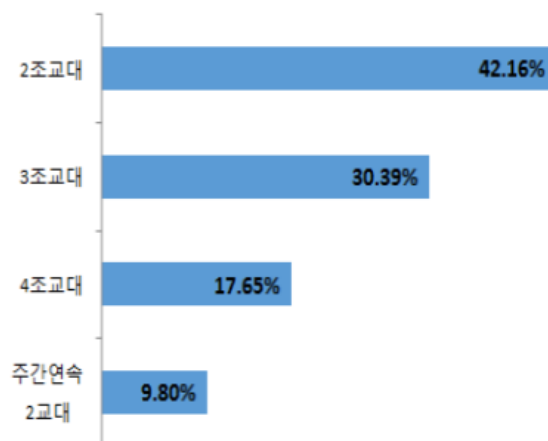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	2019년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
6.84%	3.29%

사) 근무 형태

교대 근무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98개의 사업장에서 답변했고, 주간통상근무만 한다고 응답한 곳이 24개로 24.49%였다. 반면 조합원이 일부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노조가 74개로 75.51%였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조2교대	43개	42.16%
3조2교대	13개	12.75%
3조3교대	18개	17.65%
4조2교대	7개	6.86%
4조3교대	11개	10.78%
주간연속2교대	10개	9.80%
합계	102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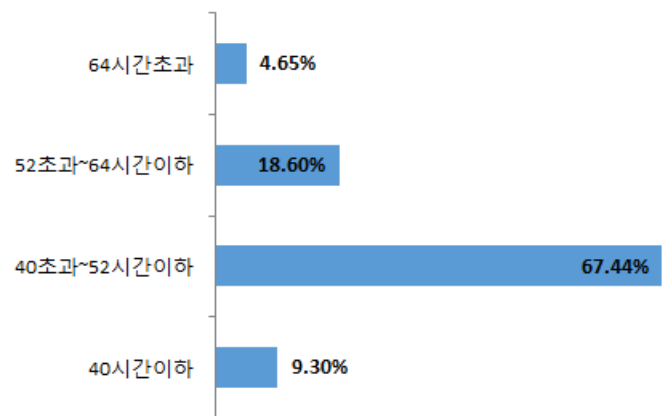


조합원의 교대근무 실태를 보면, 2조2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43개(42.16%)로 가장 높았으며, 3조 3교대가 18개(17.65%), 3조 2교대가 13개(12.75%), 4조 3교대가 11개(10.78%), 주간연속 2교대제가 10개(9.80%), 4조2교대가 7개(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 주당평균실노동시간

주당평균 실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본 결과 52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노동사업장 비율이 2018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42%, 2019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26%, 2020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23%로 나타났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40시간이하	8개	9.30%
40초과~52시간이하	58개	67.44%
52초과~64시간이하	16개	18.60%
64시간초과	4개	4.65%
합계	86개	100%



자) 주당실노동시간변화와 임금변동

최근 3년간 1주를 기준으로 실노동시간의 변화는 1시간~10시간 미만의 감소가 응답노조 97개 중 52개(53.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75% 이상의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있었다.

실노동시간 변화 (1주)	제출노조	응답률	임금변동	제출노조	응답률
10시간 이상 감소	23개	23.71%	50% 이상 감소	0개	0.00%
1시간 ~ 10시간 미만 감소	52개	53.61%	30~50% 감소	4개	4.21%
변동없음	19개	19.59%	10~30% 감소	36개	37.89%
1시간 ~ 10시간 미만 증가	2개	2.06%	1~10% 감소	33개	34.74%
10시간 이상 증가	1개	1.03%	변동없음	22개	23.16%
합계	97개	100%	합계	95개	100%

3) 2020년 임단투 전망

가) 2020년 임단투에서 단위노조의 역점사항

2020년도 단위노조 임단투 역점을 묻는 설문에는 “임금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 “고용안정(구조조정 대응 등)”,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정년 연장 대응” 순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단위노조 임단투역점사항	중점1	응답률	중점2	응답률	중점3	응답률	복수 응답	응답률
임금 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	66	68.04%	14	14.58%	7	7.37%	87	30.21%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0	0.00%	5	5.21%	6	6.32%	11	3.82%
노동시간단축	2	2.06%	15	15.63 %	7	7.37%	24	8.33%
고용 안정(구조조정 대응 등)	21	21.65%	18	18.75%	12	12.63%	51	17.71%
최저임금제도변경대응	1	1.03%	8	8.33%	6	6.32%	15	5.21%
임금체제 개편	2	2.06%	12	12.50%	13	13.68%	27	9.38%
정년 연장 대응	1	1.03%	9	9.38%	21	22.11%	31	10.76%
비정규직 고용개선	2	2.06%	1	1.04%	2	2.11%	5	1.74%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2	2.06%	13	13.54%	21	22.11%	36	12.50%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0	0.00%	1	1.04%	0	0.00%	1	0.35%
총계	97	100%	96	100%	95	100%	288	100%

나) 2020년 금속노련(한국노총)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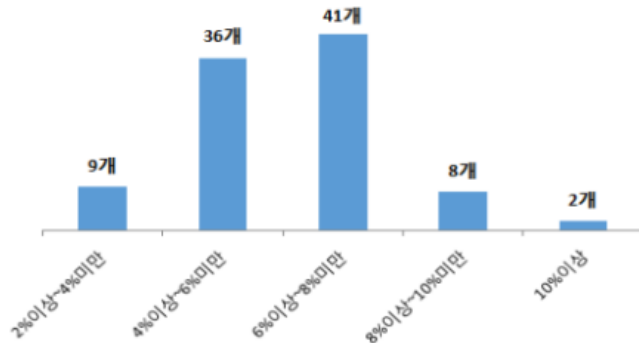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야할 사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와 더불어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마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에 대한 요구들이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노총 활동역점사항	중점1	응답률	중점2	응답률	중점3	응답률	복수 응답	응답률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45	47.87%	15	15.96%	8	8.51%	68	24.11%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10	10.64%	19	20.21%	11	11.70%	40	14.18%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	15	15.96%	18	19.15%	7	7.45%	40	14.18%
노조법 전면 개정 및 ILO 심협약 비준	4	4.26%	12	12.77%	8	8.51%	24	8.51%
최저임금 인상	7	7.45%	6	6.38%	6	6.38%	19	6.74%
고용 문제(비정규직, 구조조정 등)	10	10.64%	5	5.32%	6	6.38%	21	7.45%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	0.00%	5	5.32%	6	6.38%	11	3.90%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0	0.00%	0	0.00%	0	0.00%	0	0.00%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0	0.00%	4	4.26%	5	5.32%	9	3.19%
노동 가치 존중 헌법 개정 활동	1	1.06%	0	0.00%	8	8.51%	9	3.19%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1	1.06%	1	1.06%	9	9.57%	11	3.90%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1	1.06%	9	9.57%	20	21.28%	30	10.64%
총계	94	100%	94	100%	94	100%	282	100%

다) 2020년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을 지침 수준

2020년 가맹노조에서 요구하는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을 지침의 수준은 “6%이상 ~ 8%미만” 수준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이상~4%미만	9개	9.38%
4%이상~6%미만	36개	37.50%
6%이상~8%미만	41개	42.71%
8%이상~10%미만	8개	8.33%
10%이상	2개	2.08%
합계	96개	100%



4) 임금피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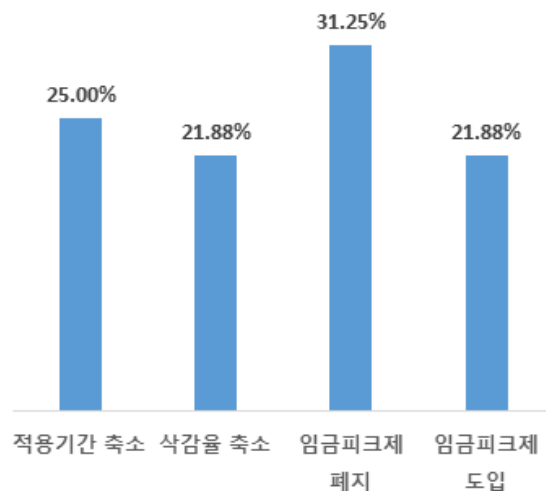
가) 임금피크제 실시 유무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실시	42개	46.67%
미실시	48개	53.33%
합계	90개	100%



나) 2019년 임금피크제 교섭 사업장 현황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적용기간 축소	8개	25.00%
삭감을 축소	7개	21.88%
임금피크제 폐지	10개	31.25%
임금피크제 도입	7개	21.88%
합계	32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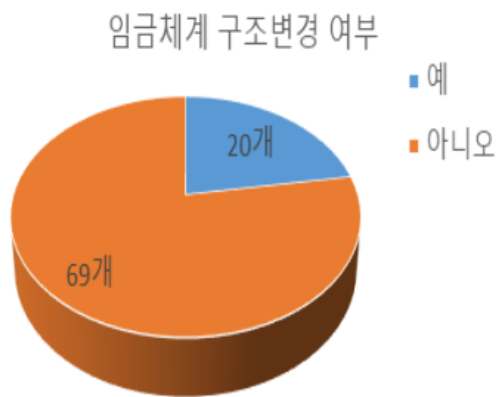


다)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적용 여부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적용	20개	54.05%
미적용	17개	45.95%
합계	37개	100%

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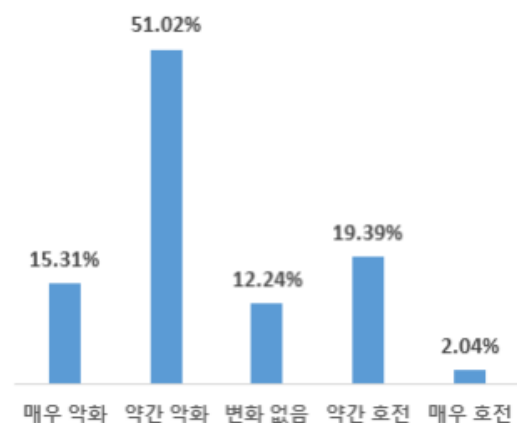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구분	제출 노조	응답률 (%)
정기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	15개	75.00%
식비·교통비 등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	1개	5.00%
근로시간 축소	2개	10.00%
상여월할	2개	10.00%
합계	20개	100%

(2) 2020년 경영 상태 예상 (2019년 대비)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매우 악화	15개	15.31%
약간 악화	50개	51.02%
변화 없음	12개	12.24%
약간 호전	19개	19.39%
매우 호전	2개	2.04%
합계	98개	100%



(3) 2020년 고용변화 예상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	1개	1.08%
소규모 구조조정 예상	28개	30.11%
소규모 신규채용 예상	33개	35.48%
대규모 신규채용 예상	5개	5.38%
아직 잘 모름	26개	27.96%
합계	93개	100%

3. 2020년 임단투 지침 및 포스터 발간

가. 2020 임단투 지침



제1장 2020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 I. 2020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 1. 2020년 정세전망
 - 2. 객관적 정세에 기초한 한국노총의 주체적 조건과 과제
 - 3. 2020년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 4. 2020년 금속산업(제조업)전망
- II. 한국노총 임금지침
 - 1. 2019년 임단투 평가와 2020년 임단투 전망
 - 2. 2020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 III. 금속노련 임금지침
 - 1. 2020년 임단투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 2. 2020년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

제2장 2020년 주요쟁점 대응지침 및 단체협약

- I.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 저지 및 시간주권 확보
 - 1. 개요
 -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주권 확보
 - 3. 유연근로시간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오·남용 대응전략
 - 4. '휴식있는 삶' 확보전략

5. 낮은 교대제 개편과 신규 일자리창출 전략

II.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대응방안

1. 개요
2. “노동권” 강화의 의미
3. ILO기본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 개정 투쟁
4.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III. 20만 금속노련 건설을 위한 조직화 지침

1. 개요도020년 20만 금속노련 조직화 사업
2.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

IV. 비정규직 남용 근절 및 차별 없는 일터 실현

1. 총론
2. 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3. 불법파견, 법원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
4. 단체협약 요구안 및 해설

V. 저임금 구조개선 및 임금체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효과
2. 최저임금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
3. 정부와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 시도
4. 저임금구조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정책 방향
5. 현장 대응 지침

VI. 경기침체와 주요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1. 개요
2.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현황
3.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대책
4. 기업분할제도
5.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의 대응목표 및 방향
6.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을 단체협약 명시
7.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8. 고용안정협약 모범사례

제3장 단체협약 및 제도개선 지침

I.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확대

1.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개요
2.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3. 노사공동결정체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4. 자본참가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II. 디지털화·자동화 확산에 따른 고용위협 및 비정형 노동확산 대응

1. 기술발전의 현 단계와 관점
2.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
3. 디지털전환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현황
4. 디지털전환에서의 노동관련 주요 쟁점
5. 디지털화·자동화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및 대응방향

III. 위험의 외주화 금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1. 개요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문제점
3.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4. 직업성질환의 예방 및 조치
5. 쾌적한 일터 만들기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7. 모범단협안

IV.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활용방안

1. 기업복지 차원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해
2. 노동조합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방향

V.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노동존중문화 실현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및 평가
2.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3.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및 주요 판례
4. 한국노총의 대응지침 및 모범 단체협상안

VI. 여성 노동권 강화와 성평등 실현

1.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 임신 관련 모성권과 건강권
4. 출산 관련 모(부)성권
5. 육아휴직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
7. 가족 돌봄권
8.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통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
9. 고용평등 이행을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VII.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1.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2.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3. 퇴직연금,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할까?

VIII.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동향과 노조개입 방향

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필요성
2.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동조합 참여 현황
3. 노동조합 대등한 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노동조합의 대등한 직업능력개발 한국노총 지침

[부록]

2019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주요 노동통계

나. 2020 임단투 포스터

2020 조직확대
힘있게 가자
제조노동자

사업장의 담장을 넘어,
 원청과 하청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더 노동조합이 필요한 곳으로!

노동조합 역량강화와 노동주권 보장

- 커질수록 선방위 조직 확대
- 한국노동 재조명에 공화
- 조건없는 ILO 71원칙과 비준
- 파임오프 제도개선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
- 노동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확대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삶의 질 향상

- 임금인상 8.4% 쟁취
- 철리해고 요건 강화로 구조조정 저지
- 불법파견 근절·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비정규직 차별 철폐
- 노동유연화 저지, 온전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미래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
- 4.15 총선을 통한 '노동존중' 가치 실현화
- 인건비상승의 4차산업 구현
- 외부기업 먹튀 규제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연맹

고무산업노조 / 광산노조 / 금속노조 / 섬유·유공노조
 식품산업노조 / 출판노조 / 제철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4. 현안 실태조사

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 목적

- 2020년 최저임금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노총 소속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산입범위 확대이후 현장의 고용상황과 실질임금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기 위함

○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 조사대상 : 한국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
- 조사기간 : 2019년 5월 28일 ~ 2019년 6월 5일

○ 실태조사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귀하의 실질 임금 증감(+, -) 변화에 관한 설문입니다.

1.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월 환산 1,745,150원)입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대비 10.9% 인상(시급 820원, 월환산액 171,380원)된 것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까?

- ① 예 (→ 1-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2번 문항으로 이동)

1-1. 해당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1-2. 해당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어떠합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 ②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
③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

1-3. 실질임금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산업범위 확대로 인하여 ② 근로시간 축소로 인하여
③ 초단시간 노동자라서 ④ 기타 ()

1-4.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정기상여금 ② 복리후생비(식대) ③ 복리후생비(교통비) ④ 기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고용변화에 관한 설문입니다.

2.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귀 조합 사업장의 고용상황은 어떠합니까?

- ① 고용 증가 (→ 4번 문항으로) ② 현재와 별 차이 없음 (→ 4번 문항으로동)
③ 자연 감소(전직 및 퇴직) (→ 4번 문항으로) ④ 인위적 감소(해고, 구조조정 등) (→ 3번 문항으로)

3. 고용의 인위적 감소가 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경기 불황 ② 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③ 최저임금 인상 ④ 자동화

※ 귀 노조의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 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장 명 : 금속노련 ()

5. 귀 조합 사업장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종 업 원 수 : ()명 , 조 합 원 수 : ()명 끝.

○ 조사결과 요약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
전 체		131	100.0
소속 산별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74	56.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28	21.4
	기타	29	22.1
종업원 수	99인 이하	12	9.2
	100인 이상 299인 이하	59	45.0
	300인 이상	60	45.8
조합원 수	99인 이하	37	28.5
	100인 이상 299인 이하	64	49.2
	300인 이상	29	22.3

-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유무에 대한 답변은 47.7%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대상 조합원이 있다고 응답
-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고 답한 사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29.2%의 조합원 비율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
- 실질임금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적었던 이유는 43.8%가 산업범위의 확대로 때문이라고 응답

1. 최저임금 기준 적용 조합원 유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월 환산 1,745,150원)입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대비 10.9% 인상(시급 820원, 월환산액 171,380원)된 것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까?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28)	47.7	52.3

1-1. 최저임금 기준 적용 조합원 비율

(1번 문항 '예' 응답자만 답변) 해당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 명, %)

	사례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평균
전 체	(61)	49.2	23.0	8.2	11.5	8.2	29.2

1-2. 최저임금 기준 적용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

(1번 문항 '예' 응답자만 답변) 해당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어떠합니까?

(단위 : 명, %)

	사례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
전 체	(59)	55.9	39.0	5.1

1-3. 실질임금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적은 이유

(1-2번 문항 '낮게 인상' 응답자만 답변) 실질임금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적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단위 : 명, %)

	사례수	산업범위 확대로 인하여	근로시간 축소로 인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라서	기타
전 체	(32)	43.8	18.8	0.0	40.6

1-4.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된 항목

(1번 문항 '예' 응답자만 답변)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단위 : 명, %)

	사례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대)	복리후생비 (교통비)	기타
전 체	(46)	58.7	17.4	10.9	30.4

2. 최저임금 인상이후 사업장 고용상황 변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귀 조합 사업장의 고용상황은 어떠합니까? (조사 후 복수응답 처리)

(단위 : 명, %)

	사례수	고용 증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음	자연 감소 (전직 및 퇴직)	인위적 감소 (해고, 구조조정 등)
전 체	(125)	9.6	56.8	29.6	7.2

3. 고용의 인위적 감소 원인

(2번 문항 '인위적 감소' 응답자만 답변) 고용의 인위적 감소가 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사 후 복수응답 처리)

(단위 : 명, %)

	사례수	경기 불황	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최저임금 인상	자동화
전 체	(9)	66.7	33.3	33.3	11.1

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사업장 피해 기초조사

○ 목적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 강화로 개별허가로 전환된 고순도 불화수소, EUV(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으로 확대되어짐에 따른 금속 노련 가맹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사업장 피해 기초조사
- 조사대상 : 금속노련 산하 단위 노동조합

- 조사기간 : 2019년 9월 5일 ~ 2019년 9월 13일

○ 기초조사서

1.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여부는?

- ① 영향을 받고 있다. (->2-1번으로) ②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2번으로)
③ 받고 있지 않다.

2-1.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원자재 수입차질에 의한 생산물량 감소
② 생산 관련 부품, 장비 유지·보수 애로 발생
③ 대 일본 수출물량의 감소
④ 기타 ()

2-2.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언제쯤 영향이 발생하겠습니까?

- ① 1개월 ② 3개월 ③ 6개월 ④ ()개월

3. 일본의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예상이 되는 품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4. 영향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② 제3국 또는 국내 장비로의 교체
③ 현재 직접적 대응 불가능
④ 기타 ()

5. 한·일 무역 분쟁 상황에서 금속노련(한국노총)의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구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실태 및 고용상황 점검 실태조사

○ 목적

- 전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지속되면서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노동현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현장대응지침마련, 정책지원, 현장 교섭과 투쟁지원 활동을 지원코자 함

○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사업장 피해 기초조사
- 조사대상 : 금속노련 산하 단위 노동조합
- 조사기간 : 2020년 4월 2일 ~ 2020년 4월 10일

○ 현장 점검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실태 및 고용상황 점검표

■ 회사·노동조합 개요

노동조합명		소속 산별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종업원/조합원 수	종업원 : 명 / 조합원 : 명	업 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및 고용상황

경영상황 악화	① 있음 ② 없음 ③ 악화 예상	
매출액	① 감소 ② 증가 ③ 영향 없음	감소율 ()%
가동률 *	① 감소 ② 증가 ③ 영향 없음	감소율 ()%

※ 매출액, 가동률 평년 대비 ‘현재’ 수치 작성, ‘①감소’ 인 경우에만 감소율 표기

※ 공장가동률 : 사업운영 유지율 또는 자동차·택시의 경우 ‘운행률’ 로 작성

고용상황	변동 여부	대상인원
정규직 감원	① 있음 ② 없음 ③ 변동없음	()명
비정규직 감원	① 있음 ② 없음 ③ 변동없음	직접고용(기간제·파트타임) : ()명 사내하청(파견·용역·도급) : ()명

■ 근무형태 변화 및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현황

구분	시행여부	대상인원과 급여수준·기간
연차휴가 사용강제	① 있음 ② 없음 ③ 시행예정	※ 대상인원만 표기 ()명
휴업	① 있음 ② 없음 ③ 시행예정	※ 대상인원 : ()명 ※ 급여 : ① 평균임금 70% 이상 ② 평균임금 70% 미만
무급휴직/유급휴직	무급 : ① 있음 ② 없음 ③ 시행예정 유급 : ① 병가 ② 공가 ③ 제도없음	※ 무급시 대상인원 : ()명 ※ 유급휴직시 급여 보상 (전부 / 부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	① 신청 ② 미신청 ③ 신청예정	※ 대상인원 : ()명 ※ 신청기간 : ()개월
특별연장근로인가	① 신청 ② 미신청 ③ 신청예정	※ 대상업무 및 인원 : () ※ 인가기간 : ()%
유연근무제 도입여부	① 재택근무제 ② 시차출퇴근제(선택근로시간제)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④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⑤ 재량근로시간제	※ 대상인원 및 기간 표기 :

※ 대상인원 및 기간 표기방식(예시) : 무급휴직 “① 있음” → 생산직, 영업직 대상인원 300명, 3개월간 순환 무급

■ 구조조정 진행 여부

구조조정 유형	①정리해고/권고사직	②희망/명예퇴직	③외주화(아웃소싱)	④사업양도/인수	⑤사업부 폐지
임금조정 여부	①임금동결	②임금삭감	③임금반납	④임금체불	⑤기타()
추진단계 서술					

※ 구조조정 유형 : 중복 기재 가능

■ 2020년 임단협 진행상황

교섭 추진여부	단체협상 주요 쟁점	타결내용
① 교섭 미진행 ② 교섭 진행중 ③ 교섭 타결	① 교섭 횟수 : (회) ② 교섭 쟁점 :	

※ 교섭쟁점 : 임금인상, 고용안정 보장, 구조조정 등 서술

■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의견 및 지원사항

○ 코로나19 고용위기 중점관리사업장 현황 (2020.4.23. 기준)

- 77개 사업장에서 조사참여
- 65% 사업장에서 매출액 감소가 일어났으며 62%의 사업장에서 가동률 감소가 일어남. 이는 실제로 가동률 감소사업장에서 매출액의 감소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연장선상에 추후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 예상됨.
- 당면하여 정규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도급해지나 기간제 구조조정이 발생하며 코로나19에 의한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먼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며, 일부에서는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정규직 희망퇴직이 실시됨.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현장 정규직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연차휴가의 강제사용과 휴업·휴직 또한 일부사업장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교육활동

1. 금속노련 교육 활동	167
가. 2019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교육	167
나. 2019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168
다. 2019 제조연대 법률학교	169
라. 2019 제조연대 하반기 교육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자 경제)	170
마. 금속노련 신임 대표자 및 임원 교육	171
2. 가맹노조 교육강사 지원 활동	172
가. 강사파견현황	172

평가 및 개선방향

교육부는 연맹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과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간부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한다.

2019년 상반기에는 단위노조의 임단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위원교육·경영분석교육·선전선동교육·법률학교가 한국노총 제조연대 차원에서 기획·집행되었다. 교육생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한국노총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교육으로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자 경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노동자 역사와 노동자 철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며, 이러한 제조연대 차원의 집체교육을 통하여 연대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금속노련 신임대표자 및 임원교육을 복원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며 노동조합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상반기 집행되어야 할 집체교육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0년에는 현장집체교육 이외에 비대면 교육사업의 기획을 통한 또 다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년에 금속노련 가맹노조의 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 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키 위한 교육강사 요청 및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100건을 넘어섰던 반면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육강사요청이 잠정적으로 연기되면서 76건 정도에 머물렀다.

교육업무의 주 내용이 교육정책적 내용이나 교육자료의 제작·배포보다는 실무적인 교육지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위노조의 교육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는 방안모색 등 실제 단위노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활동을 연구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교육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무처의 교육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1. 금속노련 교육 활동

가. 2019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교육

- 일시 : 2019년 4월 1일 ~ 3일
-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294명 (금속 202명 / 화학 82명 / 섬유5명 / 식품5명)
- 교육과정 :

일자 시간	4월 1일 (월) (1일차)	4월 2일(화) (2일차)	4월 3일(수) (3일차)
08:00	접수 및 중식	조식	
09:00		2019년 임금지침 해설 1h (화학노련 이승용 정책국장)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사업 모범사례 2h (한국노총 김태룡 조직실장)
10:00		단체교섭의 법률 쟁점해설 2h (법률사무소 새날 정명아 노무사)	
11:00			교육 평가 및 귀가
12:00		중식	
13:00	개강식	단체교섭에 임하는 전략과전술 3h (금속노련 전종덕 노사대책실장)	
14:00	2019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h (전태일노동대학 김승호 대표)		
15:00			
16:00	2019년 노동정세와 단협지침 해설 2h (금속노련 광상욱 정책부장)	분임토의 2h (각 조직별 모범 사례 공유)	
17:00	휴식		
18:00	석식	석식	
19:00	참가조직 및 교육생 인사	제조연대 모범단협집 해설 1h (금속노련 광상욱 정책부장)	
20:00		단결의 밤	

나. 2019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 일시 : 2019년 4월 8일 ~ 10일
-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194명 (금속 147명 / 화학 43명 / 섬유4명)
- 교육과정

일자 시간	4월 8일(월) (1일차)	4월 9일(화) (2일차)	4월 10일(수) (3일차)
08:00	접수 및 중식	조식	
09:00		한국사회 다시보기 1h (섬유유통노련 정대중 정책국장)	제조연대 모범단협집 해설 2h (금속노련 곽상욱 정책부장)
10:00		선전선동이란 무엇인가! 3h (금속노련 전종덕 노사대책실장)	
11:00			교육 평가 및 귀가
12:00		중식	
13:00	개강식	(계속) 선전선동이란 무엇인가!	
14:00	2019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h (전태일노동대학 김승호 대표)	쟁의프로그램 작성법 2h (금속노련 정태교 조직부장)	
15:00			
16:00	단체행동 법리해설 2h (법률사무소 새날)	선전선동/쟁의프로그램 실습 2h (조별실습)	
17:00			
18:00	참가조직 및 교육생인사	석식	
19:00	석식	선전/선동 실습발표	
20:00		단결의 밤	

다. 2019 제조연대 법률학교

- 일시 : 2018년 4월 16일 ~ 18일
-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215명 (금속 132명 / 화학 58명 / 고무 21명 / 섬유 4명)
- 교육과정

일자 시간	4월 15일(월) (1일차)	4월 16일(화) (2일차)	4월 17일(수) (3일차)
08:00	접수 및 중식	조식	
09:00		임금실무, 최저임금 대응 3h (법률사무소 새날)-김기덕	제조연대 모범단협집 해설 2h (금속노련 광상욱 정책부장)
10:00			
11:00		중식	
12:00			
13:00	개강식	구조조정 대응 2h (법률사무소 새날)-정명아	
14:00	2018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h (전태일노동대학 김승호 대표)		
15:00			
16:00	근로시간 실무 2h (법률사무소 새날)-정명아	인사이동 및 해고 2h (법률사무소 새날)-정명아	
17:00			
18:00	석식	석식	
19:00	참가조직 및 교육생인사	산업안전 보건 실무 (금속노련 나병호노사대책부장)	
20:00		단결의 밤	

라. 2019 제조연대 하반기 교육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자 경제)

○ 일시 : 2018년 9월 2일 ~ 4일

○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117명

(금속 50명/화학34명/출판 5명/식품 8명/고무 14명/섬유 6명)

○ 교육과정

일자 시간	9월 2일(월)	9월 3일(화)	9월 4일(수)
08:00	12시부터 점심식사 가능 12:40분까지 접수완료	조식	조식
09:00		한국노동운동사 1(3h) -노동자 교육센터 최규진 운영위원-	제조연대의 방향과 목표 (대표자 특강)
10:00			
11:00			
12:00	중식	중식	
13:00	개강식(13:30~13:37)	영화 상영(1시간 36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동영상 상영(13:37~13:50)		
	단체사진 (13:50~14:00)		
14:00	자본주의란 무엇인가?(2h)	한국노동운동사 2(2h) -노동자 교육센터 김진순 대표-	
15:00	-노동자 교육센터 김진순 대표-		
16:00	세계노동운동사(2h) -노동자 교육센터		
17:00	원영수 운영위원-	휴식	
18:00	석식	석식	
19:00	참가조직 및 교육생 인사	소통의 시간(1h)	
20:00		단결의 밤	

마. 금속노련 신임 대표자 및 임원 교육

- 일시 : 2019년 11월 27일 ~ 28일
- 장소 : 대명리조트 홍천 (비발디파크)
- 참석 : 신임 대표자 및 임원 25명 (금속노련)
- 교육과정

시간 \ 일자	11월 27일(수)	11월 29일(목)
07:30 ~ 09:00		조 식
09:00 ~ 11:00		2019년 하반기 노동 정세 및 쟁점 - 금속노련 정책국장 곽상욱 -
11:00 ~ 11:30		종강식
13:00 ~ 13:50	접수 및 개강식	
14:00 ~ 16:00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	
16:00 ~ 18:00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 중앙법률원 부원장 김형동 변호사 -	
18:00 ~ 19:00	금속노련 위원장 간담회	
19:30 ~	저녁식사 및 단결의 밤	

2. 가맹노조 교육강사 지원 활동

가. 강사파견현황

연번	일자	단위노조 및 교육대상	장소	강사
1	2019-04-13	도루코 집행부교육	노조사무실	전종덕
2	2019-04-13	동일알루미늄 교섭위원 교육	천안 펜션	전종덕
3	2019-04-19	휴스틸 간부교육	대천 첸션	전종덕
4	2019-04-19	동서기공 신규조합원교육	산기대	곽상욱
5	2019-04-23	SNNC 교섭위원교육	노조사무실	전종덕
6	2019-04-25	서울지역본부 간부교육	평창 펜션	김만재, 김해광
7	2019-04-25	카펙발레오 조합원교육 1차	왜관공장	김성수
8	2019-04-26	카펙발레오 조합원교육 2차	성주공장	김성수
9	2019-04-26	명화공업 안산지부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10	2019-04-29	세아베스틸 대의원교육	덕산 리솜	김준영
11	2019-04-29	니콘코리아 확대간부교육	여성프라자	전종덕
12	2019-04-30	세강산업 조합원교육	광양사무소	전종덕
13	2019-05-02	세아베스틸 상무집행위교육	대천 한화	김준영
14	2019-05-02	서진산업 대의원교육	경주 마우나	전종덕
15	2019-05-02	포스코 광양지부 대의원교육	지부 대회의실	곽상욱
16	2019-05-07	인지컨트롤스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17	2019-05-11	한국기가포톤 조합원교육	사내회의실	곽상욱
18	2019-05-17	두산전자사업부 전간부교육	리솜오션캐슬	노운철
19	2019-05-17	심팩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곽상욱
20	2019-05-21	모비스충주협력사 확대간부교육	수안보	곽상욱
21	2019-05-30	새론오토모티브 총간부수련회	보광산	곽상욱
22	2019-05-30	포스코 대의원교육	노조회의실	곽상욱
23	2019-06-07	동서기공 상반기세미나	화성 펜션	전종덕
24	2019-06-13	이화다이아몬드 조합원교육	오산, 옥산 공장	곽상욱

25	2019-06-14	오비맥주 확대간부교육	보령 로글리	노윤철
26	2019-06-17	두올아산 조합원교육	사내식당	김영미
27	2019-06-18	성암산업 간부집체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28	2019-06-19	서진캠 아산공장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노윤철
29	2019-06-20	서진캠 평택공장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노윤철
30	2019-06-21	대흥산업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노윤철
31	2019-06-24	ASE코리아 간부교육	노조사무실	노윤철
32	2019-07-05	한국키스톤발부 조합원교육	문성휴양림	전종덕
33	2019-07-12	KCFT 전간부교육	서천 펜션	정태교
34	2019-07-17	경주지역 노조간부교육	경주지역지부	곽상욱
35	2019-07-22	남양넥스모 조합원교육	안산 복지관	노윤철
36	2019-07-23	SK하이이엔지기술사무 합원교육	이천여주지부	전종덕
37	2019-07-26	두원공조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38	2019-08-13	경주코레스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39	2019-08-13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대의원교육	사내강당	정태교
40	2019-08-13	오성전자 간부대의원교육	대회의실	김성수
41	2019-08-14	오성전자 조합원교육	사내식당	김성수
42	2019-08-19	포스코 상집운영위원교육	노조사무실	정태교
43	2019-08-28	포항 철의날 기념 근로자교육	제주도	김성수, 정태교
44	2019-08-29	명화공업 안산지부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45	2019-08-29	경기상담소 1일 노동법학교	경기노총	전종덕
46	2019-09-03	한국항공우주산업 신입사원교육	사내강당	나병호
47	2019-09-09	안산시흥본부 대표자교육	안산 복지관	노윤철
48	2019-09-16	포스코 선전선동교육	중앙교육원	정태교
49	2019-09-18	광양사무소 관계사 집합교육	광양지부	전종덕
50	2019-09-27	LS산전 천안지부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51	2019-10-07	청우 포콤 간부 조합원 교육	포항본부	정태교
52	2019-10-11	현대모비스 조합원교육	중앙교육원	노윤철
53	2019-10-17	오토리브 화성지부 간부교육	노조사무실	노윤철

54	2019-10-18	남양넥스모 조합원교육	안산 복지관	노윤철
55	2019-10-23	SK하이이엔지 확대간부교육	양평 펜션	김만재
56	2019-10-30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확대간부교육	KT&G 수안보	노윤철
57	2019-11-01	남양넥스모 확대간부교육	중앙교육원	노윤철
58	2019-11-05	SK하이닉스이천 간부교육	대명 흥천	김만재
59	2019-11-06	한국항공우주산업 확대간부교육	사내강당	노윤철
60	2019-11-08	엘티메탈 전간부교육	대부도 펜션	곽상욱
61	2019-11-21	안산시흥본부 대표자교육	대부도 펜션	김준영
62	2019-11-24	삼영전자 확대간부교육	경기광주펜션	전종덕
63	2019-11-26	농협사료 경북지부 교육	경북지부	전종덕
64	2019-11-27	농협사료 경남지부 교육	경남지부	전종덕
65	2019-11-27	영풍석포제련소 간부교육	문경 STX리조트	전종덕
66	2019-11-29	SK하이이엔지 조합원교육	이천여주지부	노윤철
67	2019-11-30	안산시흥 신규단사조합원교육	안산 복지관	노윤철
68	2019-12-03	포스코 광양지부 확대간부교육	지부 대회의실	곽상욱
69	2019-12-05	유일노동조합 간부교육	포항본부	김성수
70	2019-12-06	유일노동조합 조합원교육	포항본부	김성수
71	2019-12-11	농협사료 경주지부 교육	경주지부	전종덕
72	2019-12-12	MEMC 신입조합원교육	천안산안협회	전종덕
73	2019-12-12	명화공업 안산지부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74	2019-12-19	인지컨트롤스옥천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노윤철
75	2020-02-18	광양단위노조 간부교육	광양사무소	전종덕
76	2020-02-21	조일알미늄 간부교육	경산지부	전종덕

총무활동

1. 회의활동	177
가.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177
나. 중앙위원 회의 및 기타회의	184
다. 회계감사 수검	185
라. 주요행사 및 지원사업	186
2.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	189
가. 취지	189
나. 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189

1. 회의활동

가.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 1) 대회개최일시 : 2019년 5월 14일 13:30
- 2) 대회개최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번지)
- 3) 참 석 자 : 재적대의원 754명중 565명 참석
- 4) 결 의 사 항

안 건	결 의 사 항
가. 2018년도 사업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나. 회계감사보고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다. 2018년도 결산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라. 임원보선 건(부위원장,회계감사)	- 총 투표 509명 중 찬성 508 반대 1 무효 0 : 선출됨
마. 규약 개정 건	- 총 투표 503명 중 찬성 502 반대 1 무효 0 : 선출됨
바. 연맹 중앙위원 및 한국노총 파견(대의원,선거인)선출 건	- 총 투표 508명 중 찬성 506 반대 2 무효 0 : 선출됨
사.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건	- 총 투표 510명 중 찬성 508 반대 2 무효 0 : 선출됨
아. 2019년도 예산 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자. 기타토의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 부위원장

번호	소속 및 노조명	성명	비고
1	경기지역본부	원철식	
2	안산/시흥지역본부	백선진	
3	부산지역본부	윤각열	
4	SK하이닉스이천	이장호	
5	SK하이닉스이천	한승연	여
6	LGDisplay	오지수	여
7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인덕	
8	포스코	김인철	

○ 회계감사

번호	노조명	이름	비고
1	LGDisplay	조소희	여

○ 중앙위원

번호	노조명	성명	비고
1	LG전자	이상걸	
2	LG전자	정혜영	여
3	롯데알미늄	오성원	
4	ASE코리아	김정수	여
5	리한	민한기	
6	신한일전기	김송훈	
7	파주전기초자	오유진	
8	동국제강	박상규	
9	동부인천스틸	김수호	
10	스태츠칩팩코리아	신진호	
11	PN풍년	장영기	
12	삼보오토	강영석	
13	서진산업	김진업	
14	남전기공	윤익병	
15	대한전선	강진연	
16	동양철관	양시준	
17	애디언트코리아	이창수	
18	한라스택폴	강현민	
19	SK하이닉스청주	한주연	여
20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이상용	

번호	노조명	성명	비고
21	한국보그워너티에스	김귀녀	여
22	YKSteel	박대엽	
23	성우하이텍	김근수	
24	GMB코리아	김은겸	
25	삼성공조	이정희	여
26	세방전지	손승일	
27	고려아연	조대형	
28	경창정공	김기표	
29	평화오일셀	이상운	
30	평화정공	허도영	
31	LGDisplay	채근욱	
32	SK실트론	한창욱	
33	세아제강	이종욱	
34	조선선재	조석연	
35	포항지역플랜트건설	이창언	
36	대유글로벌	김학송	
37	오토리브	엄태욱	
38	스태츠칩팩코리아	이기화	여

○ 중앙위원후보

번호	지역	노조명	이름	비고
1	서울	K-MEC	전 상	
2	경기	도루코	이용식	
3	인천	린나이코리아	김제곤	
4	안산/시흥	남양넥스모	조제현	
5	대전	알루코	진현주	
6	충남	인팩	최중진	
7	충북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박대철	
8	부산	대창단조	박창혁	
9	경남	스타리온성철	남원섭	
10	울산/경주	DIC	허문근	
11	대구/경북	대리정밀	방상훈	
12	구미	노틸러스효성	정동민	
13	포항	유일	이수출	
14	광주/전남	대유에이텍	정 관	
15	전북	가온전선	김 훈	
16	강원	토다이수	이종상	

결 의 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실망스럽다.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핵심 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후퇴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앞장섰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 유연안정성이라는 해괴망측한 말로 노동자의 목을 옥죄려 하고 있다.

이에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금속노련 20만 조직화와 노동개약 저지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추진전략에 따라 16개 지역본부와 528개 노동조합이 하나가 되어 조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체계 개악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불규칙 노동 속에 임금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금속노동자가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에 서 왔음을 상기하며, 반노동세력의 노동개약 시도에 맞서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9년 5월 14일

2019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표 창 자 명 단

○ 노총 위원장 표창자

번호	연번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2019-461	ASE코리아	위원장	박용락	경기
2	462	오토리브	위원장	엄태욱	강원
3	463	대창단조	사무국장	손병철	부산
4	464	세원셀론텍	위원장	김성수	경남
5	465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양정모	
6	466	코비코	위원장	모수환	광주.전남
7	467	남양넥스모	위원장	조제현	안산.시흥
8	468	에스엘	위원장	박철규	대구.경북
9	469	아산성우하이텍	위원장	임갑병	충남
10	470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윤동현	인천

○ 공로패

성 명	소 속	비 고
김해광	LG전자	서울지역본부(前)의장
김길섭	에이엔피	경기지역본부(前)의장
방운제	일진전기(반월)	안산.시흥지역본부(前)의장
이해관	LS산전	충북지역본부(前)의장
황대선	대선조선	부산지역본부(前)의장

○ 감사패

성 명	비 고
이헌구	전)부위원장(금속노련 창립멤버)

○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광 주 · 전 남 지 역 본 부 / 포 향 지 역 본 부

○ 연맹 위원장 표창자

순 번	연번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2019-168	농협사료	위원장	홍헌표	서울
2	169	우주엔비텍	위원장	임재용	경기
3	170	한국체인	위원장	김호인	경기
4	171	이수엑사보드	위원장	정정호	안산/시흥
5	172	삼양감속기	위원장	최인석	인천
6	173	알루코		신광훈	대전
7	174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정성진	충남
8	175	대성썬텍에너지스	위원장	이재현	충북
9	176	대선조선	사무국장	김영재	부산
10	177	덴소코리아마산	위원장	김종국	경남
11	178	울산알루미늄	위원장	허진구	울산/경주
12	179	평화산업	위원장	신석곤	대구/경북
13	180	매그나칩반도체	여성부장	김경희	구미
14	181	유일	위원장	이수출	포항
15	182	건우		조회훈	광주/전남
16	183	세아베스틸		고판성	전북
17	184	한일전기		함영호	강원
18	185	풍산		강동영	
19	186	세아베스틸		최광림	
20	187	SK하이닉스이천		김상원	
21	188	SK하이닉스이천		장재봉	
22	189	SK하이닉스이천		박인기	
23	190	LG Display	대의원	김훈규	
24	191	LG Display	대의원	손봉호	
25	192	LG Display	대의원	임성균	
26	193	LG전자	여성부장	정혜영	
27	194	LG전자	조사통계부장	박현웅	
28	195	LG전자	법규부장	정순환	
29	196	동국제강	조직부위원장	이성만	

30	197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직쟁의실장	김재성	
31	198	세아창원특수강		위성준	
32	199	SK하이닉스청주	회계감사	최장환	
33	200	SK하이닉스청주	회계감사	김용태	
34	201	스태츠칩팩코리아	산업안전부장	오하진	
35	202	포스코	홍보부장	김호태	
36	203	LG이노텍	부지부장	남광호	
37	20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실장	전종덕	

○ 감사패

한 국 노 총 중 앙 법 률 원

나. 중앙위원 회의 및 기타회의

1) 제185차 중앙위원 회의

가) 개최일시: 2019년 5월 3일(금) 13:30

나) 개최장소: 한국노총 대회의실

다) 참석인원: 재적인원 69명중 참석인원 36명

라) 안건

○ 토의사항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 회순심의

- 대의원 자격심사건

*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표창자 확정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에 관한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제규정 개정 및 제정의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2) 제186차 중앙위원 회의

가) 개최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09:00~18:00

(2020년 제186차 중앙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모바일 투표로 개최됨.)

나) 개최방법 : 모바일 투표

다) 안 건

○ 토의사항

① 가예산승인(2020년 4월 - 5월)의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②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한 건

* 2020년 5월 14일(목) 확정 결의하다.

③ 2020년도 임단투지침(안)확정 건

*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생계비 충족률 94.5%, 기본급 대비 8.4% 184,736원으로 임금 요구안을 결정하다.

○ 기타토의

다. 회계감사 수검

1) 2018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노련회계감사]2019년 4월 30일(화) 11시

[공인회계사 감사]2019년 4월 29일(월) 11시 / 1회(년)

나)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다) 내 용 : 2018회계연도 하반기(2018.10.1-2019.3.31)회계집행내역

-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 회계감사위원 : 김삼두(에스엘라이팅안산), 송해광(JMI), 최철(핸즈코퍼레이션), 황성원(대철)

2) 2019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2019년 11월 12일(화) 11시

나)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다) 내 용 : 2019회계연도 상반기(2019.4.1-2019.9.31)회계집행내역

-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 회계감사위원 : 김삼두(에스엘라이팅안산),송해광(JMI),최철(핸즈코퍼레이션),황성원(대철),
조소희(LGDisplay)

라. 주요행사 및 지원사업

1) 주요행사 집행

가) 금속노련 창립 58주년 기념식

- 목 적 : 2019년 금속노련 창립 58주년 기념 금속노련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노동운동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최일시 : 2019년 8월 23일 11:00
- 개최장소 : 진풍정한정식(여의도)
- 참 석 자 : 역대 금속노련 위원장님 외 선배님

나)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 실시

○ 개요 및 목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 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
-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건강상 이상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
- 을 통하여 지속적 진찰 및 상담 등 의학적 검진 시행

- 과도한 업무 및 긴장상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검진일정 : 2019년 6월 12월 중 본인 선택
- 검진대상 : 2인(본인 및 배우자)
- 검진기관: 한국의료재단(여의도 IFC)

다) 제10회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 목 적 : 금속노동자의 단결 및 가맹노조 대표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 개최일시 : 2019년 10월 15일-16일 (1박 2일)
- 개최장소 : 한국노총 여주중앙교육원 운동장
- 참 석 자 : 금속노련 가맹노조 대표자
- 제10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시상 : 종합우승 연대팀

제10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협찬현황

[협찬물품]

ASE코리아, KR모터스, LG전자, LS엠트론, PN풍년, SK하이닉스이천 SK하이닉스청주, 가온전선, 귀뚜라미범양냉방, 노벨리스코리아, 니콘코리아, 대동도어, 대동하이렉스, 대림통상, 대우전자서비스, 대한전선, 도루코, 두울아산, 롯데알미늄, 리한, 린나이코리아, 삼영전자, 새론오토모티브, 세방전지, 세아창원특수강, 세원셀론텍, 스태츠칩팩코리아, 심팩, 오스템, 금속인천본부, 태양금속 테크팩솔루션, 토다이수, 포스코, 하나, 현대모비스, 식품노련

[협찬금]

K-MEC, SK하이이엔지, 프라코지부, 서진산업, 경기본부, 이화다이아몬드, 삼아알미늄, 서진캠, 다이후쿠코리아, 핸즈코퍼레이션, 동부인천스틸, 머큐리, 대한제당, 에스엘미러텍, 대덕전자, 삼신, 세명테크, LS메탈, 금속충남본부, 인지컨트롤스옥천, 넥상스코리아, 한라스택폴, 충북본부, HL그린파워협력사, 한국특수전지, 두원중공업, 덴소코리아마산, 삼한, AST, 에스엘, 경창정공, 평화발레오, 영진, 화신, 평화산업, 카팩발레오, 평화오일씰, KEC, 금속구미본부, 엘링크링거, 영풍석포제련소, 태평양금속, 큐로, 세아특수강, 포스코

[후원해주신 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식품노련,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야니노동조합,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 한국노총아산지역지부,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한국노총이천여주지부,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한국노총화성지역지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 부위원장,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변재환 금속노련 지도위원

2.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가. 취지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금속노련에 배정된 2019학년도 장학금 30,02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 노조의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하였다.

또한 금속노련 장학금을 2009년도부터 신설하여 장학금 20,000,000원을 산하 조직의 조합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당해 조직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배정하였다.

나. 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년도별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08	76	방통대1	1	83	85,340,000
2009	63	2/방통대1	2	68	71,000,000
2010	59	방통대1	2	62	67,060,000
2011	50	2	2	54	62,000,000
2012	43	3/방통대1	2	49	55,400,000
2013	41	1	1	43	46,000,000
2014	27	2/방통대1	1	31	34,400,000
2015	28	1		29	29,660,000
2016	28	1		29	30,020,000
2017	30			30	30,020,000
2018	28	1		29	30,000,000
2019	29	1	2	32	37,000,000
금속노련 장학금 수혜 내역					
년도별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15	40				20,000,000
2016	40				20,000,000
2017	40				20,000,000
2018	40				20,000,000
2019	40				20,000,000

조직 활동

1. 조직현황	193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93
나. 지부현황	219
다. 신규조직 현황	221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222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224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020.3.현재)	225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225
2. 투쟁사업장 현황	227
가. 노조별 현안 및 쟁점	227
나. 노동쟁의 사업장 현황	229
다. KCFT 노동조합	230
라. 세강산업 노동조합	231
마. LS산전/천안지부	232
바. 휴스틸 노동조합	233
사. 성암산업 노동조합	235

평가 및 개선방향

2019년은 삼성그룹사 내 전략조직화의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11월에 전국삼성전자노조가, 2020년 2월에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설립되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설립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0년 무노조 경영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는 것 외에도 노동조합이 없는 계열사와 사내하청 및 관계회사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계기를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이제 깃발을 올린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삼성디스플레이노조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다른 계열사 노조 내에서의 조합원 확대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이끌고,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조직강화 활동으로 금속노련 내 선봉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WHO는 전 세계적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금속노련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당연히 구조조정 등 자본의 거센 공격을 견뎌내기 위한 노동조합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우리 금속노련은 15만 금속노련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강고한 20만 금속노련 대오를 건설할 것이다.

1. 조직현황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②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노동복지회관 405

③ 전화번호 : 02)2676 4823 FAX : 02)2676 4824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용안	위니아SLS	2019.12.20.
수석부의장	오성원	롯데알미늄	2019.12.20.
사무국장	전 상	K-MEC	2019.12.20.
회계감사	문민수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9.12.20.

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MEC	20160212	전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신관 9층
KC코트렐	19990609	최경배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LG전자	19630530	배상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22 (가산동, LG전자)
OTIS엘리베이터	19870707	김기태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별관2층
경보전기	19910412	송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가길 5 (성수동2가)
금속일반	20180627	김만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농협사료	20170206	홍현표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공단길 118 농협사료 경남지사
롯데알미늄	19760407	오성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01 (롯데알미늄) 2층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000803	문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0 (한남동) 볼보빌딩 6층
야마하무직코리아	20140901	신우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11층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20160401	김진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구관 지하1층
위니아SLS	19981229	김용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33 (영등포동)
하이텔레서비스	20190403	연태원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가산동) 스카이밸리 520호

2) 경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③ 전화번호 : (031) 233-3580/1 FAX 번호 : (031) 233-3586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원철식	에이엔피	2018.11.20.
부의장	정상영	SK하이닉스	2018.11.20.
부의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2018.11.20.
부의장	윤복현	세진전자	2018.11.20.
부의장	김 영	LG전자 평택1지부	2018.11.20.
부의장	박종현	신한일전기	2018.11.20.
부의장	장대식	LG이노텍 오산지부	2018.11.20.
부의장	성형준	STX엔진	2018.11.20.
부의장	안광호	서진산업 화성지부	2018.11.20.
부의장	오유진	파주전기초자	2018.11.20.
회계감사	김송훈	신한일전기	2018.11.20.
회계감사	최원규	파카코리아	2018.11.20.
사무국장	민한기	리한	2018.11.20.

⑤ 경기지역본부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SE코리아	19881219	박용락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76 (문발동)
JMI	19970120	송해광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8길 15-20
LGDisplay	19990101	권동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A1동
SK하이닉스이천	19870814	이장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닉스	20080319	박이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닉스주식회사	20200210	서주옥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이엔지	20010618	김희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이엔지기술사무	20190430	최용준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177103-1403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STX엔진	20011205	김진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88 (청덕동)
TDK한국	19960228	김동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104
가온전선	19890124	이광희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금정동)
경동산업	19881213	이석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601번길 51
국민정밀	20190313	한영탁	경기 부천시 신흥로402번길 45 (내동)
니콘프레시전코리아	20031210	서동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 (신갈동)
대동도어	19890221	안영철	인천 연수구 첨단대로124번길 64
대신기계	20070601	김용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711-78
덴소코리아화성	19680128	박기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5길 9
도루코	19750520	이용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50 (고림동)
동화프라임	19870814	박운병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528-2
동희정공	20000619	박노용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50-46
두원정공	20180529	정춘식	경기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1-5
로얄&컴퍼니	19870727	문성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리한	20070601	민한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25 마도산업단지 2BIL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20050408	윤종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부천지역	19880706	김덕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근로자복지관3층
삼기오토모티브	19781013	김용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47
삼아알미늄	19890315	조용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삼영전자	19880828	김경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7 (상대원동)
삼화전자공업	19941121	김진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5
서진캠	20030705	정지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31 여연한산지방공단내 2B-5L
성문전자	19910103	차현택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61 (세교동)
성안기계	19890515	심규성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33
세아FS	19870719	서민형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9
세진전자	19950727	윤복현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 494 (가장동)
신한일전기	19740518	김송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22 (송내동)
썬터온	19930310	조성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55
에이엔피	19870902	원철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300 (도당동)
오토리브코리아	20200204	이원로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730-66 (송동)
우주엔비텍	20030401	임재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 (대장동)
이큐글로벌	20011207	남종태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93
이화다이아몬드	19880312	한정호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74 (원동)
이화전기공업	20010611	김선영	경기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2번지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인알파코리아	20101021	박원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39
일진전기	19870816	최성호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안녕동)
일진전기전선사업부	20171115	강철선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64 (안녕동, 일진산전)
일진제강	19870829	이주행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905-80
전국삼성전자	20191113	진윤석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탑동)
전기초자코리아	20171012	박영호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75-29
코리아에프티열린광장	20160115	김주승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섬바위길23
코모스	20020308	노민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42-1
테크팩솔루션	19880404	정수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885-16
파주전기초자	20110519	오유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95-35
파카코리아	19930401	최원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1길 23
프라코	19880714	김석준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79-24
필코전자	19870826	정덕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70 (원천동)
하나모듈	20020216	변주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07
한국기가포톤	20130405	김지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12 넥사이언 리더스타워 8층
한국체인	19870826	김호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한국기스톤발부	19880709	김한기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56
해강AP	20141219	임병욱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70
핸즈식스	20170501	윤영인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12 (쌍송리)
현대엘리베이터	19870814	김종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1
현대엘리베이터근로자	20200123	윤민욱	인천 부평구 평천로 304 (갈산동) 21세기빌딩 4층

3) 인천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75(구월동)
- ③ 전화번호 : (032) 437 8505 FAX : (032) 437 8504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오인상	삼성공업	2020.4.6.
지도위원	김영국	머큐리	2020.4.6.

지도위원	안경봉	서울엔지니어링	2020.4.6.
상임부의장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2020.4.6.
조직부의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2020.4.6.
부의장	박상규	동국제강	2020.4.6.
부의장	김수호	동부인천스틸	2020.4.6.
부의장	김영철	후지테크코리아	2020.4.6.
부의장	조주희	대한제당	2020.4.6.
사무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2020.4.6.
회계감사	최철	핸즈코퍼레이션	2020.4.6.
회계감사	최인석	삼양감속기	2020.4.6.

⑤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F.T	20020506	송병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5 (논현동)
다이후쿠코리아	20170407	김희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8
대동시스템	19890711	김정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9 (남촌동)
대동하이렉스	20030806	류성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78번길 43 (고잔동)
대우전자사무직	20180301	강용석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대한제당	19690602	조주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북성동1가)
동국제강	19890220	박상규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15 (송현동)
동보	19870910	홍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46 (남촌동)
동부인천스틸	19660429	김수호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9 (가좌동)
린나이코리아	19890316	안무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48 (십정동)
머큐리	20001117	김영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가좌동)
삼성공업	19870810	오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91 (남촌동)
삼양감속기	20020715	최인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44 (논현동)
서연탐메탈	19880806	박득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40 (고잔동)
서울엔지니어링	19870824	안경봉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332 (주안동)
스태츠칩팩코리아	19980701	신진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 (운서동)
신한다이아몬드공업	20120703	김종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57-15
심팩	19870818	김영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청천동)
심팩인더스트리	20080704	강광식	인천 서구 건지로 124 (가좌동)
심팩주물	20180208	박정승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418 (고잔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엘티메탈	19870823	안병섭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117
우일정밀	19870824	양승조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89번길 5 (도화동)
인켈	19870919	하재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93 (청천동)
청우하이드로	19880510	고기선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166 (경서동)
한국지엠사무직	20160419	오용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87
한일튜브	19930517	전영성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17 (경서동)
핸즈코퍼레이션	20140401	최철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54 (가좌동)
후지테크코리아	19870827	김영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51 (고잔동)

4) 안산.시흥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7. 12. 16.

② 소재지 : 안산시 선부3동 1076-9 근로자복지관 3층

③ 전화번호 : (031) 410 8601 FAX : (031) 401 860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백선진	명화공업	2018.11.21.
부의장	허일욱	대덕전자	2019.1.30.
부의장	지해갑	진영공업	2019.1.30.
부의장	강상욱	비츠로	2019.1.30.
상임고문	김광호	대덕전자	2019.1.30.
상임고문	강영석	삼보오토	2019.1.30.
상임고문	윤석진	광명전기	2019.1.30.
상임고문	방운제	일진전기	2019.1.30.
자문위원	장영기	PN풍년	2019.1.30.
자문위원	정교태	포스코대우	2019.1.30.
자문위원	이정한	흥진정공	2019.1.30.
자문위원	김삼두	SL라이팅안산	2019.1.30.
자문위원	최형한	신화실업	2019.1.30.
자문위원	김영철	우진공업	2019.1.30.

회계감사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2019.1.30.
회계감사	황명찬	태양금속	2019.1.30.
사무국장	조제현	남양넥스모	2019.1.30.

⑤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PN풍년	19860831	이원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0 (초지동)
SP일레맥	19891026	황경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정공길 2-15 (사사동)
TRW	19870107	강한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27 (원시동)
광명전기	19870815	윤석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목내동)
교세라커넥터	19990429	김진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16 (원시동)
남양넥스모	19950328	조제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50 (목내동)
대덕GDS	19871212	김광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대덕전자	19871228	허일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원시동)
대동모벨시스템	20020426	한명선	경기도 시흥시 변영로 105 (정왕동)
대풍공업	19780223	장정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96 (성곡동)
동서기공	19890424	임동훈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52 (정왕동)
동희산기	19910522	이홍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53
디젠스	19970414	김창규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38 (정왕동)
비츠로	19900821	강상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성곡동)
삼보오토	19880629	강영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95 (성곡동)
삼화왕관	20191001	신용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0 (성곡동)
서울반도체	20180716	박정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97-11 (원시동)
서진산업	19760226	김진엽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6 (정왕동)
서진오토모티브	19910125	김진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13 (정왕동)
선도전기	19890306	김보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86 (원시동)
선창ITS		최준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118
세플러안산유한회사	19950513	강일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9 (신길동)
스탠다드인터내셔널	19870822	노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5 (목내동)
신화실업	19880502	최형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31 (성곡동)
아이아	19890113	김광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87 (성곡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에스엘미러텍	20060928	김종훈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130 (정왕동)
엔피씨몰텍	19950513	하신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 (원시동)
영흥	19880418	정영규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95
우진공업	19890513	김영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8 (원시동)
위스코	19881018	이귀조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33-14
유텍솔루션	20091103	이진우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205 (정왕동)
이수엑사보드	20150213	정정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74 (성곡동)
인지컨트롤스	20081208	손중기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 171 (정왕동)
일렉트로엠	20170106	이종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6 (성곡동)
일진전기(반월)	19870822	방운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21 (목내동)
진영공업	20061011	지해갑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0 (정왕동)
태양금속	19760526	황명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성곡동)
트릴리엄플로우코리아	20170809	신지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51 (원시동)
포레시아코리아	20030619	김현식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4길 11
포스코SPS	20090930	정교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35 (성곡동)
한샘	19800401	이성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144 (성곡동)
흥진정공	19881118	이정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27 (원시동)

5) 대전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 ②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4 번지
- ③ 전화번호 : (042) 488 9057 FAX : (042) 488 9058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이남철	(주)진합	2018.07.01
사무국장	윤익병	(주)남선기공	2018.07.01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남선기공	19740221	윤익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17
세아이앤티	19870107	정제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67번길 40
알루코	19670306	진현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19번길 31
진합	19880126	이남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6) 충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5.06.01

②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복지회관 2층

③ 전화번호 : (041) 565 8001 FAX : (041) 565 900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2019.05.30.
상임지도위원	정덕순		2019.06.27.
지도위원	고석희	오스템	2019.06.27.
지도위원	최용웅	풍산FNS	2019.06.27.
지도위원	정명식	쌍신전자통신	2019.06.27.
지도위원	강진연	대한전선	2019.06.27
수석부의장	이창수	에디언트코리아	2019.06.27.
부의장	최중진	인팩	2019.06.27.
사무국장	최용호	캐논코리아	2019.06.27.
회계감사	전성복	신원	2019.06.27.
회계감사	채준병	경신전선	2019.06.27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B오토시스	19870915	강주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28-24
KG동부제철	19660429	강호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LS메탈	19551015	문창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MEMCKOREA	19960327	임철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
경신전선	19890910	채준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567
귀뚜라미범양냉방	19770804	김성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대륙제관	19870828	홍경표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202번길 17
대양금속	20060220	민성기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계촌리)
대원전선	19870801	허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한전선	19720615	강진연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대호만로 870
동양철관	19870826	추영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
동원금속아산공장	19970409	강춘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288-7
동일알루미늄	19950727	이진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60
동해기계항공	20181118	김태환	충남 공주시 신평면 고도평말길 175(산정리)
동희오토협력업체	20110321	정성진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1
두올아산	19990704	정란홍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11
두원공조	19870810	김태선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43
삼성디스플레이	20200201	이창완,김정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원성동)
삼신	19870729	김학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38-11
새론오토모티브	19951016	장재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5길 133
새화신	20020314	김영일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68
서연오토비전	20150112	오제현	충남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2길 45
세명테크	20171204	노남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91
수산CSM	19950508	윤정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365
승일	20121226	김지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1길 10
신원	20010903	전성복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448
쌍신전자통신	19780426	정명식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507
아산성우하이텍	20051110	최명철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591
애디언트코리아	19950925	이창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45
오스텍	19970123	정동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739
오텍	20050914	정종명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36
유한테크	20180104	이승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85
인지디스플레이AMT	20100129	나명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인팩	19890420	최종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6길 47 (업성동)
인팩혼시스템	19960812	이성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1길 7
지코	19870912	박인용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충남지역금속일반	20110720	강흥진	충남 아산시 남산로 10 (온천동) 근로자복지관2층
캐논코리아	19940626	최용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00 (불당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코리아신예	19890923	심만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24
코리아휠	20000721	황호경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65
태성전장	20060315	박현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0
페더럴모굴	19710513	김길중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442-16
풍산FNS	20021111	최용웅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3
한일캐천안공장	20181024	하형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헤인	19870727	노재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23 (차암동)
환영철강	19950117	이방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87
휴스틸	19800508	김영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7) 충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 ③ 전화번호 : (043) 267 1418 FAX : (043) 266 5088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 장	박태우	현대모비스	19.01.29
지도위원	왕용호	한국야금	19.01.29
부의장	강국모	SK하이닉스	19.01.29
부의장	정재연	국제종합기계	19.01.29
부의장	안교신	삼동	19.01.29
부의장	조경탁	선일다이파스	20.01.14
부의장	서진성	지애피	19.01.29
사무국장	반영진	극동전선	20.01.14
회계감사	손관수	백조윙크	19.01.29
회계감사	김영일	매그나칩반도체	19.01.29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ND전자저울	19890222	이창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인석로 191
HL그린파워협력사	20180624	한훈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69
KBI메탈	20061011	정원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 66
LS산전	19870727	유영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송정동)
SK하이닉스청주	19900209	강국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향정동)
국제종합기계	19740201	정재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극동전선	19870822	반영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금화소재	20151005	김숙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증원산업로 158
넥상스코리아	19780219	이성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림통상	19870813	이영득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23
대성쎄텍에너지스	19890419	이재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55-72
동성금속	19910309	김태규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공단길 74
두산전자	19870820	김승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두산로 40
로알테크	20041203	박홍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향정동)
매그나칩반도체	19870727	김영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향정동)
백조썬크	19850218	손관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353
삼동	19960809	안교신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6-41
삼화전기	19900131	박종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 (복대동)
서울전선	20090917	조병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명심이길 27-20
선일다이파스	19880618	조경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14
성은	20130806	김동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329
에넥스	19870810	김동용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에넥스로 37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19871112	김원배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과학산업1로 170 오창과학단지 4-9블럭
에스피텍	20021202	최용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38
엔텍	20110701	황을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101
우지막코리아	20051125	김종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67번길 5 (읍내리)
인지컨트롤스옥천	20091224	이상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70
일본전산리드코리아	20180222	이선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67 (봉명동)
전진중공업	20100112	이석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지앤피	19870903	서진성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448 (목행동)
한국보그워너티에스	20010521	이상용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251번길 19
한국야금	19910204	왕용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5 (송정동)
한국캠브리지필터	19900216	유호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86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한라스택폴	20081001	강현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101
한미전선	20130630	석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37
헨켈코리아	20130620	연병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98
현대모비스	20000401	박태우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2길 95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20180421	원종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현대성우메탈	20030211	최창수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44 (용탄동)

8) 부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6층

③ 전화번호 : (051) 861 4613 FAX : (051) 853 8770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 장	윤각열	대한제강	19.01.29
지도위원	강진호	동국제강 부산지부	05.02.03
지도위원	박병용	대창단조	08.01.23
지도위원	황대선	대선조선	19.01.29
부의장	황태연	강남	19.03.27
부의장	하영수	대선조선	19.03.27
부의장	윤성원	동국제강신평지부	19.03.27
부의장	추진호	동희정공	19.03.27
부의장	안병철	부산주공	19.03.27
부의장	김근수	성우하이텍	19.03.27
부의장	하두호	태광후지킨	19.03.27
사무국장	박창혁	대창단조	19.03.27
회계감사	김휘종	고려용접봉	19.03.27
회계감사	박근수	태광	19.03.27
회계감사	하만옥	태양금속	19.03.27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PSMC	20110819	원광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SKF코리아	20070115	이원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183
TK-FUJIKIN	20080205	하두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88번길 7 (송정동)
YKSteel	19800226	변태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구평동)
강남	19780319	황태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16번길 71 (구평동)
고려용접봉	19840617	김휘종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63번길 70 (학장동)
대동스프링	20110101	박철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9
대선조선	19681203	하영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254 (봉래동4가)
대창단조	19750510	박창혁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57
대창솔루션	19930831	이종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
대한제강	19890420	윤각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69 (신평동)
동양제강	19870814	박영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47
동화엔텍	19870910	김영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7 (송정동)
동희정공	19870901	추진호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1길 41 (주남동)
버카트컴프레이션코리아	20191016	박수종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58번길 48 105동
부산선박목의장	19930325	박용욱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50번길 20
부산주공	19880420	안병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54
부산지역금속일반	20181127	황대선	부산 연제구 연수로 86 (연산동)
성광벤드	19751119	주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26 (송정동)
성우하이텍	19880707	김근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스타리온기원	20180612	문동우	부산 금정구 동대로 34-23 (회동동)
시퍼스파이프라인	20180517	김성운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54번길 20
오리엔탈정공	19900217	정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6 (송정동)
오타스엘리베이터사무직	20191210	김지홍	부산 사상구 대동로 267 (감전동) 인수빌딩3층
일본해사협회한국	20170701	이창원	부산 중구 중앙대로 45 (중앙동2가) 302호
제일전기	19770319	서종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55 (신평동)
태광	19760602	박근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태양금속	19960523	성정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40 (장림동)
태원니들	19890406	조재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69번길 76 (모라동)
풍산홀딩스동래	20031116	신선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반여동)
프라이그파이스트	20100930	허성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19 (송정동)
한국주철관	19800419	박정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신평동)

9) 경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9일

②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81 노동복지회관4층

③ 전화번호 : (055) 284 4021 FAX : (055) 287 505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손승일	세방전지	2020.3.27.
상임지도위원	김은겸	금속연맹경남본부	2020.3.27.
부의장	하영규	LG전자창원1지부	2020.3.27.
부의장	김성종	에스텍	2020.3.27.
부의장	감규상	풍산홀딩스	2020.3.27.
부의장	장원혁	엔이케이	2020.3.27.
부의장	김인덕	한국항공우주산업	2020.3.27.
부의장	허영복	유니크	2020.3.27.
사무국장	유재현	GMB코리아	2020.3.27.
회계감사	김진희	대동기어	2020.3.27.
회계감사	최영식	상농전선	2020.3.27.
회계감사	신재중	STX중공업	2020.3.27.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GMB코리아	19881115	오창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성산동)
KR모터스	19830326	감경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성산동)
NEK	19960325	장원혁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18
STX중공업	19870810	신재중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 (내동)
고려용접봉(창원)	20180209	문경록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 (성주동)
고려특수선재	19870321	박찬윤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43 (유산동)
금속경남일반	20191015	이상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1 (용호동)
대동기어	19830424	김진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42
대동정비	19891004	백운효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상대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대명공업	19881124	김희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84 (팔용동)
대성사	19760330	윤용운	경상남도 양산시 대동로 53 (어곡동)
대신금속	19961126	김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6번길 10 (팔용동)
대영소결금속	20080702	김남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13
대흥R&T	20171226	권정식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198
덴소코리아마산	19800515	이정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첨단산업로 3 (우산동)
덴소코리아창원	19890308	신병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성산동)
두원중공업	19800114	정진용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해창길 20-7
삼성공조	19850404	이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내동)
삼우KJ스텍	20050115	김승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328 (웅남동)
삼우금속	19800607	차재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53 (남산동)
삼한	19870813	윤삼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84 (웅남동)
상농전선	19780828	최영식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6-1 (유산동)
세동산업	20180718	손동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42 (안동)
세방전지	19760728	손승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22 (남산동)
세아창원특수강	19990730	이상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신촌동)
세아항공방산소재	20020324	최해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48 (성주동)
세원셀론텍	19881102	김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 (신촌동)
세일공업	19880414	김길수	경남 진주시 대곡면 대화로 92
세플러코리아	19630225	전광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내동)
수성기체산업	20180618	정석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99 (성주동)
스타리온성철	20040625	남원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성산동)
에스텍	20040317	김성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22 (유산동)
영흥	20061018	이동우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
영흥철강	20100511	김병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93 (신촌동)
위즈테크	20180809	유재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4 (남산동)
유니크	19880716	허영복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
케이지이에프	20000322	유만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50
풍산홀딩스	19870811	감규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0 (성주동)
하나	20161108	김승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하이닥코리아	20190805	정성훈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20
한국경남태양유전통영공장	19870822	최경식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32 (도남동)
한국정상화성	19880704	황해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00 (봉암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한국제강		조용갑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유현리, 한국제강(주))
한국중천	19870811	최해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26 (양덕동)
한국철강	19870810	김동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신촌동)
한국코오베용접	20000617	주종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단지로 97 (팔용동)
한국특수전지	20050310	황상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80 (성주동)
한국특수형강	20130115	김동현	부산 사상구 장인로77번길 52 (학장동)
한국항공우주산업	20030922	김인덕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일제관	19870817	박한규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1 (유산동)
한전금속	20180306	김지영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25 (남양동)

10) 울산.경주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09.01.
- ② 소재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7
- ③ 전화번호 : (052) 276 5880 FAX : (052) 274 9631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남재환	울산알루미늄	2018.11.28..
상임부의장	최용수	큐로	2018.11.28.
부의장겸 사무국장	문부근	동국실업	2018.11.28.
회계감사	장기현	KUM	2018.11.28.
회계감사	조정식	국일인토틸	2018.11.28.

⑤ 울산경주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DIC	19850607	허문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KAC진장기업	20180501	이영정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76
KBI동국실업	19960628	문부근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133 (연암동)
KUM	20171205	장기현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농공길 20
LS-Nikko동제련	19830321	박성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NVHKOREA	20010512	최희정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 44
경주코레스	20141021	권대우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84-64
고려아연	19771009	문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국일인토틸	20030515	조정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탑걸길 17
동희산업	19870812	노현돈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675 (황성동)
명화공업	19991115	노경택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211 (부곡동)
부창	20181101	김경옥	울산 남구 부두로 9 (매암동) 부창테크
빌코비전	20080221	홍상호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110 (여천동)
스타리온일우	20180503	남호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56
영풍기계	20170228	유상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길 165 (모화리, (주)영풍기계)
울산알루미늄	19780803	허진구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393 (여천동)
정명	20200218	서대호	울산 북구 농공단지3길 25 (달천동)
조선선재온산공장	20020306	김영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 34-13
큐로	20080101	최용수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풍산	19870725	이준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11) 대구·경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③ 전화 번호 : (053) 570 7071 FAX : (053) 570 707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수환	카펙발레오	2020. 2.21.
수석부의장	박칠규	에스엘	2020. 2.21.
지도위원	김기표	경창정공	2020. 2.21.
지도위원	권태훈	영진	2020. 2.21.
지도위원	권오탁	삼성제침	2020. 2.21.
부의장	이상윤	평화오일쉴	2020. 2.21.
부의장	김세흥	삼익정공	2020. 2.21.
부의장	허도영	평화정공	2020. 2.21.
부의장	박기호	삼임THK	2020. 2.21.

부의장	이기남	이수페타시스	2020. 2.21.
부의장겸 사무국장	황성원	대 철	2020. 2.21.
조직국장	장득학	남양금속	2020. 2.21.
교육국장	이상식	성진포머	2020. 2.21.
기획실장	조인수	세명기업	2020. 2.21.
노사대책국장	김영정	평화산업	2020. 2.21.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AMS	20190213	이지모	경북 경산시 자인면 금박로 95(읍천리)
AST	20071204	윤재욱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182
KBWS	20151215	이선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3길 10 (응암리)
KDS	20030127	서정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35
THN	19890227	김태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1길 43 (갈산동)
건화트렐러보그	20020223	김태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5길 33
경창산업	19850720	김성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5길 6 (월암동)
경창정공	19880909	김기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58 (장동)
구영테크	20070117	배광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9길 119
금오EMS	20180614	정재식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대로4길 46
금융기계	19900324	이상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57 (노원동3가)
남선	20030425	손성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효령공단길 14-5
남선알미늄	19680825	최화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남양금속	19881109	장득학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20
대동금속 제1	20181017	김홍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대리정밀	19880714	방상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7길 2
대철	19700226	황성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6안길 5 (월성동)
대한소결금속	19881021	김효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43
대호에이엘	20021002	남기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동원파이프	19890315	김정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길 28 (이현동)
모토닉	19871021	김상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 (신당동)
산도브레이크	19910410	윤장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438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산도테크	19910410	임대봉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1길 7
삼성제침	19910527	권오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56
삼익THK	19870818	박기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63 (월암동)
삼익정공	19890816	김세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39 (월암동)
상신정공	20131024	신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1-9
성진포머	20170331	이상식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9 (호산동)
세명기업	19750619	조인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20
세왕금속	19870827	양명선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1길 209
세원물산	19870828	손광희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도남동)
세원이엔아이	20011026	예병진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도남동)
세원정공	20011025	이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4 (신당동)
신영	19841026	박남규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공단길 39 (본촌동)
아세아텍	19870615	권영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11
아진산업	19810721	김경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171
에스엘	19680618	박칠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77
에스엠텍	20130803	김성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240
영진	19851115	권태훈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53 (채신동)
이수페타시스	19890420	이기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36
일지테크	19890201	김민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50
전우정밀제1	20170124	이병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 24
조일알미늄	20190219	손종창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98
체시스	19920618	최상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28
카팩발레오	19731130	김수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호산동)
타이코AMP	19891101	윤정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평화CMB	20110413	박영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9
평화ENG	20110531	안병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11
평화기공	20110408	박병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95
평화발레오	19890128	김동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36 (장동)
평화산업	19750410	김영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97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평화오일씨	19781014	이상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1길 42
평화정공	19880920	허도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대천동)
피엔디티	20140501	윤광열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92 (채신동)
한국OSG	20170222	이동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38 (호산동)
한국뎃와일러	20141119	박응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5길 26 (월암동)
한국신동공업	19920610	조영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16
화신	19880504	박겸훈	경상북도 영천시 연하공단1길 14 (연하동)
화신정공	20020425	이광우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96 (도남동)
화신테크	19880429	이희찬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 (유곡리)
효림산업	19990409	김원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10로 171

12) 구미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3. 11. 15.

② 소재지 : 구미시 공단동 262 2 번지

③ 전화번호 : (054) 465 3643 FAX : (054) 464 3643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	2016.07.13.
부의장	김상일	새로닉스	2016.07.13.
사무국장	정동민	효성TNS	2016.07.13.
회계감사	이문희	클레스트라하우저만	2016.07.13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KEC	20110701	이준한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41 (공단동)
LG이노텍	19870814	김동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구포동)
LIG넥스원	19870817	신현범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354-25 (공단동)
SK실트론	19890105	한창욱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132-11 (시미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노벨리스코리아	19950715	장만덕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적서동)
델코배터리	19870819	김상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황상동)
새로닉스	19740611	김상일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9길 36 (공단동)
엘링크링거	20141001	복명진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10길 23-7 (금전동)
영풍석포제련소	19770131	강철희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오성전자	20180702	권경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335-4 (공단동)
일성기계공업	19820903	손진명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58-27 (공단동)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얼	20180801	김동한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238 (진평동)
클레스트라하우저만	19890224	이문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0 (황상동)
태평양금속	19880701	안종섭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92 (공단동)
효성TNS	20100805	정동민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15 (구포동)

13) 포항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②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근로자복지관 204호

③ 전화번호 : (054) 283 3728 FAX : (054) 283 372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상준	TCC한진	2018.01.17
사무국장	이수출	유일	2018.01.17
회계감사	조영철	대동산업	2018.01.17
회계감사	정춘식	흥화	2018.01.17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PCM	20050127	서영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26 (대도동)
TCC한진	19830402	고경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청림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그린산업	19880701	김평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13-2 (프라다2F)
대동산업	20090213	조영철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15
대호P&C포항공장	19890701	박규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 (호동)
동일기업	19880704	이기목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4 (대도동) 3층
동일산업봉강사업부	20170904	강준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11 (장흥동)
동일산업합금철사업부	19960321	김종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장흥동)
동주산업	20061114	김삼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61
동화기업	19890324	김하식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상공로 25번길 2층
디케이동신	20001228	이문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54 (괴동동)
롤앤롤	20190925	박경덕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62 (효자동)
선화이엔지	20090121	최태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00 3층
성원제강	20000430	김관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 206 (호동)
세아제강	19740311	신상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36 (장흥동)
세아특수강	19890321	임성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장흥동)
솔라이트	20040821	남현진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83-12
아진카인텍	20111128	권병욱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갯벌길 148-6
에어릭스	19910130	최호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10
영신정공	19890421	장복이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오야길 156
유일	20000408	이수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2번길 4-1 (해도동)
장원	20070521	김영곤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57 (대도동) 서강빌딩 2층
제일테크노스	19890808	김성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39번길 7 (장흥동)
조선선재	19881210	조석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3 (장흥동)
청우	20110720	김영진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317
코스틸	19880424	정삼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35 (호동)
포스코	20181106	김인철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13번길 15-15 (동촌동)
포스코케미칼	19880629	황성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7 (호동)
포스코플랜텍포항	19880629	박무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83번길 61 (장흥동)
포지트	20190319	최종민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74-1 (죽도동) 2층
포콤	20190830	고현민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92 (해도동)
포항지역플랜트건설	20080917	이창언	경북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대도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한금	19901205	이성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240 (장흥동)
현대성우캐스팅	19890610	정천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459 (장흥동)
현대종합금속	19870819	김동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0 (장흥동)
화인텍	20191122	김두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번길 6 (대잠동)
흥화	19870825	정춘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209 (괴동동)

14) 광주.전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94-7 임동근로자복지관2층

③ 전화번호 : (062) 381 8581 FAX : (062) 381 867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관	대유홀딩스	2020. 1. 31.
부의장	이주행	한국신광전자	2020. 1. 31.
부의장	모수환	코비코	2020. 1. 31.
부의장	박옥경	성암산업	2020. 1. 31.
사무국장	김현철	서진산업	2020. 1. 31.
회계감사	박거영	세방산업	2020. 1. 31.
회계감사	백성완	S.N.N.C	2020. 1. 31.

⑤ 광주.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D.M.C하청노동자	20200117	윤선호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249 (옥동)
DSR제강	19850614	이운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GSDK	20181106	차귀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2로 23
SNNC	20171025	백성완	전남 광양시 중마동 1390-5 2층
건우	19960529	조인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240
광양로행복	20171222	양기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85 2층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광주일반	20180309	최정열	광주 북구 서림로 94-7 (임동)
대우전자	19830322	김영도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대유에이텍	20001214	정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2 (소촌동)
대유홀딩스	20160811	김대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40-16 (소촌동)
두원기업민음	20190114	김재식	전남 광양시 중동2길 8 (중동)
무창	20181015	임성근	전남 광양시 중동 1881-7 (항만9로 128)
부국산업	19881101	김재호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금호동)
서암기계	19990708	김수복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15 (안청동)
선우ENG	20171010	신정수	전남 광양시 동광2길 13 월드빌딩 3층
성암산업	19881123	박옥경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1 (태인동)
세방산업	20060306	박거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36 (하남동)
세아M&S	20091012	박상복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188 (화치동)
아룻기공	19870811	정홍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8
창영산업	20191108	전민규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1 (중동) 3층 창영산업노동조합
캠스	20020406	장기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30 (안청동)
코비코	19671013	모수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33 (오선동)
코아월드	20131217	장준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오선동)
코아정밀	20131217	조영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오선동)
포스코엠텍	19890208	이현길	전라남도 광양시 희망길 12-14 (금호동) 제철협력회관 4F B동
포스코플랜텍	20030805	정정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4길 2 (태인동)
한국신광전자	19891127	이주행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32
한국알프스	19890516	신정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33 (장덕동)
현대하이텍	20200110	김창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오선동)
호원	20200107	조동수	광주 광산구 용아로 548 (장덕동/하남공단내)
화천기공	19770327	손성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23-17 (장덕동)

15) 전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②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③ 전화번호 : (063) 465-4875 FAX : (063) 465-4876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학송	대유글로벌	2019.08.01.
부의장	어진호	LS엠트론	2019.08.01.
부의장	이중찬	대우전자부품	2019.08.01.
사무국장	김훈	가온전선전주지부	2019.08.01.
회계감사	한근배	두산전자익산지부	2019.08.01.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LS엠트론	20080701	어진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
대우전자부품	19750516	이중찬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2길 3 (망제동)
대유글로벌	19991101	김학송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4로 133
동양정공	20010223	남석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66
두산퓨얼셀	20190405	장주성	전북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세아베스틸	19530428	서현승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22 (소룡동)
세아제강협력사지역	20200131	송기현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52 (오식도동)
유신정밀	20180416	조장세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10 (오식도동)
일진제강민주	20160103	이민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46 (이도리, 일진제강)
캐스코	20050816	박정욱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1길 24
타모스	20180314	김준규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30-18 (소룡동)

16) 강원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2003. 2. 20

②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우산공단길 24

③ 전화번호 : (033) 744-6658 FAX : (033) 742-582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석승희	한일전기	2016.09.
부의장	이종상	토다이수	2016.09.
사무국장			
회계감사	용석태	신일정밀	2018.11.

⑤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속초지역	19700126	전용원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교동)
신일정밀	20001213	손재동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82 2층 (입암동)
오토리브	19920315	김종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02
토다이수	19930714	이종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36
한일전기	19751021	이상훈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10 (우산동)

나. 지부현황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LG전자구미지부	20020202	유정종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77 (공단동)
LG전자창원1지부	19630505	김진성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가음정동)
LG전자창원2지부	19880122	하영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 (성산동)
LG전자청주인천지부	19980701	김태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971번길 93 (향정동)
LG전자평택1지부	19630530	김기학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LG전자평택2지부	19980123	이용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금속일반노조금속노련지회	20191104	박선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LGDisplay구미지부	20050701	채근옥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235 (진평동)
LGDisplay파주2지부	20200101	정진영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가온전선전주지부	20050223	김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77 (팔복동3가)
금속일반서진캠협력사평택지부	20190222	이주영	경기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31
세아FS광주지부	19960322	안태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26 (안정동)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테크팩솔루션광주지부	20140130	김용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36 (안청동)
프라코아산지부	19980327	김자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30번길 55
대한제당울산지부	19900213	형환우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57 (용잠동)
동국제강당진지부	20120101	김성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길 25
동국제강부산지부	19770212	박성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02 (감만동)
동국제강신평지부	19901017	윤성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76 (신평동)
동국제강포항지부	19901017	하상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금속일반제일제강지회	20191224	김대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성곡동)
서진산업경주지부	20010501	김진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90
서진산업광주지부	19990626	김현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21 (옥동)
서진산업화성지부	19910710	안광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81
금속일반서진캠협력사아산지부	20190515	김재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03
대한전선기기&시공지부	19760615	정지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542
동양철관충주지부	19910126	황동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415 (용탄동)
세명테크익산지부	20171204	이안섭	전북 익산시 석암로7길 137 (팔봉동)
LS산전천안지부	19870727	김창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56
두산전자김천지부	20090901	정갑성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83-16 (대광동)
두산전자익산지부	19870820	한근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매그나칩반도체구미지부	19900209	배준호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75 (임수동)
현대모비스용인지부	20090301	김순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0번길 17-2 (마북동)
한국주철관포항지부	19890117	강종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86 (청림동)
세방전지광주지부	19891216	기세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 (하남동)
세플러코리아전주지부	19890320	양희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7 (팔복동3가)
한일제관대전지부	20060817	최진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50 (신일동)
한일제관음성지부	19870817	안재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84
KUM충주지부	20171127	이상호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2로 47
명화공업안산지부	19970228	백선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5 (원시동)
풍산동래지부	19881205	박동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반여동)
풍산안강지부	19870725	안효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풍산울산지부	19870725	변성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94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풍산특금지부	19870816	전종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57 (효성동)
에스엘대구지부	19910410	정의철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 (검단동)
에스엘안산지부	19880324	김삼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 (신길동)
에스엘천안지부	19990429	김기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50
LG이노텍광주지부	20040701	감동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26 (장덕동)
LG이노텍구미지부	19870814	김동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구포동)
LG이노텍파주지부	20090701	김하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 570
LG이노텍평택지부	19710514	장대식	경기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11
포스코광양지부	20181106	이성재	전남 광양시 백운로 1638-11 백운메디컬센터 401호
포스코케미칼광양지부	19880629	신용수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48 (태인동)
한금양산지부	19901231	천홍열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89 (유산동)

다. 신규조직 현황

번호	본부	조직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 소
1	서울	금속일반노조금속노련지회	박선자	201911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2	서울	하이텔레서비스	연태원	20190403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가산동) 스카이밸리 520호
3	경기	SK하이이엔지기술사무	최용준	20190430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177 103-1403
4	경기	오토리브코리아	이원로	20200204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730-66 (송동)
5	경기	전국삼성전자	진윤석	20191113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탑동)
6	경기	현대엘리베이터근로자	윤민욱	20200123	인천 부평구 평천로 304 (갈산동) 21세기빌딩 4층
7	안시	금속일반제일제강지회	김대명	2019122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성곡동)
8	안시	삼화왕관	신용구	2019100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0 (성곡동)
9	안시	인지컨트롤스	손중기	20081208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 171 (정왕동)
10	충남	금속일반서진캠협력사아산지부	김재운	20190515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03
11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이창완,김정란	2020020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월성동)
12	부산	버카트컴프레이션코리아	박수종	20191016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58번길 48 (대저2동) 105동
13	부산	오타스엘리베이터사무직	김지홍	20191210	부산 사상구 대동로 267 (감전동) 인수빌딩3층
14	경남	금속경남일반	이상철	2019101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1 (용호동)
15	경남	하이닥코리아	정성훈	20190805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20

번호	본부	조직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 소
17	울경	부창	김경옥	20181101	울산 남구 부두로 9 (매암동) 부창테크
18	울경	정명	서대호	20200218	울산 북구 농공단지3길 25 (달천동)
19	대구	조일알미늄	손종창	20190219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98
20	포항	롤앤롤	박경덕	20190925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62 (효자동)
21	포항	청우	김영진	20110720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317
22	포항	포스코플랜텍포항	박무관	19880629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83번길 61 (장흥동)
23	포항	포지트	최종민	20190319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74-1 (죽도동) 2층
24	포항	포콤	고현민	20190830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92 (해도동)
25	포항	화인텍	김두현	201911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번길 6 (대잠동)
26	광전	D.M.C하청노동자	윤선호	20200117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249 (옥동)
27	광전	창영산업	전민규	20191108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1 3층 창영산업노동조합
28	광전	현대하이텍	김창수	20200110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오선동)
29	광전	호원	조동수	20200107	광주 광산구 용아로 548 (장덕동/하남공단내)
30	전북	두산퓨얼셀	장주성	20190405	전북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31	전북	세아제강협력사지역	송기현	20200131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52 (오식도동)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경기지역				
SK하이이엔지	김희성	정상종	19.03.01	정기대회
대신기계	김용관	강호석	19.04.01	정기대회
일진전기	최성호	안명호	18.08.20	정기대회
STX엔진	김진수	성형준	18.08.01	정기대회
니콘코리아	서동진	한상진	18.07.08	정기대회
인천지역				
심팩	김영수	문재식	19.03.	위원장선거
런나이코리아	안무순	김제곤	19.03	위원장선거
스태츠칩팩코리아	신진호	윤동현	19.4	위원장선거
안산시흥지역				
PN풍년	이원필	장영기	19.12.	정기대회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충남지역				
LS메탈	문창배	김병석	20.01.21.	대의원대회 총회 대의원대회 총회 총회 대의원대회
대륙제관	홍경표	전해영	19.08.29	
KG동부제철	강호기	김우하	19.01.01	
동양철관	추영호	양시준	19.12.01	
아산성우하이텍	최명철	임갑병	19.11.01	
휴스틸	김영호	강경호	20.03.06.	
충북지역				
두산전자	김승진	윤영훈	19.11.01	정기대회 정기총회 정기대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대회
넥상스코리아	이성규	최경천	20.01.01	
동성금속	김태규	손현식	20.01.01	
성은	김동원	민경운	19.08.06	
에스엠알코리아	김원배	박대철	19.12.01	
한미전선	석지원	서지웅	19.07.01	
LS산전	유영식	홍문기	19.11.01	
부산지역				
SKF코리아	이원선	이상규	19.09.18	임시대회 정기총회
YK스틸	변태환	박대엽	19.09.05	
경남지역				
GMB코리아	오창호	유재현	19.10.31.	위원장선거 위원장선거 위원장선거
고려특수선재	박찬운	김정훈	20.01.17.	
덴소코리아마산	이정수	김종국	20.01.17.	
대구경북지역				
평화산업	김영정	신석곤	2020. 01	임시총회 임시총회 임시총회 임시총회 임시총회
화 신	박겸훈	김해용	2020. 02	
화신정공	장춘덕	이광우	2020. 02	
전우정밀제1노동조합	김건엽	이병권	2020. 02	
동원파이프	김광석	김정식	2020. 02	
포항지역				
동일합금철	김종하	공재청	19.04.01.	위원장선거 위원장선거 위원장선거
세아제강	신상근	이종욱	19.12.01	
선화이엔지	최태욱	진선일	19.07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그린산업	김평일	장호용	20.01.01	위원장선거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탈사유	조합원수
경기지역 썬코어	김주훈	2019.	노동조합해산	25
경기지역 삼양패키징단위	박성종	2020.03.31	상급단체변경	37
충남지역 디젠스	김창규	2019.08.01.	공장이전	86
부산지역 삼공사	류국부	2020.01	위원장 부재	5
대구경북지역 화신테크	이희찬	2020.03	회사폐쇄	40
광주전남 여수해양	문상렬	2020.03.23	지역본부탈퇴	20
대우전자민주	남상국	2020.03.30	상급단체변경	50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020.3.현재)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직체수		466	438	430	486	488	484	483	496	524	551
조합원수	남	80,405	85,758	90,824	96,761	101,008	100,300	102,506	104,329	117,325	119,506
	여	26,399	22,420	17,556	30,622	26,088	30,460	30,582	30,950	33,923	2,1082
	계	106,804	108,178	108,380	127,383	127,096	128,905	133,044	135,279	148,275	140,588
조합원증감		-93	1,374	202	19,003	-287	+1,809	+4,139	+2,235	+12,996명	-7,687
조직체증감		-14	-28	-8	+56	+2	-4	-1	+13	+28	+27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 2017년 이후 지역본부의 노동조합 조직화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조직확대 성과가 확연함
- 기존의 단순한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결정방식으로는 현재의 조직확대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조직확대 우수본부 결정 기준에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하여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

1) 지역본부에 수여되는 우수 본부상 평가기준 변경

- 기존에는 신규조직된 조직수와 탈퇴 조직수만을 반영하여(+1 또는 -1)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증가된 조합원수를 반영 못함
-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계획에 따르면 기존 가맹노조 내의 조합원 조직률을 100%로 만드는 것 또한 목표 → 직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의무금 증가액 반영.

○ 내 용

구 분	기 존	변 경 후
점수배점	1. 신규노조 : +1 2. 탈퇴노조 : -1 3. 양 점수 합산	1. 신규가입(2점) 2. 탈퇴 후 재가입(1점) 3. 탈퇴 - 상급단체변경 또는 탈퇴(-2) - 중간노조(-1) - 노조해산(-1) 4. 각 지역본부 1년 평균 의무금 증가액/300※ (※1년 평균 150명 의무금 증가 : 2개 신규노조 조직과 같다고 상정, 금속노련 대의원 배정)

2) 연도별 조직 확대 우수본부상 수상내역

년 도	지역본부명	평가점	비 고
2016년	충북	25	
2017년	서울	32	
2018년	포항	11	
2019년	포항, 광주전남	11	

2. 투쟁사업장 현황

가. 노조별 현안 및 쟁점

지역본부	노조명	중요쟁점
서울	농협사료	복수노조, 조합활동 시간 축소 및 타임오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서비스부문 외주화 저지 및 교섭단위 분리
경기	ASE코리아	최저임금 진정 및 임투 준비
	니콘코리아	조직 내부 갈등
	삼영전자	2019년 임단협, 교섭위원 교섭기간내 전임 불허
	성안기계	회사 누적 적자에 따른 상여금 반납 요구
	이큐글로벌	타임오프 해지
	하나모듈	도급업체 금속노조 가입에 따른 교섭력 약화
	한국기스톤발부	2019년 임금교섭 및 노조 내부 갈등
인천	한국GM사무직	복수노조, 타임오프등 노조활동 보장
안산시흥	남양넥스모	복수노조, 노조 내부 갈등
	서울반도체	교섭 및 체결권 위임, 조직화 및 교섭 부진
	세플러안산	최저임금 보전수당 노사 이견
	이수엑사보드	상여금 분할 지급, 단협위반
	태양금속	회사 적자에 따른 교섭 부진
대전	한일제관대전지부	외주화 및 조직 내부 갈등
충남	LS산전천안지부	최저임금 보전수당, 휴직자 연차 처리 이견
	MEMC코리아	반장직 부활에 따른 현장 반발, 교섭 부진
	동해기계항공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신규조직
	삼신	핵발전소 감축에 적자누적

	우영산업	교섭권 상실에 따른 상급단체 변경 예정
	휴스틸	최저임금, 연차수당 이견, 교섭부진
충북	인지컨트롤스	시화공장노조 가맹 관련 갈등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최저임금 대표 소송, 1년 계획
부산	SKF코리아	위원장 임기(2달 공백)관련 노사 갈등
	스타리온기원	공장이전
	일본해사협회한국	신규조직, 교섭및체결권 위임(19/01/25 체결)
경남	STX중공업	회생절차(법정관리) 및 물적분할, 파인트리파트너스(펀드사) 회생절차 종결
	센트랄	재가맹 조직화
	한국특수형강	회생절차(법정관리)
대구경북	대동금속제1	복수노조
구미	엘링크링거코리아	정리해고, 임단협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문제
	오성전자	신규조직, 교섭및체결권 위임
포항	포스코	복수노조, 교섭권 분쟁
	포항지역철강노조	조직화 부진
광주전남	포스코광양지부	복수노조, 교섭권 분쟁
	SNNC	조합원 차별 등 조합활동 갈등
	선우ENG	임금교섭부진
	성암산업	사업권 반납, 단체교섭 결렬
	우영산업광주지부	교섭권 상실에 따른 상급단체 변경
강원	오토리브	물량감소 및 적자
	신일정밀	단체교섭 부진

나. 노동쟁의 사업장 현황

지역	노조명	쟁점	투쟁내용
서울	오티스엘리베이터	임단협결렬	조정중지, 천막투쟁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외주화, 교섭권분리	집회
경기	서진산업	복수노조	집회
	삼영전자	임단협 결렬	출퇴근 투쟁
	현대엘리베이터	외주화, 임단협	집회
	핸즈식스	임단협 결렬	조정신청
충남	국제종합기계	임단협	조정중지, 집회, 파업
	동일알루미늄	인사이동	조정신청
	휴스틸	임단협 결렬	조정중지, 집회
	MEMC	임단협 결렬	조정중지, 집회
	LS산전천안지부	임단협, 노조활동 불인정	조정중지, 집회, 파업
충북	모비스충주협력사	임단협, 복수노조	조정중지, 집회, 천막투쟁
	LS산전	임단협, 노조활동 불인정	조정중지, 집회, 파업
부산	일본해사협회	임단협 결렬	조정신청, 파업
경남	고려용접봉	임단협 결렬	조정신청
	한국한공우주산업	임단협	출퇴근 투쟁
구미	노벨리스코리아	임단협결렬	파업
	오성전자	임단협결렬	조정신청
	엘링크링거	임단협결렬	조정중지, 집회
	영풍석포제련소	임단협결렬	조정신청
광주전남	성암산업	사업권 반납	준법투쟁, 천막농성
	세강산업	매각	조정중지, 집회, 천막농성
	SNNC	임단협 체결	전면파업
전북	KCFT	매각, 임단협	집회, 전면파업

다. KCFT 노동조합

1) 노조개요

- 명칭 : KCFT 노동조합
- 대표자명 : 최영진
- 조합원수 : 117명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2) 주요쟁점

- 2019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 회사 매각에 따른 매각기여금 등
- 단체협약 일방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권한 제약

3) 진행상황

- 1차교섭 05월20일 안양하이테크센터
- 2차교섭, 06월03일, 정읍비즈니스센터
- 3차교섭, 06월18일, 정읍비즈니스센터
- 4차교섭, 07월02일, 정읍비즈니스센터
- 5차교섭, 07월18일, 정읍비즈니스센터
- 6차교섭, 07월31일, 정읍비즈니스센터
- 7차교섭, 08월16일, 정읍비즈니스센터
- 1차조정, 08월12일, 전북지노위
- 2차조정, 08월19일, 전북지노위, 조정중지
- 8월~9월중 회사앞 출근집회 개최, KCFT 노동조합 단체협약 일방중재에 따라 금속일반노조에 조합원 가입후 재교섭 요구
- 교섭요구, 09월30일, 금속일반노조 가입 통보(19-35호)
- 1차요구, 10월18일, 1차교섭 요구(19-40호)
- 2차요구, 10월23일, 2차교섭 요구(19-41호)

- 3차요구, 10월28일, 3차교섭 요구(19-43호)
- 4차요구, 10월29일, 4차교섭 요구(19-47호)
- 1차교섭, 11월07일, 안양하이테크센터
- 결렬통보, 11월08일 단체교섭 결렬 통보(19-52호)
- 1차 조정회의, 11월12일, 전북지노위
- 2차 조정회의, 11월18일, 전북지노위, 조정중지 결정
- 2019년 11월25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 사내집회 및 상경집회, 천막농성 돌입
- 2019년 2월 경 노사 기본 합의후 현장 복귀, 3월 노사합의 도출

4) 현 상황

- 2019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라. 세강산업 노동조합

1) 노조개요

- 명칭 : 세강산업 노동조합
- 대표자명 : 김재식
- 조합원수 : 53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2) 주요쟁점

- 신규조직으로 2019년 임단협 체결
- 원청사 회사신임 대표 내정하였으나 기존 대표이사의 거부에 따라 도급계약 철회

3) 진행상황

- 2019/05/02 제1차 단체교섭, 교섭 일정 조율
- 2019/05/21 제2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2019/05/24 제3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2019/05/28 제4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2019/05/30 제5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2019/05/31 제6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2019/06/04 제7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2019/06/05 제8차 단체교섭, 단체협약안 검토
- ※ 회사측 돌연 노동조합의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 행위를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
 - 세강 제2019-11호(2019.06.10.) ·세강 제2019-12호(2019.06.11.)
 - 세강 제2019-13호(2019.06.14.) ·세강 제2019-14호(2019.06.17.)
 - 세강 제2019-12호(2019.06.11.)
- 2019/06/18 단체교섭 결렬 선언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
 - ※ 노조 사측의 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임을 지적하고 교섭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거부로 결렬선언하고 조정신청서 제출
- 2019/11/07 조합원 총회, 광주전남본부 광양사무소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총력 투쟁 결의
- 2019/11/04 광양제철소 대식당앞에서 1인 시위
- 2019/11/18 광양시청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 2019/11/25~26 무기한 전면파업 경고 및 전조합원 2일 파업

4) 현상황

- 2019년 임단협 체결 및 두원기업으로 고용승계, 임단협 및 노동조합 승계

마. LS산전/천안지부

1) 노조개요

- 명칭 : LS산전 노동조합 / LS산전 천안지부
- 대표자명 : 홍문기 / 이신선
- 조합원수 : 900명/300명
-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충남지역본부

2) 주요쟁점

- 2019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 노동조합 활동 불인정

3) 진행상황

- 2019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부분파업
-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에 따른 교섭 중지 결정

4) 현상황

- 신입 집행부 임단협 노사 합의

바. 휴스틸 노동조합

1) 노조개요

- 명칭 : 휴스틸 노동조합
- 대표자명 : 강경호
- 조합원수 : 295명
- 지역본부 : 충남지역본부

2) 주요쟁점

- 2019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3) 진행상황

- 19.04.04 단체교섭 요구서 발송
- 19.04.16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2호)
- 19.04.25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3호)
- 19.05.02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4호)
- 19.05.09 임단투 출정식, 복지동앞

- 19.05.10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5호),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요구안 발송
- 19.05.28 제1차 단체교섭, 노사 단체교섭 위원 상견례
- 19.05.29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6호)
- 19.06.05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7호)
- 19.06.13 제2차 단체교섭
- 19.06.14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8호)
- 19.06.19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9호)
- 19.06.14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8호)
- 19.06.19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09호)
- 19.06.25 제3차 단체교섭
- 19.06.26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10호)
- 19.06.28/07.01 총력투쟁 결의대회, 복지동앞
- 19.07.03 제4차 단체교섭
- 19.07.05 단체교섭 요구 문서 발송 (제2019-11호)
- 19.07.16 제5차 단체교섭, 교섭 결렬 및 조정신청 의사 전달
- 19.07.17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 공문 발송 (제2019-12호)
- 19.07.18 노동쟁의 조정신청
- 19.07.26 제1차 조정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19.07.30 제1차 조정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조정중지 결정
- 19.08.16~19 쟁의행위 찬반투표
- 조합원수:354명, 투표자수:338명, 찬성:323명, 반대:15명, 기권:16명
- 투표자수 대비 95.6% 찬성, 조합원수 대비 91.2% 찬성
- 19.08.28 노조 간부 및 대의원 서울 본사 상경집회
- 19.09.03 노사 임단협 합의 도출,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가결)

4) 현상황

- 2019년 임단협 체결

사. 성암산업 노동조합

1) 노조개요

- 명칭 : 성암산업 노동조합
- 대표자명 : 박옥경
- 조합원수 : 188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2) 주요쟁점

가) 2019년 단체교섭 결렬

구분	노조	사측
2019년 임금	7.9%	5.7%
근무형태	2018년 노사합의 이행	불가

- 노조 201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총액대비 7%대 인상
- 노조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2020년 1/4분기내 4조 2교대 시행
- 노조 조합원 광양제철수내 출입 보장, 노동권 인정
- 포스코 광양제철소 분할매각 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

3) 진행상황

<2017년 단체교섭>

- 성암산업 2017년 11월경 적자라는 이유로 상임신압 노조에 매각 추진 통보
- 포스코 광양제철소 성암산업 분할 매각 노조에 통보
- 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2017년 임금, 원하청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총액 대비 10% 인상 발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비 협력업체 임금 수준 45%)
- 성암산업 노조 분사 매각 보다 성암산업 전체 매각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요구
- 포스코 성암산업 분할 매각이 아니라 전체 매각 약속
- 성암산업 신준수회장 광주방송국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

- 2017년 임금협상 결렬되어 조정신청후 준법투쟁 실시
- 노사 임금인상 타결, 신임 유재각 대표이사 취임

<2018년 단체교섭>

- 2018년 6월 노조에 통보없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업일부 반납, 직원 4명 구조조정
- 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2018년 임금 총액대비 8% 인상 발표
- 성암산업 노사 2018년 임,단협 협상 10개월 실시함
- 노조, 상생협의회 발표 8% 인상 요구, 10개월 소요 타결
- 사측 포스코와 계약 갱신하며 노무비 12.6% 계약, 비밀로 하다가 노조에서 강력반발하자. 발표

<2019년 단체교섭>

- 201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노무비 총액대비 7% 인상 발표
- 성암산업 노조 총액대비 7%을 인상 요구
-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근무형태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 요구
- 단체교섭 결렬로 천막농성 시작(1월13일)
- 포스코 최정우 회장 2020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700억 협력업체에게 원하청 소득 불균형을 위해 지급 했다고 보고
- 노조 3월5일/6일 사측에 집중 교섭 요구, 사측 거부
- 노조 3월11일 야간근무자 4시간 부분파업
- 성암산업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 성암노조 조합원 작업장 출입 금지

4) 현상황

- 3월12일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합원 작업장내 출입금지 조치, 노동권 부정
- 회사 작업권 반납 후 분할 매각 입장 통보
- 노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2018년 2월 분할매각 않는다는 합의 이행요구
- 포스코 본사 및 광양시청, 노동부 앞 결의대회, 청와대 1인시위 중

국제 연대 활동

1.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239
가. 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239
나. 대만 ROCMU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240
다. 금속노련 정기교대의원대회 초청	240
라. 인더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	241
2. 기타 국제 활동	242
가. ASE코리아 항의서한 전달	242
나. 한국노총 산별 국제담당자 워크숍 참석	246

평가 및 개선방향

2019년 6월에는 금속노련-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 양 조직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식교류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7년 정식으로 교류를 진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베트남 산업통상노조와의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노동현황과 노동권 향상 등을 논의하고 국제 연대강화를 힘차게 모색할 계획이다.

2019년 6월에는 대만 ROCMU 정기대의원대회에 축하 참석했다. 양 조직간 축하 사절을 보냄으로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노동분쟁에서 상호 연대할 수 있는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타조직이 대의원대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제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지 최신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2019년 5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 일본 JCM과 대만 ROCMU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축하해줬다. 2019년 5월에는 인더스트리얼 중집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는데 인더스트리얼 활동보고, 세계대회 준비사항 논의, 여성위원회 보고가 논의됐다.

ASE코리아 대만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국제담당자 워크숍에 참가하여 연대와 견문을 넓혔다. 금속노련이 가맹한 국제통합제조노련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1.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가. 베트남 산업통상노동조합 교류회의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28일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 참석자
 -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 김성수 금속노련 조직본부장
 -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
 - 박강원 금속노련 홍보부장
 - 정란홍 두올아산노조 위원장
 - 모경림 현대모비스노조 부위원장

2) 회의내용

- 휴 위원장과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됨.
- 정세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양 조직 간 궁금한 점을 질의 답변함
- 2020년 VUIT를 한국으로 초대
- 교류회의 만으로는 정보교환에 한계가 있음으로 추가적으로 더 자주 더 자세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DISOCO 노동조합 방문(디젤 엔진·부품, 가솔린엔진, 실린더관, 수증펌프 등을 혼다에 납품)
- 포드자동차 노동조합 방문(포드자동차 3종류를 하루 51대 생산)
- VINAPIPE 방문

나. 대만 ROCMU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9년 6월 22일 ~ 25일
- 장소 : 대만 원린현
- 참석자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 전종덕 금속노련 노사대책실장
 - 나병호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

2) 방문 목적

- 한·일 양국간 노동조합간 상호 친선 도모와 노동운동 연대를 강화하여 양국 노동자의 권익수호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ROCMU 정기대회에 참석함

다. 금속노련 정기교대의원대회 초청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9년 5월 13일(월) ~ 16일(목)
- 장소 : 경기 이천
- 초청자
 - 타카쿠라 JCM 의장
 - 시원창 ROCMU 위원장
 - 유청타오 ROCMU 항공산업개발공사노조 위원장
 - 이리신 ROCMU 항공산업개발공사노조 본부장

라.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9년 5월 20일 ~ 22일

○ 장소 : 벨기에 브뤼셀

○ 참석자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본부장
- 정태교 금속노련 조직국장

2) 회의내용

- 인터스트리올 활동보고
- 세계대회 준비사항 논의
- 여성위원회 보고

3) 회의 일정

- 5월 20일(월) 13:00 - 15:45/ 16:15 - 19:00 워킹그룹회의
- 5월 20일(월) 09:00 - 12:00 여성위원회의
- 5월 21일(화) 09:00 - 19:00 집행위원회의
- 5월 22일(수) 09:00 - 16:00 집행위원회의

2. 기타 국제 활동

가. ASE코리아 항의서한 전달

1) 내용

안녕하십니까?

ASE GROUP 조직 중 한국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ASE KOREA 노동조합 위원장 박용락입니다.

지금까지 사측(김송운)과 10차례 임금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안은 “임금 인상에 있어 기본급 인상은 안 된다.”는 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금교섭 간 대표이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주 사업장은 모토로라에서 ASE가 인수한 후 노.사 상생 한다는 같은 가치관으로 노측은 사측의 사업계획에 있어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사내 아웃소싱 합의,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의 교대 방식변경에 대한 합의, 그리고 2014년, 2017년 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인적 체질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사측의 요구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00여명의 인원축소를 감행하기까지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사측의 터무니없는 2019년 임금인상 안에 대하여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파주공장은 ASE가 인수한지 20년이 넘는 사업장 입니다. 이곳에는 ASE가 인수하기 전 모토로라 직원들도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도 파주 사업장에 대한 애사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의 명성의 맞는 복지와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진은 그 명성에 걸 맞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2019년 임금협상을 10차례 진행 하여 교섭결렬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렬되어 현재는 쟁의 기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말로만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10차례 교섭에도 대표이사는 단 한번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모든 잘못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 전 허심탄회한 교섭을 하자는 제의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본사의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이 현 경영진을 통해 본사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와 본사의 입장이 한국의 경영진과 같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ASE KOREA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사원은 심각한 배신감과 현 경영진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년 동안 노동조합은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사측의 경영방침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불만이 폭증하여 300명이었던 조합원수가 1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사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서한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Affiliated with
IndustriALL



35 Yeouido-Dong Yeongdeungpo-Ku, Seoul, Korea 150-885

Tel. +82-2-6277-2009

Fax. +82-2-6277-2011

Date : May. 29th, 2019

To : ASE KAOHSIUNG(ASE Group Head Office)

Cc : President Wen-Chang Shih, Republic of China Metalworkers' Union(ROCMU)

Page: 2 page including this cover

Dear Sir,

This is Park Young Nak, the Union Leader of ASE Korea which our company is located in Paju of Korea.

I am writing a letter to inform you about the critical situation between ASE Korea and Union.

We have been negotiating with the company for 2019 wage rate over 10 times until now. Unfortunately, even we have had 10 times negotiation, the only message we got from the company is they refuse to raise the basic salary for the staffs. The representatives who attend the negotiation table with bad attitude every time, also Mr. Kim Song Woon, the General Manager never attended the negotiation table once.

As you know, ASE Korea (Paju factory) was under Motorola Inc. in the past and was took over by ASE Group afterwards. All the staffs are working hard and contributing in order to sustain the company's growth.

We aligned and agreed with company regarding the outsourcing policy, working shift system, workforce restructuring in 2014, and the great scale (over 200 staffs) lay-off in 2017 to bear the company business crises. Despite the efforts we had paid, the company still ignored our requests, like basic salary increases. We angry and feel like betrayed.

Paju factory is took over by ASE Group over 20 years, many of ASE Korea staffs were hired since the age of Motorola Inc. They devoted to Paju factory as their life and goal.

Actually, many Koreans think ASE Korea provide good welfare to the staffs and has a good reputation. But now I query whether the ASE Korea executives also have the good reputation and personality or not.

We are not sure if ASE Group head office realizes this situation. For your information, the negotiation which worke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 Korea government was failed and we are implementing industrial action now. In this terrible situation, the company still makes an excuse that all the problems are caused by union. And before to strike for the pay increase, we have suggested to have the conversation/negotiation with the general manger again but we were refused.

I emphasize again, we never had a labor collective agreement for 20 years and followed company policy. The staffs' emotions burst out and the number of union members reached to 1300 members from 300 members.

We are looking forward to listen ASE Group head's voice on this issue as soon as possible.

Furthermore, we hope ASE Group head office get involve this dispute and make a good conclusion with reconciliation.

Thank you. Best regards,

Park Young Nak
ASE KOREA Union leader of FKMTU

나. 한국노총 산별 국제담당자 워크숍 참석

1)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22일 ~ 10월 24일
- 장소 : 한국 제주
- 참석자
 - 곽상욱 정책국장
 - 박강원 홍보부장

2) 논의내용

- 노동시간 단축
- ILO 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한 하반기 노동 관련 주요 쟁점 토론
- 4차 산업혁명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국가연락사무소의 중요성과 국제담당자들의 역할

법 규 활동

1. 금속노련 규약·규정개정	249
가.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활동	249
나. 규약개정 내용	250
2.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255
가.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255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소송	257
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참여	257
4. 법률 행사 참석	259
가.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 참석	259
나.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에 관한 학술토론회	260

평가 및 개선방향

최근 규약 및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규약규정 개정 소위원회가 운영됐다. 2019년 1~2월 회의가 집중적으로 운영됐으며 규약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규약규정집을 신규 제작하여 배포했다.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했다. 기존 법률교육은 상반기에 제조연대 차원에서 진행하는 법률학교가 있는데 하반기에 법률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는 노동법률교육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강의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협의를 통해 배치했다.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 중심이어서 자칫 딱딱할 수 있었으나 현장 간부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들을 배치하여 강의 집중도가 높았다.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규칙이 2020.1.31. 공포·시행되어 장시간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시책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 재난 시에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이른바 ‘경영상 사유’로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참여했다.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과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학술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질의회시와 더불어 주요노동이슈와 쟁점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가맹노조에 제공하여 가맹노조의 법률 지식 향상과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금속노련 규약·규정개정

가.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활동

1) 활동 목적

- 2014년 규약 및 규정 개정 소위원회 운영 이후 규약 및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8년 7월 개최된 지역본부의장·중집부서장 연석회의에서 규약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의함
- 2019년 5월 정기대의원대회 제·개정을 목표로 규약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를 운영함

2) 활동 경과

-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 단위노조 등의 규약 및 규정 제·개정 의견 취합 후 중집 부서장들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제·개정(안) 작성
- 2019년 1월 8일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에 규약 및 규정 개정의견 취합 공문 발송
- 2019년 1월 16일 규약·규정 개정 소위원회에 사무처 개정(안)을 송부하여 검토 요청
- 2019년 1월 22일-23일 1박 2일에 걸쳐 규약개정 소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약·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규약,규정개정(안)을 확정
- 2019.2.21 중앙위원회에서 규약·규정개정 검토, 규정개정(안) 의결
- 2019.5.14.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규약개정(안) 의결

3) 소위원회 구성

- 지역,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의장 2명, 대기업, 중소기업장 각1명과 금속노련 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번호	성명	소속	지위	비고
1	김용안	서울지역본부	의장	
2	남재환	울산·경주지역본부	의장	
3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4	장영기	PN풍년	위원장	

5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6	김성수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7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기획본부장	
8	박선자	금속노련	총무실장	
9	나병호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	

4) 의견 취합 결과

- 2019년 1월 8일 발송한 ‘금속노련 규약 및 규정 개정 의견 제출 요청의 건’에 공문에 대해 1개 노조(평화정공)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6조 (회계연도)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한다.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u>미기재</u>

나. 규약개정 내용

- 현실에 맞게 문구수정 및 삭제
- 중앙위 관련 규약 제28조[임시소집]은 법에 맞게 정비
- 제43조[사무처]는 규정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위해 탄력적 운영 보장
- 신규노조 대의원 배정기준을 의무금 최소 납부 6개월에서 3개월 축소
- 현행 : 1년 미만 의무금 납부는 12로, 1년이상은 36으로 나누어 배정
- 개정 : 12개월 미만은 납부한 의무금을 12로, 1년초과는 처음 의무금을 납부한 월부터 산정

기준월까지의 기간(13~36개월)으로 나눠 배정

-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구성에 관련 변경 승인 건 신설
- 회의 성립과 의결과 관련 전자투표 도입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사업] 금속노련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생략> 7. 산업민주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용자단체와의 <u>노사협의회</u>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1.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 금속노련은 - - - - - - - - - - 진행한다. <생략> 7. <u>경제민주화</u>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1. 삭제 11.여성노동자 지위향상과 사회적평등 실현에 관한사항(신설)	용어 변경 노사협의회 삭제 공제사업 현실적 사업불가, 여성 사업전개 필요
제12조[가맹의 절차] 금속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조는 소정의 양식의 <u>가맹원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도 가맹절차에 준한다</u>	제12조[가맹] 금속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조는 <u>소정양식의 가맹인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탈퇴 절차는 제14조에서 정함
제14조[탈퇴의 효력] 금속노련에서의 탈퇴는 위원장이 승인하며 중앙위원회에 <u>보고한다.</u>	제14조[탈퇴] 금속노련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노조는 결의 기구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절차와 효력 통합
제16조[권리]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 5. <생략> 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u>규정에 의거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u>	제16조[권리]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u>규정에 의거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u> 1. ~ 5.<생략>	단서조항을 호 앞으로 위치 바꿈
제17조[의무]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2.<생략> 3. 금속노련의 <u>지시.명령에</u> 따르며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금속노련에 보고한다.	제17조[의무] 가맹노조는 - - - - - 있다. 1~2.<생략> 3. 금속노련의 <u>지침에</u> 따르며 대의원대회(총회) 및 주요활동, 행사, 조합원수 등에 대하여 금속노련에 보고한	3호 업무집행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5조[대의원대회 기능] <생략>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가맹노조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선거인이 선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역본부와 가맹노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거인을 변경하고, 그에 한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14. 5. 20>	다. 제25조[대의원대회 기능] <생략> ② 항삭제	법과 노총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적용키로 한 개정 내용이었으나 부합하지 않아 삭제.
제27조[중앙위원회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선출당시 소속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u>사퇴</u> 하고 해당 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5. 18>	제27조[중앙위원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선출당시 소속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u>상실</u> 하고 해당 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 때는 <u>중앙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u>	문구 변경
제28조[임시소집] <생략> 2.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제28조[임시소집] <생략> 2.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제29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3.<생략> 4. <u>가맹노조의 합병, 분할 및 해산, 명칭 개칭의 인준</u> 5~11.<생략>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는 - - - - - - - - 결의한다 1~3.<생략> 4. 삭제 5~11.호를 4~10호로 변경	중앙위원회 기능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
제30조[소집절차] 중앙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의 통지 및 토의안건은 중앙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u>가맹노조</u> 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소집절차] 중앙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의 통지 및 토의안건은 중앙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가맹노조에만 통지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3조[사무처] 중앙본부의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설치하며 업무담당자를 사무처장이 정한다 1. 정책기획본부 가. 기획연구실 : 기획연구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나. 홍보선전국: 홍보선전부 다. 총무국 : 총무부, 재정부 2~4. <생략>	제43조[사무처] 금속노련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1~4호 삭제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무처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이관
제44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본부, 실, 국에는 본부장, 실장, 국장, 부서부장, 차장 및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따로 정하는 처무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4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 구성, 운영, 인사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조와 동일
제56조[회계년도]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56조[회계년도]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단, 4월1일~대의원대회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결산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집행할 수 있다.	현재 운영방식과 평화전공 의견 반영
제23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생략> ②대의원 배정은 가맹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연맹 회계연도 전 3년간의 월 평균 의무금을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노조의 경우 가입기간과 의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월평균의무금을 기준1)으로 배정한다. 주석:1) 연맹에 가입한지 7개월(210일)을 초과했고, 의무금 납부를 7개월 이상한 신규노조를 말하며 이 경우 대의원배정	제23조[대의원배정 및 선출] <생략> ② 대의원 배정기준은 연맹회계연도 종료일 전 3년간의 월 평균의무금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 가맹노조의 가입기간 산정은 최초 의무금 납부월을 기준으로 하고,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의원을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12로 나눈 월평균	가입기간, 대의원배정기준 변경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은 당해 회기년도 대의원대회는 7/12, 차기회계년도 대의원대회는 (7+12)/36로 함.	의무금으로 배정 2. 가입기간이 1년초과 3년 미만인 경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월평균 의무금으로 배정	
제21조[구성 및 소집] ①~③ <생략>	제21조[구성 및 소집] <생략> ④ 임시대의원대회의 대의원구성은 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으로 한다. 단, 가맹노조 규약에 따라 파견대원이 변경 선출된 때에는 대회공고 후 3일 이내에 교체할 대의원명단을 금속노련에 문서로 통보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구성에 관한 명시
제35조[회의 성립과 결의]금속노련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써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회의 성립과 결의] ① 금속노련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써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u>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결의 할 수 있다.</u>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자투표를 임시대의원대회 등이 원활한 의결을 위해 도입.

2.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가.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1) 취지

- 단위노조 법규담당자의 노동법률지식을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함
- 단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연대 및 조직현안을 공유하기 위함

2) 일 정

- 2019년 11월 13일(수) ~ 15일(금), 2박 3일 숙박교육

3) 장 소

- 국제청소년센터(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234)

4) 참가자

- ASE노동조합 위원장외 51명

5) 평가 및 과제

- 법규부에서 하반기 노동법률교육을 새로이 준비하며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최대한 교육과정에 반영함
-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처음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생들이 교육시설에 전반적으로 만족함
-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 중심이어서 자칫 딱딱할 수 있었으나 현장 간부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들을 배치하여 강의 집중도가 높았음
- 교육 이후 저녁시간에도 단결의 밤, 뒷풀이 등을 통해 현장 간부들 사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됨
- (상반기 집체교육 외로)상, 하반기에 걸쳐 노동법률교육을 2회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2회 진행시 서울권 1회, 대전권 1회 개최하자는 의견 있었음

6) 시간표

	11월 13일(수)	11월 14일(목)	11월 15일(금)
09:00~09:50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임금실무 - 문성덕 변호사 -	노사협의회와 근로자참여법 - 장진영 변호사 -
10:00~10:50			
11:00~11:50			교육 평가 및 마무리
12:00~12:50	등 록	중 식	
13:00~13:50	개강식 및 교육생인사	노동가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 최도은 민중가수	
14:00~14:50	노동정세와 노동조합의 역할 - 김준영 사무처장	개정 노동관계법과 노동시간 쟁점 - 이상혁 노무사 -	
15:00~15:50			
16:00~16:50	복수노조 법과 대응 사례 - 김동준 노무사 -		
17:00~17:50			
18:00~21:00	저녁식사/단결의 밤	저녁식사 및 휴식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소송

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참여

1) 취지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규칙이 2020.1.31. 공포·시행되어 장시간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시책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위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 재난 시에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이른바 ‘경영상 사유’로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2019.12.10. 제424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에 대응하여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경과내용

- 2019.12.10(화). 제424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방침 관련 규탄 기자회견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 결의
- 2019.12.11(수).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 발표
- 2019.12.13(금).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0. 1. 8(수). 한국노총-민주노총 제1차 실무회의,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관련 공동 법률대응 합의
- 2020. 1.14(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노동부, 법제처)
- 2020. 1.22(수). 입법예고기간 종료
- 2020. 1.31(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노동부「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설명자료」배포
- 2020. 2. 3(월). 한국노총-민주노총 제2차 실무회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시행관련 법률대응 상세 일정 협의
- 2020.2.10.(월). 금속노련 소송인단 모집 공문 발송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 특별한 사정 (인가사유)	+ ②개별 근로자동의	+ ③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4)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문제점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입법취지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로 인가사유 확대는 제도취지·목적에 벗어나는 사항임.
-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5년간 연평균 5~6건에 불과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건수는 2019년에 채 지나기도 전에 787건까지 폭증함. 종전 제도만으로도 무분별한 남용이 예상된 상황에서 ‘경영상 사유’로까지 인가사유를 확대한 결과, 사업장 규모 및 업종을 불문하고 ‘1주 최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해짐.
-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노동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즉, 모호한 각 추상적 인가사유는 노동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당시 경영여건, 경제상황에 따라 충분히 남용될 소지가 다분함.

5) 금속노련 소송인단 참여조직

- 새로운오토모티브노동조합, 쿠팡스탠다드노동조합, 동성금속노동조합, 동부제철노동조합, 화신정공노동조합

4. 법률 행사 참석

가.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 참석

1) 목적

- 2019년 노동자법률구조사업 성과 공유
- 최신 노동판례 학습
- 산별 주요 이슈 사업 공유

2) 일시

- 2019년 12월 4일~12월 6일

3) 장소

- 매종글래드제주 회의실

4) 참석자

- 금속노련 법규담당자 외 22명

5) 평가

- 노동자 법률구조사업의 전략을 공유함
- 노총 법률원 및 산별 법규담당자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됨
- 일방적 교육이 아닌 토론이 배치되어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됨
- 워크숍을 바탕으로 법규담당자들이 월 1회 정도의 판례 학습 모임을 결의함

나.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에 관한 학술토론회

1) 취지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의 고정성 쟁점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이 대법원 후속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노동계의 입장을 공표하고 대법원의 이해를 구하는 조치 특히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관한 노동계 주최 토론회가 필요함

2) 주제

-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검토

3) 일시

- 2019년 9월 24일 17시

4) 장소

- 기업은행 본점 15층 대강당

5) 발제

- 권오성 교수

6) 토론

- 도재형 교수
- 김도형 변호사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7) 참석

-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본부장

산업안전보건활동

1. 산업안전보건교육 집행	263
가.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	263
2. 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협약	265
가. 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265
나. 업무협약서	266
3.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267
가. 한국노총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267
나. 제조업 산재사망사고 예방교육	268
4. 산업안전보건 행사 참석	269
가. 제19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269
나.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위원회 회의	270

평가 및 개선방향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2월에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일정에 맞추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장 추울 때 일정을 잡게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울산이라는 위치상 조합원들이 거리상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

금속노련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금속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기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해예방 캠페인, 자율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각 교육에 결합하여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안전보건담당자들과의 교류와 연대의 장이 되었다. 특히 제조업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화교육도 추가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견문을 넓혔다.

20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미조직,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더불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집행

가.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

1) 취지

-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 하루에 5,000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로 희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해 약 9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1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 후진국으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불안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및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여전히 위협 받고 있음.
- 이에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노동조합의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2) 일 정

- 2019년 12월 11일(수) - 12월 13일(금)

3) 장 소

- 안전보건공단교육원(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4) 참가자

- K-MEC노동조합 사무국장외 64명

5) 평가 및 과제

-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산안법, 산재 보상 관련하여 충분한 강의가 이뤄져 만족도가 높았음.
- 교육 참가생 중 기 참석했던 간부들보다 처음 참석하는 간부들이 많았음
-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례에 대한 이론적 강의를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음

6) 시간표

일자 시간	12월 11일(수)	12월 12일(목)	12월 13일(금)
07:30~08:30		조 식	조 식
08:30~09:00		교육 준비	교육 준비
09:00~09:50		산업안전보건법 (대한산업안전협회 조영수 위원)	노동조합 안전보건활동 (금속노련 김영미 본부장)
10:00~10:50			
11:00~11:50			교육 평가 및 마무리
12:00~12:50	등 록	중 식	
13:00~13:30	개강식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예방 실습 (울산근로자건강센터)	
13:30~14:00	노동정세와 노동조합의 역할 (화학노련 심재호 실장)		
14:00~15:00			
15:00~16:00		산재보상 실무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	
16:00~17:00	산업보건의 이해 (대한산업보건협회 황정호 팀장)		
17:00~18:00			
18:00~21:00	저녁식사 및 단결의 밤	저녁식사 및 휴식	

2. 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협약

가. 대합산업안전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1) 개요

○ 일시

- 2019. 4. 10(수) 11:00

○ 장소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회의실

○ 목적

-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금속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

○ 주요 내용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기술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해예방 캠페인
- 자율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참석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김만재(위원장), 김영미(정책기획본부장), 박선자(총무실장), 나병호(법규안전국장), 박강원(홍보부장)
- 대한산업보건협회 : 윤양배(회장), 변재환(기획이사), 심재동(교육문화이사), 채수현(기술이사), 정연수(노조 위원장), 권순길(대외협력국장) 등

나. 업무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금속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해예방 캠페인 등에 관한 공동실시 및 협력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기술지원 및 협력
3.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4. 산업안전에 대한 공동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협력
5. 양 기관의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협력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협력

제3조 (실무협의회)

양 기관은 제2조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획득된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며,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 효력을 갖는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가. 한국노총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1) 목적

- 노동조합 안전보건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및 노동조합의 산재예방활동 강화

2) 제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 6월 14일(금)
- 장소 : 대전 한화리조트 세미나실7
- 참가대상 : 단위 노조 산안간부 및 조합원, 금속노련 산안담당자 등
- 참가인원 : 금속노련 조합원 등 100여명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조합의 작업환경측정
 - 위험성평가
 - 산재보상 실무
 - 재해사례로 본 안전보건활동

3) 제 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 9월 27일(금)
- 장소 : 양평 한화리조트 연실
- 참가대상 : 금속노련 산안간부 및 조합원 등, 금속노련 산안담당자 등
- 참가인원 : 금속노련 조합원 등 110여명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직업병의 역사와 역학조사의 이해
- 위험성평가
- 산재보상 실무
- 안전한 현장 만들기

나. 제조업 산재사망사고 예방교육

1) 목적

-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직업병 및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
- 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10:00~17:00
-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29 현성빌딩 교육장
- 참가대상 : 금속노련 산안담당자 등
- 참가인원 : 30여명
- 교육내용
 - 정량적 위험성평가
 - 제조업 맞춤형 워크숍

4. 산업안전보건 행사 참석

가. 제19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1) 목적

-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 조직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확대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조 역량 강화
-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근절을 촉구

2) 내용

- 2019. 4. 26(금), 11:00,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재희생자위령탑
-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 추모 사진전시회(산재노동자총연맹, 마필관리사노조)
- 경과보고
- 모범산재노동자표창 및 정부표창 시상
- 산재단체 지원금전달 및 산재환자 나눔 행사(4개 산재단체)
- 추모사 및 추념사
- 진혼의 행사
-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 헌화 및 분향

나.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위원회 회의

1) 목적

- 2019년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및 외부 안전보건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2)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14:00

3) 장소

- 노총 6층 소회의실

4) 회의내용

- 2019년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 평가 및 논의
- 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물 검토
- 2020년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 논의

대외협력활동

1. 통일사업 참여	273
가. 제8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참석	273
나. 한국노총 통일배움터 참석	274
다. 제12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참석	275
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참석	277
2. 추모행사 참석	277
가. 김태환열사 14주기 추모제	277
나. 28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277
다. 전태일열사 49주기 추도식	278
라. 장진수동지 12주기 추모제	278
마.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합동추모행사	278
3.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280
가. 쏠라이트노동조합 수상	280
4. 대외연대 활동	281
가.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공동대표 참여	281
나. 일본 단바 망간기념관 이용식 관장 후원 참여	281

평가 및 개선방향

2019. 2. 북미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연대교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기합의된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및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등 각종 공동사업이 추진되지 못 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사업이 진행됐다.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금속노련을 중심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조직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노총 평화학교 등의 사업에 금속노련 조합원, 사무처가 적극 결합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의 뒷받침이 되었다.

또한 김태환열사, 전태일열사, 장진수동지 추모제, 일제강제징용조선인노동자 합동추모 행사에 금속노련 조합원 및 사무처가 참석하여 열사의 뜻을 기리고 받들겠다는 의지를 되새겼다.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활동, 시민단체 연대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쏠라이트노동조합이 수상했다.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일본 단바 망간기념관 이용식 관장 후원에 참여했다. 그 동안 연대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조직과 함께 활동해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통일사업 참여

가. 제8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참석

○ 일시

- 2019. 4. 2(화) ~ 4.(목)

○ 장소

- 제주

○ 참가

- 금속노련 남양넥스모 홍보선전부장 등 66명

○ 일정표

시간	4월 2일(화)
11:00~13:00	제주도착
13:00~14:00	점심식사
14:40~15:10	방배정, 김정리, 강의장 집결
15:10~16:30	입소식, 영상상영
16:30~18:30	역사탐방 A: 만병디묘역->진아영삶터 B: 진아영삶터->만병디묘역
18:30~21:00	저녁식사

시간	4월 3일(수)
~08:00	기상, 아침식사, 출발
08:00~08:50	평화공원 이동
08:50~10:00	평화공원 전시관 관람
10:00~11:00	제71주년 제주 4.3 추념식
11:00~12:30	이동. 점심식사
12:30~18:00	역사탐방 A: 낙선동4.3성->북촌너븐숭이->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B: 북촌너븐숭이->곤을동 잃어버린마을->하귀리 영모원
18:00~20:00	저녁식사 및 단결의 밤
시간	4월 4일(목)
~08:30	기상, 아침식사
08:30~09:50	통일교육, 퇴소식

09:50~11:00	이동
11:00~12:00	절물자연휴양림(제주시 불개동 산78-37)
12:00~12:30	이동
12:30~12:30	점심식사
13:30~	제주공항 이동 수속

나. 한국노총 통일배움터 참석

○ 일시

- 2019. 4. 26(금) ~ 27(토), 4.27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행사 결합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자

- 금속노련 서연탑메탈 위원장 외 34명

○ 일정표

	4/26(금)	4/27(토)
~09:00	10:30 노총 앞 집결, 출발	기상, 조식 / 08:50 출발
~10:00		이동
~11:00		
~12:00		11시 오두산 전망대 관람
~13:00	13:30 교육원 집결 완료	12시 점심식사 / 임진각 도착
~14:00	접수 및 방 배정	14:00 DMZ 평화손잡기 평화대행진 16:00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15:00	14:00~14:30 입학식	
~16:00	14:30~16:00 교육 1	
~17:00	16:00~16:30 휴식	
~	16:30~18:00 교육 2	
~19:00	저녁 식사	여의도 이동 및 해산
~20:00	전체 뒷풀이	
~21:00		
숙소	노총 중앙교육원	

다. 제12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참석

○ 일시

- 2019. 8. 12(월) ~ 15(목)

○ 장소

- 서울 경기 일대

○ 참석자

- 금속노련 STX중공업노조 위원장 외 74명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	비고
8월 12일(월)		
10:00~10:40	조장 및 조별 실무책임자 회의	
10:40~11:00	집결 완료	
11:00~11:20	참가자 접수, 물품 배부 등	
11:20~12:00	통일선봉대 발대식	
12:00~12:40	점심 식사	
12:40~14:10	이동	
14:10~14:20	CIQ 교육장 착석 완료	
14:20~14:30	개성공단지원재단노조 위원장 인사	개성공단 관련 내용 소개
14:30~16:00	통일교육 1.	김진향 교수
16:00~16:30	간담회 및 CIQ 견학	통일부
16:30~18:00	이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휴식	
20:00~21:30	통일교육 2.	영상교육
21:30~22:00	전체 인사	
22:00~23:00	조별 모임	
23:00~	취침	취침 이후 집행부 회의

8월 13일(화)		
07:00~07:40	아침 식사	
07:40~09:00	통일교육 3.	
09:00~10:30	이동	
10:30~11:30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집회	연대집회 / 통선대장 발언
11:30~13:00	이동	
13:00~18:00	평화 기행 / 점심식사	민통선 기행
18:00~19:00	저녁 식사	
20:30~21:30	휴식	
21:30~22:30	조별 모임	조별 평가 등
22:30~	취침	취침 이후 집행부 회의
8월 14일(수)		
07:00~08:00	아침 식사	
08:00~09:30	통일교육 4.	
09:30~11:00	이동	
11:00~12:00	점심식사	
12:00~13:30	정대협 1400회 수요집회	연대집회
13:30~14:30	이동	
14:30~15:00	삼성 고공농성 노동자 지지 방문	통선대장 발언
15:00~16:00	이동	
16:00~17:00	강제징용 노동자상 추모 집회	
17:00~18:30	저녁 식사 및 휴식	
18:30~19:00	이동	
19:00~20:30	자주통일대회	연대집회
20:30~22:00	조국통일촉진대회	
22:00~23:30	이동	

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참석

1) 구성

- 금속노련 김해광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산별, 7개 지역본부에 통일위원회 구성

2) 운영

○ 제1차 통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 21(월) 14:00, 한국노총
- 내용 : 2018년 사업평가, 남북노동자 3단체연대 교류사업 협의, 통일위원회 워크숍, 4.27, 6.15 등 기념대회 참여 등

○ 제2차 통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9. 6. 4(화) 16:00, 한국노총
- 내용 : 사업 보고 및 6.15 기념대회, 제12기 통일선봉대 사업 등 6월 ~ 8월 통일사업 발제 및 토론 등

2. 추모행사 참석

가. 김태환열사 14주기 추모제

○ 일시 및 장소

- 2019. 6. 14(목),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조합원 및 김주영 위원장 및 충주음성지역지부 등

나. 28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 일시 및 장소

- 2019. 6. 8(토), 15:00, 청계광장

○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조합원 등

○ 내용

- 한국노총 열사(장진수, 최국중) 추모연대 봉안
- 추모기금 후원, 기금마련 열사력 구매

다. 전태일열사 49주기 추도식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3(수),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조합원 및 김주영 위원장 등

라. 장진수동지 12주기 추모제

○ 일시 및 장소

- 2019. 12. 04(수),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김주영 위원장 등

마.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합동추모행사

○ 일시

- 일시 : 2019. 8. 22(목) ~ 24일(토)

○ 장소

- 일본 교토 일대

○ 참가

- 금속노련 LS엠트론노조 청년부장 등 20인

○ 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8월 22일(목)		
06:30	김포공항 집결	
10:10	간사이공항 도착	
10:50	간사이공항 출발	
13:20	우토로마을 도착 및 점심 식사	
14:00	우토로마을 관계자와의 간담회	
15:00	우토로마을 필드워크	
16:00	전체 오리엔테이션	
18:00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호텔 일베르데 교토
8월 23일 (금)		
08:00	아침 식사	
09:00	호텔 체크아웃 및 출발	
10:00	교토민족학교 방문	
11:30	학교 출발	
12:00	점심식사	
15:00	단바망간기념관 방문	
18:00	호텔 체크인	호텔 아마비레 마이즈루
8월 24일(토)		
08:00	아침 식사	
09:30	마이즈루고로스카이트워 방문	
11:00	우키시마마루 추도식 참가	
13:00	정리 및 이동	
14:00	점심식사	
15:00	간사이공항으로 출발	
20:40	간사이공항 출발	
22:25	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3.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가. 쏠라이트노동조합 수상

1) 의의

- 각급 조직별로 진행되는 사회연대,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여,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
- 노총은 책임있는 사회주도세력으로 사회연대 필요
- 가맹노직의 노조 사회적 책임 독려

2)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20.1.16.(수) 10:30

3) 심의위원

- 사무총장, 사무처장, 조직처장, 대협본부장, 좋은친구사회복지재단 본부장/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위원장

4) 심의항목

-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활동,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5) 심의결과

- 금속노련 쏠라이트 노조 외 2개

6) 주요 활동 내용

- 지역사회 공헌 활동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활동
- 시민단체 연대 활동

4. 대외연대 활동

가.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공동대표 참여

1) 사업목적

-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주기를 맞아 노동, 시민단체가 범국민행사위원회를 구성

2) 공동대표 참여

-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

3) 향후 사업

- 공동대표 분담금 납부
- 50주기 사업 공동 진행

나. 일본 단바 망간기념관 이용식 관장 후원 참여

1) 일시

- 2019. 11. 21(목) ~ 23일(토)

2) 참여배경

- <단바 망간기념관>은 현재 일본 영토 내에서 유일한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와 ‘조선인에 대한 착취 등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
- 일체의 운영보조금 없이 운영되던 <단바 망간기념관>이 폐관 위기에 처해 노총 주최로 이용식 관장을 초청하여 후원행사를 개최

3) 후원

-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 등 후원

홍보선전활동

1. 홍보사업	285
가. 소식지	285
나. 기타선전활동	287
2. 홈페이지 및 SNS	288
3. 교육	290
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290
4. 부록	291
가. 소식지	291
나. 성명서 및 논평	323

평가 및 개선방향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결과 연대의 정신 일 것이다. 홍보부는 금속노련의 소식을 각 단사에 발빠르게 전달하며 금속노련산하의 노동조합이 금속노련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조직화 소식과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전달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심을 불러일으켰다.

금속노련 홍보부는 중요한 일정을 알리고 각 단사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했다. 금속노련은 교육일정과, 대의원대회 등 중요한 사업일정들을 알리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각 단사의 투쟁소식을 전함으로서 각자가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만의 조합원들이 함께 싸우고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

홍보부의 목표는 단순히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닌 금속노련의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하게 만드는데 있다. 홍보부는 2019년은 금속노련 조합원들이 소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는 평가를 한다. 2020년에는 조합원들이 소식지를 받아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더 단단하게 하나로 단결된 금속노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홍보부는 발빠르게 금속노련 각 단사의 소식을 전달하고 금속노련의 지침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짐한다.

1. 홍보사업

가. 소식지

2019년 금속노련은 20만조직화를 위해 가열찬 조직사업을 전개한 해였다. 금속노련은 하이텔레서비스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조직화에 포문을 열고, 금속일반노동조합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던 삼성에 삼성전자노동조합 깃발을 세우며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끝장내고 삼성계열사 노동조합에 시작을 알렸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을 건설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힘쓰고 있다.

금속노련은 조합원의 단결과 승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상반기와 하반기 지역순회를 진행해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사안들에 대한 지침과 교섭쟁점에 대한 전략을 전달했다. 지역순회와 함께 각 단사의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 <소식지목록>

[제384호] 제조연대 제2차 교섭위원 교육 실시	19-04-05
[제385호] 2019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완료	19-04-09
[제386호] 한국노총 제조연대 법률교육 개최	19-04-17
[제387호] 2020년 20만 금속시대 연대!	19-05-22
[제388호] ASE코리아 노동조합 파업출정식 개최	19-05-31
[제389호] 금속노련, 노사정 7개 조직 업무협약 체결	19-06-05
[제390호] 노동자·중소상공인 역지사지 간담회	19-06-19
[제391호] 휴스틸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19-07-03
[제392호]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총파업 출정식 개최	19-07-09
[제393호]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임금협상 타결	19-07-17
[제394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19-07-24

[제395호] 포스코노조, 서울 포스코센터 앞 피켓투쟁 전개	19-07-31
[제396호] 김만재 위원장, KAI 노동조합과 간담회	19-08-13
[제397호]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자안전 및 생활임금 보장추구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19-08-21
[제398호] 생존권사수를 위한 KCFT노동조합 상경 결의대회 개최	19-08-29
[제399호] 현대엘리베이터노조, 사측의 일방적 서비스 자회사 설립 규탄	19-09-04
[제400호] 국제종합기계 파업출정식 개최	19-09-24
[제401호] 국제종합기계노조 임금협상 타결	19-10-02
[제402호]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순항중	19-10-17
[제403호] 삼성전자에도 노조 바람이 분다	19-10-31
[제404호]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	19-11-07
[제405호] 생존권사수를 위한 KCFT노동조합 상경 결의대회	19-11-12
[제406호] 금속노련, 삼성전자노동조합에 깃발을 꽂다	19-11-18
[제407호] 금속일반노조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지부 총파업출정식	19-11-27
[제408호] 금속노련 지역본부의장 회의 개최	19-12-05
[제409호] 금속일반노조 KCFT협력사지회, 단계적 전원 복귀 쟁취!	20-02-13
[제410호]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출범식 기자회견 개최	20-02-20
[제411호] 제186차 중앙위원회 개최! -8.4% (184,736원)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	20-03-31

※ 소식지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나. 기타선전활동

1) 성명서 및 논평

금속노련은 2019년 총7차례의 성명서·논평을 발표하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련은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금속노련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의 권리향상과 단결·연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 <성명서·논평 목록>

[성명서] 27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서울반도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19-04-11
[성명서]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하라!	19-06-18
[성명서] 전국우정노동조합 동지들의 총파업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19-06-26
[논평]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19-07-05
[성명서] 삼성전자의 구시대적 작태, 이제 그만!	20-01-30
[성명서] 한국노총을 더럽히지 마라!	20-01-31
[성명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탐욕을 채우려는 경총은 각성하라!	20-03-30

※성명서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2) 임단투 포스터

2019년 임단투 포스터는 금속노련의 활동방향과 2019년 임·단협의 주요쟁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9년 금속노련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장시간 노동 방치하는 노동개악 돌파!>,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및 노동기본권 확대!>, <2019년 통일의 시대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전진하자!>를 핵심구호로 정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지침들을 한눈에 볼수있게 포스터를 제작했다.

※성명서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2. 홈페이지 및 SNS

금속노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속노련과 가맹된 조합들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한 외국단체에 금속노련을 알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 금속노련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금속노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들은 SNS에도 게시되어 쉽게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할 것이다. 홍보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받아보고, 금속노련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

○ <금속노련 홈페이지>



○ <금속노련 페이스북 페이지>



○ <금속노련 유튜브>



3. 교육

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1) 개요

- 노동조합 활동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조합 활동을 알려낼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 카드뉴스, 글쓰기, 언론기사를 보는 관점, 소식지작성

2) 사업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 21일(목)
- 장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234 국제청소년센터
- 대상 및 인원 : 지역본부, 단위노조 홍보 담당 및 조합간부, 20명

3) 일정

일자 시간	1일차(11.20)	2일차(11.21)
07:30~08:40		조 식
08:40~09:00		교육준비
09:00~10:00		강의3) 가짜뉴스 : “언론기사를 보는 관점”
10:00~11:00		
11:00~12:00		강의4) 소식지 작성방법
12:00~12:30	등록	교육 평가 및 마무리
12:30~13:00		
13:00~14:00	안내 및 개강식	
14:00~15:00	강의1)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방안	
15:00~16:00		
16:00~18:00	강의2) 글쓰기 강좌	
18:00~21:00	저녁식사 및 단결의 밤	

4. 부록

가. 소식지

노동력에 창산!
제조산업발전법 제하!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9년 4월 5일(금) 제38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46동 26 한국노총비문 4호 TEL 6277-2000 FAX 6277-2011 웹사이트:skmtu

제조연대 제2차 교섭위원 교육 실시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조합 반드시 용한다!



2019년 제조연대 교섭위원 2차 교육이 4월 1일(월)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금속노련 조합원 200명과 화학노련 조합원 80명, 섬유유통노련 및 식품노련 20명 등 총 30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제조연대는 이번 교육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노동정책과 단협지침 해설 ▲2019년 임금지침 해설 ▲단체교섭의 법률 쟁점해설 ▲단체교섭에 임하는 전략과 전술 ▲제조연대 모범단협지침 해설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사업 모범사례 등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노동조합 간부가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구성했다.

교육에 앞서 김만재 위원장은 개강사를 통해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조합은 회사와의 교섭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동조합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노동조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몇 년 전부터 다시 노조조직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곧해 금속노련은 삼성 조직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련, 20만 조합원 시대 멀지 않아
하이텔서비스노동조합 가입홍보 캠페인 전개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련 하이텔서비스노조(위원장 연태원)는 4월 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과 평택에 위치한 하이텔서비스 청문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금속노련과 하이텔서비스 조합원 동지들은 하이텔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조 선전지를 배포하고 가입을 독려했다.

LG전자 자회사인 하이텔서비스는 고객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종으로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때문에 4월 3일 노조를 설립했다.

노련은 하이텔서비스노조가 조직을 확대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1. 대회일시·장소: 2019.5.1.(수)0시, 여의도 둔화마당
2. 마라톤 종류: 하프코스, 10km, 5km(가족걷기)
3. 신청방법: 한국노총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maydaymarathon.org)
4. 문의: 나병호 발규산안부장 (02-6277-2006)

2019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9년 5월 14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 (02-6277-2007)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일정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선전선동교육	4/8~10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법률교육	4/15~17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 문의: 파상옥 기획부장 (02-6277-2004)
※교육참가 신청서 제출: 팩스 02-6277-2011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자의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4월 9일(화) 제385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령안집행위원회 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메일주소: nll@nll.or.kr

2019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완료 삼성 조직화로 20만 금속시대 열어갈 것



2019년 임단투 승리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4월 9일(화)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끝으로 완료됐다.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충북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금속노련 목표와 임금인상, 교섭쟁점 및 지침 등을 설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들어가는 메시지로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노련이 준비한 대응방안이 현장의 전략·전술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지난해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으로 1만 4천명의 조합원이 증가했다”며 “올해는 삼성을 조직화하여 20만 금속조합원 시대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선전선동 교육 개최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조합 반드시 흥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는 4월 8일(월)부터 2박 3일간의 일경으

로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선전·선동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금속노련 160명과 화학노련 40명 섬유유통노련 10여명 등 21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교육은 ▲선전·선동개념과 실습 ▲쟁의프로그램 작성 ▲단체행동 법리해설 ▲모범단협집해설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한국사회 다시보기 등 선전과 선동의 핵심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1. 대회일시·장소: 5.1.(수) 9시 여의도 문화마당
2. 마라톤 종류: 하프코스, 10km, 5km(가족경기)
3. 신청방법: 한국노총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maydaymarathon.org)
4. 문의: 나병호 법규안전부장(02-6277-2006)

2019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9년 5월 14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제조연대 법률교육 신청안내

1. 교육일시: 4.15(월) 13시 - 17(수) 12시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신청방법: 연맹팩스제출(02-6277-2011)
4. 문의: 박상욱 정책부장(02-6277-2004)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9년 4월 17일(수) 제386호

【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운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4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Ambu

한국노총 제조연대 법률교육 개최 배우고 행동하고 승리하는 철의 노동자!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4월 15일(월)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법률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금속노련 120명과 화학노련 40명, 식품노련 40명 등 총 200여 명의 대표자 및 간부 동지들이 함께했다.

교육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근로시간 실무 ▲구조조정 대응 ▲해고, 징계, 인사 등 대응방안 ▲산업안전보건 실무 ▲제조연대 모범단 협집 해설 등 노조간부가 알아야 하는 핵심강의들로 진행됐다.

금속노련,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안전한 제조현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만들겠다

금속노련은 4월 10일(수)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기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해예방 캠페인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노련에 지원한다.

또한 양조직은 산업안전에 대한 공동사업분야를 발굴하고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한국은 매년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산업재해 고위험군으로 손꼽히는 금속산업계의 안전문화수준 향상과 산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지난 반세기 넘게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힘써온 역량을 바탕으로 금속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김만재 위원장과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등 노련 지도부와 윤양배 회장과 정연수 노조위원장, 변재환 기획이사, 채수현 기술이사, 심재동 교육문화이사 등 협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9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9년 5월 14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 (02-6277-2007)

2019 상반기 한국노총 통일배움터 개최

1. 일시-장소: 4.28(금)-27(토) 여주교육원 및 임진각
2. 집결시간: 26일 오전 10시 30분(여의도)/ 여주교육원으로 바로 오실 분은 26일 오후 1시까지 집결
3. 프로그램: ▲26일: 통일교육, 단합대회 ▲27일: DMZ손잡기, 4.27 1주년 행사(임진각)
4. 문의: 나병호 법규안전부장 (02-6277-2006)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1. 대회일시-장소: 5.1.(수) 9시 여의도 문화마당
2. 마라톤 종류: 하프코스, 10km, 5km(가족경기)
3. 신청방법: 한국노총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maydaymarathon.org)
4. 문의: 나병호 법규안전부장 (02-6277-2006)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5월 23일(목) 제387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원인김만재 원집인김문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대로 26 한국노동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infoktu

2020년 20만 금속시대 연대

2019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성황리 개최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은 5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련은 지난 1년간 활발한 조직화를 통해 포스코노조,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 등 30여개의 신규노조를 조직하고 1만 3천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며 “출해는 무노조 철웅성인 삼성에 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사내하청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를 일반노조로 조직하여 20만 금속조합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가 현장으로 확산되면 자유로운 전환배치와 불규칙한 노동시간 때문에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이날 금속노련은 임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참석 대의원 565명 (재적대의원 754명)의 투표를 통해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보궐선거 결과 원철식 (경기지역본부) · 백선진

(안산·시흥지역본부) · 윤각열 (부산지역본부) · 이장호 (SK하이닉스이천노조) · 한승연 (SK하이닉스이천노조) · 오지수 (LGDDisplay노조) · 김인택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 김인철 (포스코노조) 부위원장과 조소희 (LGDDisplay노조) 회계감사가 금속노련 임원으로 선출됐다.

중앙위원회에서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후보 출마선언식
현장의 목소리 대변하는 건강한 한국노총 만들겠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한국노총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85차 금속노련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대의원대회 안건인 △2018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 보고 및 2018년도 회계결산보고 △임원보선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노총파견대의원, 노총선거인단 선출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수립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안건토의 사전 발언을 통해 “제185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중앙위원들의 전체 결의로 출마를 결의하고 저 김만재를 노총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이 된다면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금속의 강인함과 협상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한 노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2019년도 핵심사업으로 △20만 금속노련 조직화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사업 강화 △단체협약 정보화 사업 △자동차분과 구성 및 자동차산업 노사정포럼 참여 △남북제조노동자 교류사업을 확정했다.

금속노련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은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포항지역본부가 공동수상했다.

자리에 함께한 대의원들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반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반노동 세력의 노동개악 시도저지를 위해 합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대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박인상 전 금속노련 위원장 등 많은 선배동지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 일본 JCM 의장, 대만 ROOMU 위원장 등 4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화한 및 금일봉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분현군 부위원장, 설유·유통노련, 광산노련, 공공노련, 의기노련, IT사무서비스노련, 향운노련, 선원노련, 금융노조, 담배인삼노조, 화학노련, 출판노련, 자동차노련, 관공·서비스노련, 연합노련, 우정노조, 전택노련, 고무산업노련, 철도·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의료노련, 식품산업노련, 사립대연맹, 교육연맹, 건설산업노조, 한국노총장학재단, 한국노총 경기본부, 한국노총 인천본부, 한국노총 경북본부, 한국노총 서울본부, 한국노총 충북본부, 금속충남지역본부,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한국노총 성남지부, 금속동지회, 한국항공노조, SK하이닉스이전노조, 신한다이아몬드공업노조, 전국민주화섬연맹, 대한산업안전협회, 선전기회,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2]

노동적체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취!
2019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5월 31일(금) 제38호

【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신문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E:master@nkntu.com

ASE코리아 노동조합 파업출정식 개최

더이상 당하지 말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하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금속노련 ASE 코리아노조(위원장 박용락)는 5월 27일(월) 오후 2시 '입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열고 생활임금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박용락 ASE코리아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조는 지금까지 사측과 10차례 넘게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아웃소싱, 구조조정까지 받아들여 고통을 감내했는데 회사는 저임금으로 우리 목줄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노련은 ASE코리아의 대만 본사와 대만 노총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국제통합제조노련에 연대를 요청하겠다"며 "15만 금속노련은 ASE코리아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노동조합, 경기지노위 조정신청

회사는 1천억원 흑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안산에 위치한 금속노련 서울반도체노조(위원장 박정훈)가 5월 29일(수)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박정훈 서울반도체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12시간 2조 2교대로 일하면서도 휴무일이 국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성과급이 작업반장과의 인맥에 좌우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수없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노조활동가에 대한 타임오프를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 조차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1천억원의 영업이익과 6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작업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며 "올해는 피와 땀으로 헌신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련과 안산·시흥지역본부는 지난 4월 25일 서울반도체 앞에서 300여명 동지들이 함께하는 출투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반도체 앞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노조 안정화와 조합원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만 금속노련 시대 멀지 않았다

하이텔서비스노조와 서진캠퍼스노조 조직화 캠페인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련은 지난 4월 가맹한 하이텔서비스노조(위원장 연태원)를 조직화를 위해서 서울, 평택, 울산, 부산 등 총 10개의 거점 지점을 돌며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현재는 노조가 생긴지 2개월 만에 800명 직원 중 450여명이 가입했다.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퍼스지회는 평택에 있는 서진캠퍼스 협력사 3개와 아산에 있는 서진캠퍼스 협력사 3개 총 6개 협력사 노동자 2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2018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언한 2020년 20만 금속 조합원 달성은 활발한 조직화 사업으로 인해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계 창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6월 5일(수) 제38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서영동로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신문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팩시팩/02-6277-2011

금속노련, 노사정 7개 조직 업무협약 체결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노동존중사회 앞당겨야



금속노련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대한상의, 중기부, 중기중앙회, 한국경총 등 7개 조직은 6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 각 조직은 협약식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자와 기업,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스마트공장 확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며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비롯된 기업의 지불능력과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은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는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의제가 아닌 함께 협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제들을 통해 노동자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스마트공장이 제조 현장의 산재를 줄이고 노동강도 감소와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해기계항공 노조 총파업 출정식 개최

동해기계항공 노조(위원장 김태환)가 6월 5일(수) 오후 1시 충남 공주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했다.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는 금속노련 충남지역본부 장재성 의장을 비롯한 단위노조 위원장 및 간부 동지들이 함께 했다.

동해기계항공은 유압크레인을 제작하는 업체로 매출 870억원의 우량 중소기업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고통 받다 지난해 11월 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련에 가입했다.

김태환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신정, 설, 추석 이외의 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측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동해기계항공 노조 뒤에는 15만 금속노련과 100만 한국노총이 함께하고 있다"며 "노련은 노조가 투쟁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ASE코리아 노조, 임금협상안 최종 타결

ASE코리아 노조(위원장 박용락)의 임금협상안이 5월 31일(금) 최종 타결됐다.

노조는 올해 10여 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27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번 협의를 통해 ▲기본급 월 8만원 인상 ▲근무수당 월 3만원 인상 ▲여름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을 쟁취했다.

박용락 ASE코리아노조 위원장은 "투쟁을 함께한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투쟁은 노사 간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어,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9년 6월 19일(수) 제390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신문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E메일:ask@kmtu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

"을들의 연대로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선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6월 17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핵심간부 40여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언문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을들의 계로성 대결을 지양하고, 사안의 근본원인인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해 실천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99% 을들의 지속적 연대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규제 등의 공동과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김태환 노동상에 남양넥스모노동조합 수상

남양넥스모노조(위원장 조계현)가 6월 14일(금) 11시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린 김태환 열사 추모제에서 제6회 김태환 노동상을 수상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비정규직 채용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조는 수상금 100만원을 김태환 열사 추모사업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반도체노조, 부노 분쇄 임단투승리 결의대회 개최 예정

안산에 위치한 금속노련 서울반도체노조(위원장 박정훈)가 6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서울반도체 정문에서 임단투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올해 사측과 20차례 넘게 임단협 교섭을 임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충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조업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1일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넣고 20일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다. 노련은 서울반도체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엘링크링거노조 부에 부노 판정받아

부당해고된 엘링크링거노조(위원장 북명진) 집행부 3명이 경북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측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에 부해 및 부노 구제를 신청했고 14일 지노위로부터 청구를 인정받았다. 노련은 노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문화담당자회의 개최

제9회 금속노련 노동문화 강연대회 10월 15일 개최

금속노련은 6월 13일(목)~14일(금) 광주 솔향펜션에서 문화담당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영삼 SK하이닉스청주노조 사무국장 등 노련 문화담당자 20여명이 함께했다. 회의결과 제9회 금속노련 노동문화경연대회를 10월 15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하고 제반 준비를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연은 율동, 풍물, 노래 3가지로 진행된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제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7월 3일(수) 제391호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총연맹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메일주소:metal@metal.or.kr

휴스틸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임금동결 박살내고 저임금 뿌리뽑자



휴스틸노조(위원장 강경호)가 6월 28일(금) 충남 당진에 위치한 휴스틸 공장 앞에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2019년도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임금동결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은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의대회를 통해 전 조합원의 총력투쟁 결의를 모아냈다.

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결의대회 연대사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측은 오직 생산량 향상과 저임금 정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휴스틸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쟁취해 내자”고 밝혔다. 노련은 휴스틸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MEMC코리아노조 임단협 총력투쟁 선언

천안에 위치한 MEMC코리아노조(위원장 임철승)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21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5일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과 함께 투표 조합원 93.3%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속노련-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개최

금속노련은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산업통상노조(VUIT)와의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의에는 김해광 수석부위원장과 5명이 참석하여 VUIT와의 간담회 및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시찰했다.

첫날 진행된 VUIT와의 간담회에서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27년째 교류하고 있고, 해마다 교류의 영역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노동부문에서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노동운동발전과 노동자 권익수호를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휘 VUIT 위원장은 “양국의 노동환경은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한다면 노동자들의 삶과 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정세전망, 제조업 정책 및 발전동력, 조직화 목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베트남 포드자동차, 디소코, 베트남스틸 공장 등을 시찰했다.

VUIT와의 교류회의는 노동자 권익수호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2015년 처음 교류를 시작하여 매년 양 조직이 번갈아 회의를 주최한다.

과로사 근절! 완전한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전국우정노조 총파업 출정식

1. 일시·장소: 7월 6일(토) 13시, 서울 광화문 케이낸스 빌딩 앞(집회 후 청와대 앞 행진)
2. 문의: 정태교 조직국장(02-6277-2007)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력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취!
2019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7월 10일(수) 제392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문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증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제이스텍/edam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총파업 출정식 개최 저임금 박살내고 정당한 노동대가 쟁취하자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엠이엠씨코리아노조(위원장 임철승)가 7월 9일 오후 4시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조합원 동지, 장재성 금속노련 충남본부 의장, 금속노련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을 20차례 넘게 진행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인상불가로 일관했다. 또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수십명에 이르지만 주주배당 등으로 거액을 지출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왔다.

임철승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전 조합원이 똘똘뭉쳐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연대사에 나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흑자임에도 저임금을 강요하는 회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노조의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금속 동지들이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최저임금연대 긴급 기자회견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 단체를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7월 8일 서울역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최저임금연대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사용자단체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과 최임위 노동자위

원 및 최저임금연대 핵심 간부 4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7월 3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4.2% 삭감안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성의있는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의 근거로 내세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벌·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한 경제구조 때문이다"고 강조한 후 "잘못된 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거리 선전전을 통해 최저임금 탓만 하는 사용자단체의 무성의한 태도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노동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입장문 발표하고 10일 오후 개최할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선언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자위원으로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임위는 7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금속노련 여성임원·중앙위원 및 대표자 간담회 개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7월 3일 오전 11시 SK하이닉스청주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련 여성임원·중앙위원 및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련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위원회 재건 방안과 교육사업, 여성위원회 규칙을 검토하고 차기 회의와 교육을 11월 6일-8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비 설계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체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7월 17일(수) 제9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인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www.kmliu.com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임금협상 타결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던 엠이엠씨코리아노조(위원장 임철승)가 16일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엠이엠씨코리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을 20차례 넘게 진행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인상불가로 일관했다. 또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수십 명에 이르지만 주주배당으로 거액을 지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경영을 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일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부분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임금협상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5% 인상, △상여금 75% 인상 △타결금 150만원과 1일 유급 휴가 등이다.

임철승 엠이엠씨코리아노조 위원장은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투쟁이 조직을 더 건강하고 단결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240원, 2.87%인상) 결정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심의 기한인 6월 27일을 훌쩍 넘겨가며 진행된 최저임금 논의는 7월 11일 오후부터 논의를 재시작하여 밤샘 논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 표결에 들어갔다. 최종 표결에서 노동계는 8,880원, 경영계는 8,590원을 제시한 가운데 을 통해 재직인원 27명 중 노동계안 11표, 경영계안 15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만재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가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참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7월 9일 오전 10시 50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2년전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고, 주요 노동의제로 ▲ 노조법 전면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 노동시간 주권과 좋은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및 산별대표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2020년 최저임금액 비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인상액
시급	8,350원	8,590원	240원
일급 (8시간)	66,800원	68,720원	1,920원
월급 (209시간)	1,745,150원	1,795,310원	221,540원

제12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참여 안내

1. 일시·장소: 8월 12일(월)~15일(목), 전국각지
2.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wiz-don@kinocho.org) 또는 팩스(02-6277-0077)송부
3. 참가비: 1인 80,000원(수협 416-01-00123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 프로그램: 통일선봉대 연대행사, 평화기행, 통일캠페인, 통일교육, 강제징용 노동자상 함배 등
5. 문의: 나병호 법규안전국장(02-6277-2008)
※참가신청서는 금속노련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가능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제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생체!
2019 입단부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9년 7월 24일(수) 제39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명안검인제 원협안검인제 서울시 명동로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조합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eforbu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최임위 노동자위원 탈퇴 /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7월 17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만재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처장, 경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후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노동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만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며 "중요한 결사상 하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금속 인천본부 '노사 상생문화 구축 위한 노시민정 토론회' 개최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는 7월 22일 오전 10시 금속인천본부 대강당에서 '노사 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노시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인상 금속인천본부 의장을 좌장으로 박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이 발제하고 김희종 다이후쿠코리아노조 위원장, 김일 인천경총 본부장, 황강연 노무사, 이정형 중부지방노동청 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최저임금, 주52시간, 탄력근무제도 노사의 방안'을 발제한 박상욱 정책국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실질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임금감소 문제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조항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경영무능력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이라며 "사회적합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본부 조직화 캠페인 전개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 멀지 않아

금속노련 포항본부(의장 정상준)는 7월 24일 오전 7시, 포항 형산강 로터리와 포스코 정문 일대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금속노련 동지들은 노동자들에게 노조 선전지를 배포하고 가입을 독려했다.

노련은 지역본부, 단위 노조들과 함께 적극 연대하여 20만 금속 시대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체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7월 31일(수) 제395호

【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대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4호 (02-6277-2000) (02-6277-2011) 팩시팩:02-6277-2011

포스코노조, 서울 포스코센터 앞 피켓투쟁 전개 사측은 기본급 동결 철회하라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인철) 교섭위원 6명은 7월 3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측의 성실한 임단협 교섭을 촉구' 하는 피켓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올해 진행된 13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7.2%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상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피켓투쟁을 시작으로 8월 1일 11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포항·광양제철소 상집 간부 전원이 상경하여 '산재척결 촉구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임단협 승리를 쟁취할 계획이다.

휴스틸노조,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 전면파업도 불사

충남 당진에 위치한 휴스틸노조(위원장 강경호)가 8월 중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올해에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안 제시를 거부하는 등 대화의 의지가 없어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7월 30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강경호 휴스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측은 오직 생산성 향상과 저임금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며 "하계휴가 이후 8월 16일과 19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6일부터 30일 사이 본사 앞 상경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현대모비스 직접고용 쟁취하자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위원장 원종민)는 9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현 시급 7,140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8,350원 인상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7월 23일 충북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비율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원종민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 위원장은 "충주 공장 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하여 당당하게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오성전자노조 임금협상 타결

경북 구미에 위치한 오성전자노조(위원장 권경찬)가 임금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노조는 작년 7월 설립되어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어 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했고 김성수 조직강화본부장과 권종덕 노사대책실장을 교섭단으로 꾸리고 배준호 금속노련 구미본부 의장의 적극적 지원 아래 사측과 수십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단은 오성전자노조 지난 5월 100여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7월 29일에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협상 타결 내용으로는 기본급 5.25% 인상과 상여금 120% 통상임금화, 중식대 1만원 미공제, 야근자 퇴근시 통근버스를 미제공할 경우 교통비 지급 등이다. 노련은 오성전자노조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위!
2019 임단협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8월 13일(화) 제396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임단협 위원장 김만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ukntu

김만재 위원장, KAI 노동조합과 간담회 항공산업 발전 책임자가 대표이사 선임돼야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위원장 김인덕, 이하 KAI 노조) 집행부가 8월 13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KAI의 재도약에 적합한 대표이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가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김인덕 KAI노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카이 대표이사의 오랜 공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항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이끌고 노조와도 상생의 기치를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내정될 수 있게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자국방위를 위한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며 “KAI에 적합한 대표이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련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KAI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역시 중요하다”며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노사관계 발전에도 적합한 인물이 선임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인덕 KAI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5명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노동조합, 201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포스코센터 앞 14일차 1인 시위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인철)은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201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14일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 ▲사업장 안전 등 조합원 권익보호대책 마련 ▲이익에 대한 경당한 분배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련은 포스코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휴스틸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전면파업도 불사

충남 당진에 위치한 휴스틸노조(위원장 강경호)가 8월 16일 대불공장, 19일 당진공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올해에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안 제시를 거부하는 등 대화의 의지가 없어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강경호 휴스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측은 오직 생산성 향상과 저임금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며 “노조는 전면파업도 불사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력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8월 21일(수) 제397호

【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메일주소:web@nklu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자안전 및 생활임금 보장 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금속노련은 8월 21일 오전 7시 포스코 포항본사 앞에서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자안전 및 생활임금 보장 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포항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정상준 금속노련 포항본부 의장, 포스코 사내협력사노조 조합원 400여명 등 총 700여명이 함께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포스코는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스코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회사 홍보활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향상에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구호를 통해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 △두 자릿수 임금인상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 △사내협력사 노동조합과 대화 등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LS산전노조 파업출정식 개최 저임금 강요하는 사측을 규탄한다.

LS산전노조(위원장 홍문기)는 8월 21일 오후 4시 입단협교섭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파업출정식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LS 산전노조 조합원 동지, 박태우 금속노련 총북

지역본부 의장, 금속노련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노조는 올해 입단협교섭을 6차례 진행하며 기본급 7.08% 인상과 경조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3.5% 인상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8월 8일 재의행위 찬반투표를 개최하여 투표인원대비 80.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홍문기 LS산전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조합원이 투쟁에 동참하고 집행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연대사에 나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혹자 입에도 저임금을 강요하는 회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노조의 승리를 위해 15만 금속 동지들과 함께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휴스틸노조, 압도적 비율로 총파업 의결

충남 당진에 위치한 휴스틸노조(위원장 강경호)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8월 16일 대불공장과 19일 당진공장에서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인원대비 95.6%의 찬성으로 재의행위를 가결했다.

휴스틸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검토안 제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강경호 휴스틸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8월 28일 본사 상경투쟁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9월 4일 총파업 출정식 및 전조합원 1일 파업, 9일 전조합원 3일 파업, 23일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속노련 창립 58주년 기념식

- ☑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 ☑ 장소 : 서울 여의도 전동정
- ☑ 문의 : 박선자 총무실장(02-6277-2010)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체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취!
2019 일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8월 29일(목) 제398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명안김만재 편집인김문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동6길 26 한국노동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okkntu

생존권사수를 위한 KCFT노동조합 상경 결의대회 개최
투기자본은 먹튀매각으로 배터지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금속노련 KCFT노조(위원장 최영진)는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KKR(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서울사무소 앞에서 “KKR 투기자본 먹튀매각에 따른 생존권사수와 매각차익 공평분배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KCFT노조 핵심간부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KCFT(과거 LS엠트론 동박사업부)는 2018년 3월 글로벌 투자사모펀드 회사인 KKR에 인수됐다. KKR은 KCFT를 인수한지 1년이 조금 넘는 2019년 6월 KCFT를 SNC에 1조 2천억에 매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최영진 KCFT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KCFT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3차례나 임금을 동결했고 현장 노동자 4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KKR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인 매각차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매각 후 고용보장도 없이 먹튀를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자본이 잘못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사측은 재무제표나 인사권 등 기본적인 경영상황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만 금속노련은 KCFT노조가 정당한 노동

의 대가를 갚아주고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동지들은 간부식발식과 조합원 다짐선언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다짐했다. 대회 마지막에는 KKR 서울사무소 주위를 행진하며 투기자본 규탄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회를 마친 최영진 KCFT노조 위원장과 집행간부 2명은 상급단체인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을 것을 부탁했다.

휴스틸노조, 서울본사 상경투쟁 전개 임금동결 박살내서 저가노동 뿌리뽑자!

충남 당진에 위치한 휴스틸노조(위원장 강경호)는 8월 2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임금인상과 노동환경개선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휴스틸노조 핵심간부와 충남 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노조는 올해에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여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안 제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참여했다.

이에 노조는 8월 16일과 19일, 전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파업 투쟁을 가결했다.

강경호 휴스틸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조는 28일 서울본사 상경투쟁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9월 4일 총파업 출정식 및 전조합원 1일 파업을 실시한다”며 “집행부를 믿고 뚝뚝뚝 끝까지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노련은 휴스틸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제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9월 4일(수) 제39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증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E:news@nkmu.or.kr

현대엘리베이터노조, 사측의 일방적 서비스 자회사 설립 규탄

30년간 무분규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던 현대엘리베이터노조(위원장 김중우)가 사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자회사 설립 강행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현대엘리베이터노조는 9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자회사가 설립되면 일감 몰아주기, 일괄 위탁 및 지역별 통제, 자회사 중심 역량강화, 자회사를 통한 수익의 외부 유출 등 투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부문 분사는 마치 자회사가 모회사를 거느리고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본사 서비스 인력 감소와 고용조건 악화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사측은 자회사 설립을 중지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련은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휴스틸노조 임금협상 타결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던 휴스틸노조(위원장 강경호)가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 노조는 9월 3일 임금교섭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가결했다.

휴스틸노조는 올해에 수 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여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안 제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참여했다.

이에 노조는 8월 16일과 19일, 전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파업 투쟁을 가결했고, 28일 전조합원 1일 파업과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임금협상 합의내용으로는 △기본급 5% 인상 △타결금 100만원과 정년 1년 연장 △정년차 연차수당 지급 △조합활동 보장 등 이다.

강경호 휴스틸노조 위원장은 “투쟁을 함께한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투쟁은 신뢰하는 노사관계로 회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노조 임단협 드디어 단체교섭 타결

서울반도체노조(위원장 박정훈)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에 노련은 조직본부를 중심으로 10개월간 수십 차례의 교섭 지원과 안산·시흥지역 동지들의 연대에 힘입어 노조사무실, 전임자 활동시간, 작업중지권 등을 담은 단체협약서를 8월 26일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

노련은 향후 노조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연대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자 경제' 교육 실시

한국노총제조연대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자 경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세계노동운동사 ▲한국노동운동사 ▲제조연대의 방향과 목표 등 노조활동을 하면서 쉽게 접하지 못하던 강의들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개강사에서 “이번 교육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제조연대가 500만 제조노동자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동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9월 24일(화) 제400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신문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E:news@jlab.or.kr

국제종합기계노조 파업출정식 개최 사측은 저임금정책 폐기하라!



국제종합기계노조(위원장 정재연)는 9월 20일 오후 2시 입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국제종합기계노조 조합원동지, 박태우 금속노련 충북본부 의장, 금속노련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노조는 올해 5월부터 12차례의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7.5%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1.45% 인상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충북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18일 부분파업에 이어 20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었다.

정재연 국제종합기계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견 조합원이 투쟁에 동참하고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연대사에 나선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은 국제종합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지배기업인 동양물산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넘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원칙 없이 저임금을 강요하는 회사를 규탄하며, 투쟁의 승리를 위해 15만 금속노동자들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자 안전 및 생활임금 보장 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

금속노련 포스코 사내협력사노조는 9월 19일 오전 7시 포스코 포항본사 앞에서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 안전 및 생활임금 보장 촉구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800여명의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사내협력사노조 조합원 및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지난해 포스코가 약속한대로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 임금을 원청사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외쳤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사내 협력사노조는 그동안 포스코에 수차례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포스코는 매번 만남을 거부했다”며 “상생이란 말을 약자에게 강요하고 구체적인 행동 없이 홍보활동에만 집중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노동자 150명 방사능 피폭 피해 진상규명과 대책요구 기자회견

안산에 위치한 서울반도체노조(위원장 박정훈)는 반월시화공단 건기전자업종 건강권 네트워크와 함께 9월 18일 11시 30분 서울반도체 정문에서 ‘방사능 피폭사고 은폐를 시도하는 사측을 규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정훈 서울반도체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사능 피폭 의심자가 퇴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50명이 넘을 것이다”며 “사측은 노동자들이 작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제시키고 문을 연상태로 일을 시켜 피해를 키우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방사능 피해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도 부당한 입력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반도체와 용역업체 대표를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계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0월 2일(수) 제40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www.kmca.or.kr

국제종합기계노조 임금협상 타결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던 국제종합기계노조(위원장 정재연)가 10월 1일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

정재연 국제종합기계노조 위원장은 9월 30일 조합원과 가진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 “바탕 기본급 5만원 인상과 타결금 70만원 지급키로한 합의 수준이 조합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4만원 인상과 타결금 80만원)과 모그룹사인 동양기계 합의(기본급 45,000원 인상과 타결금 80만원 지급)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2주간 24시간의 총파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전하고 “오늘의 파업 투쟁 승리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강력한 조직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프협력사 평택지부 단체교섭 타결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프협력사 평택지부(지부장 이주영)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10월 1일 최종 종료됐다.

서진캠프의 3개 협력사로 이루어진 서진캠프협력사 평택지부는 금년 2월에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하였고 노련이 3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 동안 직접 교섭을 주도했다.

타결 내용으로는 △시급 8,600원 △타결금 24만원 △수당 1만원 신설 △노조견임자 확보 등 노조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작업중지권 등 이다.

노련은 서진캠프협력사 평택지부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속일반노조 KCFT협력사지회 설립

금속일반노조(위원장 김만재) KCFT협력사지회가 설립됐다. 금속일반노조 KCFT협력사지회(지회장 김윤철)는 9월 30일 한국노총 청주시지부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권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준영 금속일반노조 부위원장은 김윤철 지회장에게 가맹 인준증을 건네며 “지회설립을 간심으로 축하하고 노조의 첫 임단협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철 지회장은 “동지들과 함께 단결과 연대를 통해 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10회 위원장기 전국노조대표자 체육대회 및 제9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 예정

금속노련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국에 있는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단결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며 축구, 족구, 야구윷놀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진행한다.

또한 10월 15일 오후 4시에는 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제9회 노동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노래, 율동, 풍물 총 15팀이 경연에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게 된다.

체육대회 및 노동문화경연대회 후원금 및 물품 협찬 안내

1. 협조사항: 지역, 사업장명, 후원물품, 수량, 예상금액 등을 적어 연맹 팩스(02-6277-2011)로 발송
2. 후원계좌: 수협 1010-1046-304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3. 문의 박선자 금속노련 총무실장(02-6277-2010)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9년 10월 17일(목) 제402호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9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www.kmu.or.kr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순항중



금속노련은 10월 10일 충남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16개 지역본부와의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충남지역본부와 서울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완료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간담회에서 2019년 금속노련 조직현황, 하반기 교육일정, ILO 결사의 자유협약 기준을 보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탄력근로시간제 등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민재 위원장은 충남본부 및 서울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금속노련이 제시하는 대응방안을 활용하여 올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10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김민재 위원장,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 출마 선언 -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강화를 위한 제10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가 금속노련 단위노조 위원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에는 금속노련 단위노조대표자, 지역본부의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산별위원장, 금속노련 선배님 등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전국에서 참석한 대표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금속동지들의 연대와 우정을 돈독히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섰지만 당초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철회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 등 노동정책이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재 위원장은 “오는 2020년 1월에 열리는 제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된다면 금속의 강인함과 협상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한 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체육대회는 15일(화) 축구와 축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16일(수)까지 축구, 족구, 줄다리기, 야구윷놀이, 이어달리기 5종목을 겨뤘다. 화합, 희망, 단결, 연대팀은 우승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그 결과 연대팀(서울, 인천, 충남, 충북, 대전)이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제10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함께 열려

- 노래패 율동패 풍물패 총15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 펼쳐 -

금속노련은 10월 15일 (화) 오후4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제9회 금속노련 노동문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노래 2팀, 율동 9팀, 풍물 4팀이 참석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다.

특히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경연대회 참가팀 전체가 무대에 올라가 '함께가자 우리 아길'을 합창하는 특별 공연이 진행되어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경연대회 결과 노래부문 금상은 '연대투쟁가와 바위처럼'을 부른 SK하이닉스청주 담쟁이, 율동부문 금상은 '동지가'를 공연한 대덕GS 가온, 풍물부문 금상은 '웃다리사물'을 공연한 대덕GS 천재일우가 차지했다.

제9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시상현황

노래 부문	금상	SK하이닉스청주 담쟁이
	은상	SK하이닉스이천 노동아리
율동 부문	금상	대덕GS 가온
	공동 은상	대동하이텍스 은혼, 스테츠침팩코리아 화살
	동상	플라이트 단심
	장려상	한국보그웨티에스 한우리, 세이레스빌 불꽃, 명화공업안산지부 & 남양엑스포 선포, 유니크 한동지, SK하이닉스청주 나물배
풍물 부문	금상	대덕GS 천재일우
	은상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에
	동상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장려상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제10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협찬현황

[협찬물품]

ASD코리아, KR모터스, LG전자, LS엠트론, PNM중년, SK하이닉스 이천, SK하이닉스청주, 가온전선, 귀뚜라미염장냉방, 노벨리스코리아, 니콘코리아, 대동도어, 대동하이텍스, 대원통상, 대우전자서비스, 대한전선, 도루코, 두울아산, 롯데알미늄, 리한, 리나이코리아, 삼영전자, 세론오토모티브, 세병전자, 세아창원특수강, 세원셀트랙, 스테츠침팩코리아, 심팩, 오스렘, 금속안전본부, 태양금속 테크솔루션, 토다이수, 포스코, 하나, 현대모비스, 식물노련

[협찬금]

K-MEC, SK하이엔지, 프리코지부, 서진산업, 경기본부, 이화다이어몬드, 삼아알미늄, 서진원, 다이후쿠코리아, 쉐프코퍼레이션, 동부연철스틸, 머큐리, 대한제당, 예스엘미러백, 대덕전자, 삼신, 세명테크, LS제일, 금속충남본부, 인지컨트롤스목천, 넥싱스코리아, 한리스텍, 충북본부, HL그린파워텍사, 한국특수전지, 두원중공업, 덴소코리아마산, 삼한, AST, 예스엘, 경원정공, 평화발레오, 영진, 화산, 평화산업, 카렉발레오, 평화오일빌, KEC, 금속구미본부, 열경크림거, 영통석포제련소, 태평양금속, 큐로, 세아특수강, 포스코

[후원해주신 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무정노조, 전국식물노련,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사노노동조합,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상남지역지부, 한국노총아산지역지부,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한국노총이천여주지부,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한국노총화성지역지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 부위원장,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변재환 금속노련 지도위원

많은 분들의 협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조할 권리쟁취! 노동법 개정 지지! 등 위한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13시
2.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3. 문의 : 노윤철 조직국장(02-6277-2008)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2]

노동적제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0월 31일(목) 제403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팩스:02-6277-2011 웹사이트:vkntu

삼성전자에도 노조 바람이 분다 - 화성공장 앞 조직화 캠페인 -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련은 10월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공장 앞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금속노련과 한국노총 핵심간부들은 노조 선전영상과 피켓을 통해 노조가입을 독려했다. 노련은 삼성전자노조 설립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반환점 돌아

10월 10일 시작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금속노련은 충남, 서울, 인천, 대구·경북, 울산·경주, 포항, 부산, 경기지역본부까지 총 8개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완료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간담회에서 2019년 금속노련 조직현황, 하반기 교육일정, ILO 결사의 자유협약 기준을 보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탄력근로시간제 등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은 31일 경기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노련이 제시하는 대응책을 활용하여 올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퍼스 아산지부 단체교섭 타결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퍼스 아산지부(지부장 김재운)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종료됐다.

서진캠퍼스 4개 협력사로 이루어진 서진캠퍼스 아산지부는 올해 5월에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했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10여 차례의 교섭을 노련이 직접 주도했다.

타결된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하기유급휴가 확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작업중지권 확보 등이고, 임금협약 내용으로는 △타결금 24만원 지급 △2020년 시급8,600원 △상여금 350%지급 △수당 신설 등이다.

기타 노조활동 쟁취사항으로는 △노조 전임자 및 조합간부 활동시간 확보 △노조 총회 및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적정인력충원 등이다.

노련은 서진캠퍼스 아산지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21일(목), 1박 2일
2. 장소: 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 금남로 234)
3. 대상: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4. 교육참가비: 3만 5천원
5. 교육내용: 글쓰기강좌, 소식지작성, 언론기사들 보는 관점,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방안
6.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11월 15일 마감)
7. 문의: 박강원 홍보부장(02-6277-2000)

노조원 권리쟁취! 노동법 개정 제지! 를 위한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13시
2. 장소: 여의도 국회 앞
3. 문의: 노윤철 조직국장(02-6277-2008)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1월 07일(목) 제40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E02-6277-2000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



금속노련에서 활동하는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조합 협의회는(이하 '노조협의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청문관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노조협의회 조합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0여명은 포스코에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중단 △위협외주화 철폐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임금대비 80% 인상 약속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포스코가 2005년부터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점수가 높은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하위업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노사관계 항목이 포함된 조직안정 분야 배점을 높여 하청노조를 길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탄압한다면 금속노련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벨리스크리아노조 총파업출정식 개최

노벨리스크리아노조(위원장 장만덕)는 11월 6일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노벨리스크리아노조 조합원동지, 금속노련 산하 단원노조 대표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노조는 올해 수차례의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일사금 150만원 지급, 도급계약라인 직원의 처우개선, 협상타결내용 명문화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해태했다.

장만덕 노벨리스크리아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전 조합원이 투쟁에 동참하고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아직 도 상당수의 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금속노련과 함께 승리의 기운을 모아 당당하게 투쟁을 돌파해 가자"고 강조했다. 노조는 11월 6일부터 8일(72시간)까지 3일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속노련 여성위원회의 출범

금속노련은 11월 6일 제주도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여성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여성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여성위원회 출범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내고 20여명의 여성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성위원들은 최해경 한국중천노조 위원장을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연맹 여성부위원장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최해경 위원장은 여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후배들이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후 여성위원들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여성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했다.

노조할 권리쟁취! 노동법 제정 지지! 등 위한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13시
2.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3. 문의 : 노윤철 조직국장(02-6277-2008)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체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치!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1월 12일(화) 제405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운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증서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제이스북/ednetu

생존권사수를 위한 KCFT노동조합 상경 결의대회 - 투기자본은 고용을 보장하고, 매각차익 분배하라 -



금속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만재) 케이씨에프티 테크놀로지스지부와 금속노련 KCFT노동조합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KKR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서울사무소 앞에서 “KKR 투기자본 먹튀매각에 따른 생존권사수와 매각차익 공평분배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련과 케이씨에프티 테크놀로지스지부, KCFT노동조합 핵심간부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사모펀드 회사인 KKR은 KCFT를 인수한지 1년이 조금 넘는 2019년 6월 KCFT를 SKO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최영진 KCFT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수차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지만 KKR은 노동자 노력의 산물인 매각차익을 분배하기는 커녕 고용보장도 없이 먹튀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KKR에 매각차익 10%를 요구하며 정당한 대가를 쟁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노조의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동조합 임금교섭 성공적으로 마쳐 - 상급단체-원청노조-하청노조 협력, 투쟁 모범사례 -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동조합(위원장 원종민)이 임금교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충주지역에 있는 현대모비스 협력사 7개로 이루어진 협력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금속노련에 가입했고 올해 5월부터 10월 초까지 5개월간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투쟁은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과 현대모비스노동조합(위원장 박태우), 협력사노동조합이 협력하여 상급단체-원청노동조합-하청노동조합이 유기적으로 투쟁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협력사노동조합은 5월 24일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충북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간까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결렬 이후 노동조합은 9월 24일 충주공장 앞에서 임단투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천막투쟁을 전개하여 사측에 흔들림 없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사측은 노동조합의 기세에 눌려 요구안 상당부분을 수용했다. 임금협상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49,000원 인상 △수습사원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상여금 200% 월단위 지급 및 통상임금 격승 △건강검진 지원 △학자금 신설 등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금속동지들이 연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노동조합을 높이 평가했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21일(목), 1박 2일
2. 장소: 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 금남로234)
3. 대상 및 비용: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3만 5천원
4. 교육내용: 글쓰기강좌, 소식지작성, 언론기사를 보는 관점,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방안
5.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11월 15일 마감)
6. 문의: 박강원 홍보부장(02-6277-2000)

노조권리쟁취! 노동법 개정 지지!를 위한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13시
2. 장소: 여의도 국회 앞
3. 문의: 노윤철 조직국장(02-6277-2008)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게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위!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9년 11월 19일(화) 제40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주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팩시팩:02-6277-2011

금속노련, 삼성전자에 노조 깃발을 꽂다

- 일방적인 소통문화 개혁 하겠다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 삼성전자노조(위원장 건윤석), 금속노련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 등과 함께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노조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건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영광은 회사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 선배들과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모든 성공을 경영진의 해안과 탁월한 경영 능력에 의한 신화로만 포장하며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 내 몸보다 낡기 일이 우선이었던 우리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갔고 살인적인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처사를 못 견디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출범식에서 ▲특권없는 노조 ▲항상 감시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노조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조 ▲일방적인 소통문화 개선 ▲급여 및 PS 산정 근거와 기준 투명화 ▲고과와 승진을 필미로 인사권 남용 방지 ▲퇴사 권고 등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50년 무노조 사슬을 끊고 삼성전자와 관계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노조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한다”며 “금속노련은 삼성전자의 조합원 확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영비리 척결과 민주적 경영을 위한 감사를 넘어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약 사측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면 15만 금속노동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삼성전자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18일 삼성전자 전사업장 동시다발 선전전, 홈페이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일정 규모의 조직화 이후 삼성전자 사측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금속노련,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금속노련은 11월 16일 오후 1시 국회앞에서 개최된 노조할 권리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 당장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노동자의 분노에서 시작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월 13일 금속노련에 가입한 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진운석)도 현장 투쟁발언으로 무대에 올라 10만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을 대변하는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노동 개악 시도 분쇄 및 노조할 권리 강화 법제도 개선 투쟁, 타임오프 현실화를 가로막고

반노동 개악의 첩병에 선 사용자단체 규탄 및 투쟁,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격하고 정의로운 사회 확립을 위한 노동시민 사회와의 굳건한 연대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제42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차기 임원선거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1시, 잠실 실내체육관

한국노총은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제42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차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할 정기선거인대회 일정을 심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 배정 확정, 소집공고 등의 일정을 거친 후 오는 12월 30일 부터 1월 3일 까지 입후보자 등록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9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점검 및 세부계획 ▲한국노총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일본 단바 망간기념관 관광 초청 후원행사 ▲(준)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고됐다.

또한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단바 망간기념관 이용식 관청을 초청해 11월 21일 부터 23일 까지 후원행사를 갖기로 했다.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국 동시다발 홍보선전전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2]

노동적계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1월 28일(목) 제40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명 서울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이메일:web@ntu

금속일반노조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지부 총파업출정식 매각차익 분배와 고용안정 보장하라



금속일반노조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지부(지부장 최영진)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정읍공장 앞에서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지부 조합원동지, 전북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KKR은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한지 1년이 조금 넘는 2019년 6월 SKC에 1조 2천억에 매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매각차익에 대한 공평분배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재정부담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라고 있다"며 "15만 금속노련은 노조가 정당한 노동대가를 쟁취하고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유엠노조 분리매각 반대 투쟁



자동차 밴드 케이블을 생산하는 케이유엠노조(위원장 장기현)가 사측의 생산공장 일부 매각추

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유엠은 2018년 말 기준 매출 1777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600억원 규모의 국내 자동차 밴드 케이블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량회사이다. 글로벌 외투 법인인 애플티브는 작년 5월 케이유엠을 인수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수익성이 많은 증주 투자공장을 분리매각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증주·음성지역에 있는 한국노총 조직과 연대하여 25일부터 매일 공장 앞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맹은 케이유엠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강산업노조 상경 파업투쟁 포스코케미칼은 계약종료 통보를 철회하라



금속노련 세강산업노조(위원장 김재식)는 11월 25일 낮 12시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계약종료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상경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로부터 지난 1996년 분사하였고 60여 명의 직원이 연 70~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현 김진만 사장의 임기를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장했다. 하지만 2019년 초 포스코케미칼이 김진만 사장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거부하자 12월 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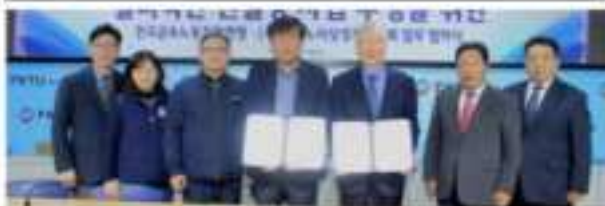
김재식 세강산업노조 위원장은 "경영진 간 사장

자리를 두고 일어난 다름에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가 책임지고 있다”며 “포스코케미칼은 계약종료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세강산업에 올해 초 노조가 설립됐고 이 사실이 계약종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포스코 본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강산업노조는 12월 2일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련,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금속노련은 11월 27일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제도도입 컨설팅 ▲노사파트너십 향상 교육 및 자문 ▲일터 혁신 컨설팅 ▲퇴직예정자 교육 및 창업관련지원 컨설팅 등을 연맹에 지원하게 된다.

금속노련, 단바망간기념관에 후원금 전달 단바 기념관을 살리자! 역사를 지키자!



김단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22일 한국노총이 주최·주관한 ‘단바망간기념관 이용식 관장 초청·후원 행사’에 참석하여 이용식 관장에게 후원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단바망간기념관은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제일조선인 하이정호씨와 가족들이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1987년 개관했으나 관람객 감소로 폐관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단바망간기념관을 연 하이정호씨의 아들이자, 현 단바망간기념관 관장인 이용식씨를 초청해 후원행사를 진행했다.

연맹은 단바망간기념관을 금속 동지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실시



금속노련은 11월 20일 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홍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이은지 강사(풀북 대표)의 카드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모바일 홍보방안을 시작으로 ▲쉬운 글쓰기(유이분 작은책 편집부장) ▲노동자의 시각에서 언론 보도보기(김연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소식지 작성(박강원 금속노련 홍보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개강사를 통해 “홍보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참석자들은 카드뉴스제작 강이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선출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관 동지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정관 의장은 대유에이텍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속노련 지역본부 의장 회의 개최

1.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5시
2. 장소: 금속노련 대전지역본부 회의실
3. 안건: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건/삼성전자 조직화 경과보고의 건/현안문제 토의

노동적제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2월 5일(목) 제40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9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webmhu

금속노련, 지역본부의장 회의 개최

-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12월 23일~24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확정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재, 이하 금속노련)은 12월 4일 오후 3시, 하반기 사업보고를 위한 지역본부의장회의를 금속노련 대견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금속노련 김민재 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장同志们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통해 금속노련의 하반기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와 삼성전자 전략조직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금속노련은 매년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파견 선거인 및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선출 이후 집행부 변경, 자격상실 등으로 기 선출된 선거인 및 대의원이 다음 해 1월~2월에 개최되는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선거인 및 대의원으로 교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속노련은 가맹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5월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자투표(모바일)를 통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금속노련 규약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본부 의장들은 임시대의원대

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으며, 12월 23일~24일 양일간 전자투표(모바일) 방식을 통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노총 파견 선거인 및 파견 대의원의 교체가 필요한 가맹노조는 공문을 확인하여 반드시 교체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신규조합원 1만 명 달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조직화에 있어 지역본부와의 연대를 통해 전략조직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련, 문화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금속노련은 12월 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문화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율동부문, 노래부문, 풍물부문 등 13개 팀 28명의 문화패원이 참석하여 2019년 10월 15일에 개최된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에 대한 평가와 토의를 진행했다.

문화패원들은 이날 회의에 이어 6일까지 워크숍을 진행하며 금속노련 노동문화 활성화, 공통활동 보급, 금속노련 연합문선대 결성 방안 등 향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체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20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20년 2월 13일(목) 제409호

한국노총·금속노총·한국노총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무사:맹동호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02-6277-2000 FAX:02-6277-2011 웹사이트:allnetu

금속일반노조 KCFT협력사지부, 단계적 전원 복귀 쟁취!

2019년 12월 30일 가업에 돌입하여 56일째 강고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일반노조 KCFT협력사지부(지부장 김은철)가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맞서 단계적 전원 복귀를 쟁취했다.

KCFT협력사지부는 가업에 들어가기 전 노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유리한 조건으로 사측과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정의 지급보증이 없는 약속이었고, 무엇보다 원정지부인 KCFT지부의 가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합의였기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교섭을 부결시키고 가업에 돌입했다.

이후 KCFT협력사지부는 KCFT지부와 단일한 대외로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협력사가 아닌 KCFT원정에 소속된 여러 협력사들로 나뉘어져 고용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전원이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전파능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투쟁은 KCFT협력사지부와 KCFT지부가 함께한 투쟁이어서 그 승리가 더욱 값진 결과이며, 협력사지부와 원정지부가 하나로 단결해 사측에 맞서 투쟁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 구조에서 원정과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승리가 가능하고 이런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한 KCFT협력사지부를 지원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20만 조직화의 길도 여기에 있기에 이번 승리를 계기로 협력사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모집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은 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개정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맞서 법률대응을 위

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소위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는 △갑작스러운 시설·장비의 고장에 수습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단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특별연장근로 인정사유 확대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일반적 경영상 사정’에까지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실노동시간단축 정책이 무력화될 것이기에 정책의 취지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서 △소송인단 모집 △‘불법연장노동 고발센터’ 설치 △인가승인 남발에 대한 특별감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행규칙이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제186차 중앙위원회 개최

금속노련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8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교육일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법률대응 △20만 조직화사업 추진 현황 △입단투 지역순회 일정 △가예산승인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 △2020년도 입단투지침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규정 제정 △일반노조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모집

- 대상 : 노동자 누구나
- 기한 : 2월 14일(금) 15시까지
- 신청 : 위임장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 (금속노련-20-034 공문 참조)
- 문의 : 나병호 법규안전국장(02-6277-2006)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자의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20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20년 2월 20일(목) 제41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본맹인김정란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fortlu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출범식 기자회견 개최 - 삼성의 일방적 경영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공동위원장 이창완, 김정란)은 2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이창완, 김정란 공동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누릴 수 없었으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사이동, 사실상의 해고인 퇴직권고, 독단적인 규정 변경 등에 고통 받고 시달려 왔다.”며 “그러나 어떠한 노동자의 목소리도 사원으로서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성과급 몇 푼 더 받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았다.”며 “소통부재, 일방적 경영과 부당인사이동 등 수년 간 지속된 피해를 극복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리하고자 출범한 것으로 모두가 단결하고 연대하여 우리의 희망과 가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김정란, 이창완 공동위원장 동지에게 힘찬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며 “삼성이라는 자본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에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사 5개 노조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명의 동지라도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측은 15만 금속노동자들의 거친 반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이창완, 김정란 공동위원장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가입원서를 받고 있고, 추후 활동방향과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선전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제186차 중앙위원회의

- 일시 : 2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노총 13층 대회의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생체!
2020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20년 3월 31일(화) 제41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만재 편집인: 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웹사이트: wllnetu

제186차 중앙위원회 개최!

- 8.4% (184,736원)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는 지난 3월 19일(목)에 제18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86차 중앙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을 생각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중앙위원회에 —가예산승인건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한 건 —2020년도 임단투지침(안) 확정건이 상정됐다.

총 참가자 수 70명 중 63명이 참가했고, —가예산승인건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한 건은 100% 찬성 —2020년도 임단투지침(안) 확정건은 95% 찬성으로 3가지 안건 모두 의결됐다.

금속노련 중앙위원회는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5월 14일(목) 오후 13시 30분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실시한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지 결과 분석과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에 근거해 8.4% (184,736원)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금속경남본부 제3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금속노련 경남지역본부(의장 이상철)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6층 강당에서 제39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임기대회로 손승일 위원장(세방전지)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싸우며 현장을 지키는 동지들이 고맙고 걱정된다.”며 “코로나19에 이어 경제위기가 예견된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경제위기에 대응해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암산업노조 상경투쟁!

- 포스코와 성암산업은 노동3권 인정하러 생권보장하러! -



금속노련 성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은 포스코의 주주총회가 있던 3월 27일 8시 포스코센터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한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성암산업노동조합은 성암산업의 본청인 포스코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항의,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는 포스코에 규탄했다.

성암산업은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인해 포스코와 한 계약을 어겼기에 ‘작업권 반납’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성암산업이 ‘작업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의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가 갑의 관계에 있는 원청에게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작업권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부분파업을 하자마자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대체근무자를 파견하는 행위는 계획적이고 준비돼있었다. 성암산업의 행태를 보면 포스코의 개입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의 포스코와 성암산업의 행태는 그동안 사측의 노조와해 공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성암산업노동조합 박옥경 위원장은 “노동법 위에 포스코가 있다. 노동3권을 합법적인 절차에 걸쳐 행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불법·부당행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단결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성암산업 뒤에있는 포스코가 본질이다.”라며 “지금부터 금속노련의 투쟁은 포스코를 상대로 한다. 노동3권의 권리를 누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속노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 성명서 및 논평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27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서울반도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서울반도체는 산업재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

2017년 9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오던 이가영님이 4월 8일 밤 사망했다. 서울반도체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조치도 없이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일하다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다.

고 이가영님은 힘든 치료를 견뎌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2018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이 고 이가영님의 악성 림프종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2019년 1월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가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병마와 싸워오던 고 이가영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일하다 병에 걸렸고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낀다.

4월 10일 발표된 서울반도체 입장문에 따르면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면서도 고 이가영님의 사망과 작업장 근무 환경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반도체는 지금이라도 고 이가영님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 이가영님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고 이가영님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업종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대책마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 4. 1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3일 환경부는 폐수 유출을 이유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5월 13일 영풍석포제련소에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6월 19일 청문회 개최 이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업정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수 배출 시설인 이중용벽조의 부적정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용벽조는 경상북도의 인허가를 받은 오염방지시설로써 폐수가 강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이다. 환경부의 조사 당시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폐수가 이중용벽조를 거쳐 우수저장소로 이동했으나, 이는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인 이중용벽조와 우수저장소가 적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전혀 누출되지 않았으며 정화처리 후 최종방류구로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두고 환경부는 잘못된 폐수 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조업정지 기간 중 2차 환경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일관 생산 공정 특성상 사전 준비 작업 및 사후 정상화까지 1년여가 소요되며, 경북 및 강원 지역 주민의 생활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금속산업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무방류 공정을 도입하고 제련소 및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청문회를 통해 폐수 유출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영풍석포제련소가 역을한 조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영풍석포제련소노동조합과 함께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친화적 사업 이행을 환경단체보다 더 강도 높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9. 6. 1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명동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 전국우정노동조합 동지들의 총파업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 우정사업본부는 완전한 주5일제 실시로 집배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

올해에만 무려 9명에 달하는 집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는 집배노동자들이 연 2,745시간이라는 초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내몰린 결과이자 참사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과로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 2,000명을 증원하기로 이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무책임하게 예산 핑계만 대며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집배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호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집배노동자 2,000명 증원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증원 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지부장 상경투쟁, 전국순회 투쟁 등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집배노동자 증원에 힘써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집배노동자들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사합의를 즉시 이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우편서비스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전반적인 사태 파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우정노동조합의 7.9 전면 총파업 투쟁 결의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집배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 6. 2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논평**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5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에 대한 논평 -**

드디어 그들이 선을 넘었다.

무식의 소치라고 하기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막말과 저주에 가깝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 발언에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유계약제를 만들겠다 하였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죽어가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10세 이하 아동노동이 판치고 노동시간의 규제조차 없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세기로 돌아가길 꿈꾸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노동조합 할 권리 역시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보장한 권리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도 핵심협약을 통하여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이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노동조합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도저히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누가 사라져야 하는지 명확해 졌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해 졌다.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근기법이 아니라 21세기 노예제도를 꿈꾸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다.

2019. 7. 5**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삼성전자의 구시대적 작태, 이제 그만!

- 삼성자본은 '삼성전자노조'를 언제까지 적으로 간주할 것인가 -

지난 29일 오전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진운석 이하 삼성전자노조은 전 직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전제 노동자들에게 삼성전자노조가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기존에 노조가 있는 타 회사의 복지현황을 담은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사측 인사팀관계자는 이메일발송 직후 노조에 이메일 삭제를 요구하고 사규위반임을 경고해왔다. 그리고 노조가 자진 삭제를 거부하자 오후 12시를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발신을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미 읽은 이메일조차 개개인의 계정에서 모두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삼성전자 사측의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 금속노련은 두 가지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첫째,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어떻게 바로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 간부에대한 감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행위는 사측 인사팀에 의한 개인사찰이다.

둘째, 전 직원 중 상당수가 이미 읽은 이메일을 어떻게 모두 삭제할 수 있는가? 아무리 사내전산망이라고 하지만 이미 직원들이 확인하고 개인 수신함에 저장되어있는 이메일까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불법행위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삼성전자 사측의 작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노조는 지난 1월 6일에도 전 직원에게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사측은 이번과 같이 사규위반이라며 전부 삭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사내 이메일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 내용 등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통창구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알권리침해이며, '인격권침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행위로서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우리 금속노련은 이번 '노조이메일삭제'사건을 계기로 실낱같이 풍었던 삼성자본과 이재용회장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기로 했다. 저들의 입에 발린 반성문은 늘 그랬듯 허울뿐인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우리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은 삼성전자노조출범 초기부터 출근 이재용 회장에게 부끄러운 무노조경영의 비뚤어진 유희를 버리고 시대에 맞는 경영을 할 것을 권고해왔다. 밑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금계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삼성자본에게 우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언제까지나 잡초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금속노련은 '이메일 삭제사건'을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삼성전자 인사팀의 개인사찰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삼성자본은 이번이 진정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기 바란다.

2020. 1. 3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한국노총을 더럽히지 마라!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촛불로 심판받은 반노동정권과 그 적폐세력들이 다시 꿈을 대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세력들은 '혁신통합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의 시계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선거놀음에 빠져있다.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 벌써 잊었는가!

노동자유계약으로 노동자에게 '일하다 죽을 자유'를 강요하고, 최저임금 동 결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막아서며,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을 주장하는 반노동 적폐세력 아니던가.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대수가 노동계를 대표 하여 참여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다. 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던 말인가! 우리 한국노총 조합원은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다.

개인의 명달을 위하여 한국노총의 규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의 이름을 팔아먹은 이적행위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즉각적으로 상임부위원장 박대수의 임원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과 현장 조합원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한국노총을 염원한다!

2020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탐욕을 채우려는 경총은 각성하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총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며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의 건의안에는 해고 기준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제조업 파견 허용, 쟁의행위시 대체노동 허용, 법인세를 인하, 상속세 인하 등 40개의 건의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고 경영자들만 배 불리는 것들로 가득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각 나라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경총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탐욕스런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총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경총은 경제위기 때마다 쉬운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경총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경총의 본질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지금도 의료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나가야 하는 시기에 경총은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경총은 지금 즉시 건의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긴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3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여성 문화활동

1.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333
가.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총회 구성 및 회의	333
나. 금속노련 여성임원 및 중앙위원회 선출	337
다.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338
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기타활동	339
마. 회의활동	341
2. 여성정책 활동	342
가. 한국노총 여성대표성 및 성평등실태조사	342
나. 여성간부 현황 및 성평등 실태조사	347
3. 제11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49
가. 3.8 세계여성 날에 대한 카드뉴스	349
나.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년도별 슬로건	353
4. 노동문화활동	355
가. 문화패 현황조사	355
나. 제 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	356
다. 금속노련 문화패 연대활동	366

1.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가.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총회 구성 및 회의

1) 금속노련 여성임원 및 중앙위원 간담회

가) 목적

-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여성간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금속노련 부위원장. 회계 감사. 중앙위원과 여성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함

나)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3일(수) 11:30
- SK하이닉스청주 회의실(충북청주 SK하이닉스3공장)

다) 참석자

- 세진전자 윤복현위원장. 두올아산 정란홍위원장. 한국중천 최해경위원장. 삼성공조 이정희 위원장. 한전금속 김지영위원장.SP일레맥 황경숙위원장.SK하이닉스이천 한승연부위원장. LG디스플레이 오지수 여성차장. 한국보그워너에스 김귀녀 사무국장. 스태츠칩팩코리아 이기화 부위원장. 현대모비스 모경임 부위원장. 금속노련 김영미정책본부장. 박선자 총무실장

라) 회의결과

(1) 여성위원회 규칙을 검토함.

- 2003년 제정된 여성위원회의 규칙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여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함.
- 위원회규칙을 검토후 수정보완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으로 결의받기로 함.
- 여성위원회 규칙 변경(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고용전반에서의 <u>성차별 철폐</u> .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고용전반에서의 <u>평등노동권 확보</u> 를	2항을 간결하게 정리

직장내성희롱예방을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활동 6. <u>각국의 여성위원회와 교류 및 협력 활동</u> 8. 금속노련 산하 각급 여성위원회의 활동지침 작성 및 지도.감독	위한 정책 활동 6. 타산별 여성위원회와 교류 및 국제연대활동 8. 금속노련 산하 각급 여성위원회의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문구 정리 문구정리
제6조【임원】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u>의장</u> : 1명 2. <u>부의장</u> : 약간명 3. <u>간사장</u> : 1명 ② <u>의장 및 부의장은 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장은 의장이 임명한다.</u> ③ <u>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 ④ 의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약간명의 간사를 위촉한다.	제6조【임원】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국장 : 1명 ② 위원장은 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u>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금속노련 집행부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u> ④ (삭제)	명칭변경 현실적으로 집행부와 다르게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집행부임기와 함께 가는 것으로 정리 필요에따라 기획위원회를 둘 수있는 것으로 대체
제7조【임무】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u>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u> 2. <u>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u> 3. <u>간사장은 위원회 사업을 관장한다</u>	제7조【임무】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2.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u> 3.사무국장은 위원회 사업을 관장한다	명칭변경
제8조【회의】위원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u>매년 9월중에</u> 의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기본정책 및 운영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2. <u>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u>	제8조【회의】위원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기본정책 및 운영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회의의 목적에 따라 정기총회를 9월로 정하지않고 상하반기로 나눠 조직화 하기로

우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수행사업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각종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우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수행사업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삭제)	함.
---	--	-----------

(2) 차기 여성위원회 회의 및 교육개최 건

- 일 정 : 2019년 11월 6일 ~ 8일(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 여성위원회 회의와 교육을 함께 하기로 결의함.

(3) 기타토의

- 여성위원회가 탄탄해 질 때까지 함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함.

2) 여성위원회 총회 및 교육

가) 목적

- 여성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속노련에서 여성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의 역량강화와 조직강화를 위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함

나)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 제주도 오션스위치

다) 참석자

- 여성위원

라) 여성위원회 총회 일정

- 위원장 인사말
- 여성위원회 역할과 간부의 자세
-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 여성위원회 임원구성
 - 위원장: 최해경위원장, 부위원장: 연맹 부위원장 전원
 - 자문위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정영숙 이사
 - 사무국장: 김영미
- 이후 활동에 대한 토의
- 4.3 유적지 탐방

마) 여성위원회 총회 평가

- 여성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여성위원장을 선출. 또한 여성부위원장도 지명하고 사무국장도 지명함으로써 여성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여성활동을 위한 여성위원회를 발족함.
- 여성위원회 위원과 함께 여성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여성위원회가 힘있게 활동하기로 함께 결의함.
- 제주도 방문에서 4.3 기행이 처음인 간부가 대다수이다 보니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연맹에 감사함을 표시함.
- 상근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좀더 많아지고 간부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부들의 이후 활동이 기대됨

바) 여성위원 명단

번호	소 속	직 책	성 명
1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2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3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4	두올아산	위원장	정란홍

5	두올아산	사무국장	문양희
6	금화소재	위원장	김숙화
7	삼성공조	위원장	이정희
8	한전금속	위원장	김지영
9	에스피일레멕	위원장	황경숙
10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모경임
11	LG전자	여성부장	정혜영
12	하이텔서비스	사무국장	최은희
13	ASE코리아	부위원장	김정수
14	ASE코리아	여성부장	안경선
15	LG디스플레이	여성차장	오지수
16	LG디스플레이	여성차장	조소희
17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한승연
18	SK하이닉스이천	지원실장	정주연
19	SK하이닉스이천	문화실장	이경희
20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이기화
21	핸즈코퍼레이션	여성부장	김정임
22	남양넥스모	여성부장	이화단
23	엠이엠씨코리아	여성복지부장	천영미
24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주연
25	SK하이닉스청주	문화소통부장	오선희
26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김귀녀
27	한국보그워너T/S	운영위원	박은주
28	삼성제침	부위원장	박순천
29	유니크	사무국장	김현진

나. 금속노련 여성임원 및 중앙위원회 선출

1) 선출기구 및 일정

- 기구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 일정 : 2019년 5월 14일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

2) 여성의 참여 확대

노총파견 여성대의원	노총파견 여성중앙위원	금속노련 여성대의원	금속노련 여성중앙위원
19 명	4 명	74 명	6 명

3) 임원현황

이 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 고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부위원장
윤복현	세진전자	위원장	부위원장
한승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부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부위원장
정란홍	두올아산	위원장	부위원장
오지수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부위원장
조소희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회계감사

4) 중앙위원현황

이름	소속사업장	직 책	비 고
정혜영	LG전자	여성부장	
이기화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김정수	ASE코리아	부위원장	
김귀녀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한주연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이정희	삼성공조	위원장	

다.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 기구 :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일정 : 2020년 2월 26
- 장소 : 온라인 개최

이 름	소속사업장	직책	이 름	소속사업장	직책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정란홍	두울아산	위원장
윤복현	세진전자	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기타활동

1) 목적

-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회의)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노총과 각급 조직 여성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향과 실천과제 논의
- 노총 산하 각급조직 여성대표 참여를 통한 여성대표성 제고
- 각급 조직 여성위원회 활동 역량을 통한 여성위원회 위상 제고 및 조직간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2) 개요

- 일시 : 2019. 12. 3(화) 14:00
- 장소 :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
- 참석인원 : 여성위원138명중 금속노련 14명

3)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13:30~14:00	등록
개회식 14:00~15:00	노동의례 활동영상 상영 개회사_최미영 여성위원장 격려사_김주영 위원장 축사_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정애 의원 공로패 수여_김령자 선배, 정영숙 선배, 김순희 선배 내빈 소개_최미영 여성위원장 기념촬영

15:00 ~ 15:15	휴식
본회의 15:15~17:00	1. 성원보고 2.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구성 - 여성위원 구성 - 임원 임명 - 자문위원 위촉 3. 2018년 여성위원회 총회 결과보고 4. 2019년 활동보고 - 한국노총 여성활동 보고(여성대표성 현황 발표) - 각급조직 여성위원회 및 여성활동 보고 5. 2020년 활동 방향 - 한국노총 여성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안) - 노총 여성위원회 활동방향에 따른 조직의견 수렴 6. 2020년 노총 임원선거에 따른 임원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의 건 7. 기타 토의 8. 결의문 채택-문현정 여성위원(충남세종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9. 딸들아 일어나라 제창
17:00	폐회 선언

4) 주요 내용

○ 성원보고

- 여성위원회 재적위원 138명 중 참석인원 107명(77.5%)로 2019년도 여성위원회 총회가 성립됨

○ 여성위원회 구성

-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여성위원 138명으로 구성 통과됨
- 임원 임명 :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여성위원회 임원 변동에 따라 5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함
(최해경 금속노련 여성위원장)
- 자문위원 위촉 :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정영숙 전 사무처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

○ 2018년도 여성위원회 총회 결과보고

○ 2019년도 활동보고

- 한국노총 여성대표성 현황 발표

- 대한산업보건협회노조 여성위원회 활동사례 발표
- 원안대로 여성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안) 통과
- 2020년도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따른 임원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의 건
 - 임시총회 일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여성담당자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5) 여성위원 명단

성 명	단위노조명	직 책	성 명	단위노조명	직 책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한주연	SK하이닉스청주	위원장
윤복현	세진전자	위원장	최은희	하이텔레서비스	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김현진	유니크	위원장
정란홍	두올아산	위원장	이정희	삼성공조	위원장
한승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지영	한전금속	부위원장
조소희	LG디스플레이	여성차장	김영미	금속노련	본부장
오지수	LG디스플레이	여성차장	박선자	금속노련	총무실장

마. 회의활동

1)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 일시 : 2019년 4월 5일
- 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 논의 안건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결과보고
 - 여정원 공동, 노조 내 여성대표성 실태조사 계획
 -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을 위한 현장 정책제언 집담회
 - 성평등 노동교실 계획(안)

2)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 일시 : 2019년 9월 9일
- 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 논의 안건
 - 1~8월 여성 활동 평가 및 과제
 - 하반기 여성사업 계획(안)

2. 여성정책 활동

가. 한국노총 여성대표성 및 성평등실태조사

1) 취지 및 목적

- 본 조사는 성평등한 노동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양대노총이 추진한 연구 사업으로 노사관계에서의 여성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았음.

2) 개요

- 사업 주최 :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사업
- 조사 대상 :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 전수조사
- 조사 기간 : 2019. 7. 1(월) ~ 8. 9(금)
- 조사 방법 : 팩스를 이용한 설문조사
- 조사 응답자 : 단위노조 위원장 및 사무국장(또는 여성담당)
- 조사 내용
 - 노조 조직 및 규약 현황
 - 남녀 임원 및 집행간부 현황
 - 성평등 관련 규약·규칙 제정 유무

- 여성할당 관련 규약·규칙 유무
- 성평등 관련 단체협약 현황

3) 조사결과

○ 기본현황

- 공공노련 12개(6.4%), 금융노조 29개(15.5%), 화학노련 20개(10.7%), 금속노련 38개(20.3%), 자동차노련 19개(10.2%), , 공공연맹 10개(5.3%) 등 19개 산별연맹에서 187개 단위노조가 응답함.

○ 사업장 규모

- 1000인 이상 58개(31%), 300~999인 53개(28.3%), 100~299인 52개(27.8%), 50~99인 17개(9.1%), 5~49인 7개(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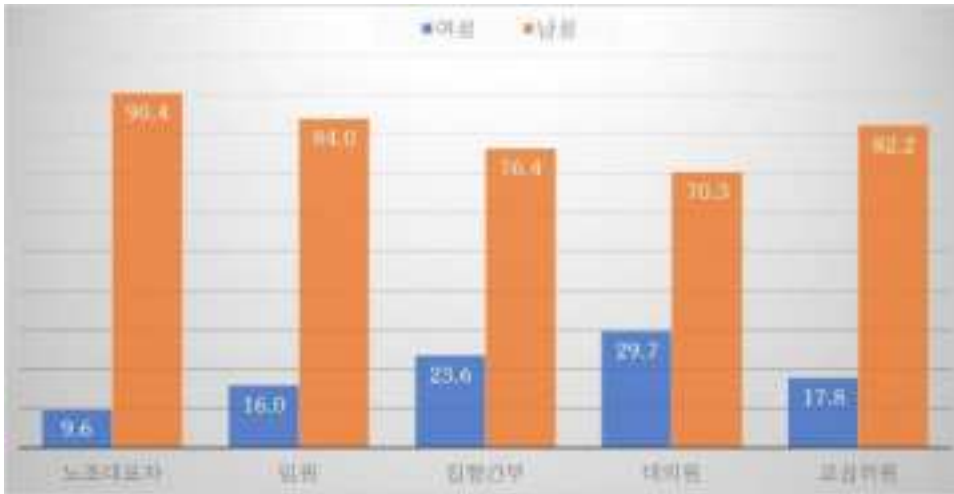
○ 여성노동자 비율

여성 노동자 비율	N	(%)
10% 미만	60	(32.8)
10% 이상 - 20% 미만	26	(14.2)
20% 이상 - 30% 미만	21	(11.5)
30% 이상 - 40% 미만	16	(8.7)
40% 이상 - 50% 미만	21	(11.5)
50% 이상	39	(21.3)
전체	1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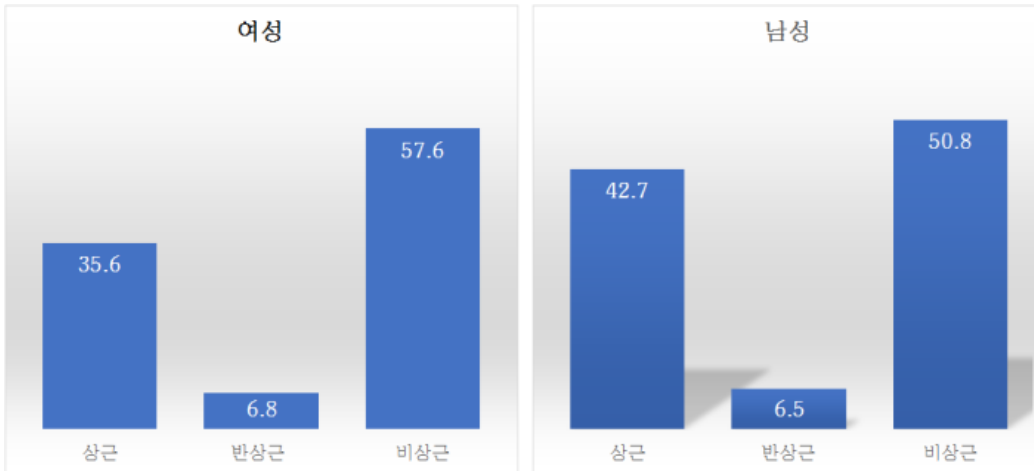
○ 여성조합원 비율

여성 노동자 비율	N	(%)
0%	46	(24.6)
1% 이상 - 10% 미만	25	(13.4)
10% 이상 - 20% 미만	19	(10.2)
20% 이상 - 30% 미만	16	(8.6)
30% 이상 - 40% 미만	20	(10.7)
40% 이상 - 50% 미만	43	(23.0)
50% 이상	18	(9.6)
전체	1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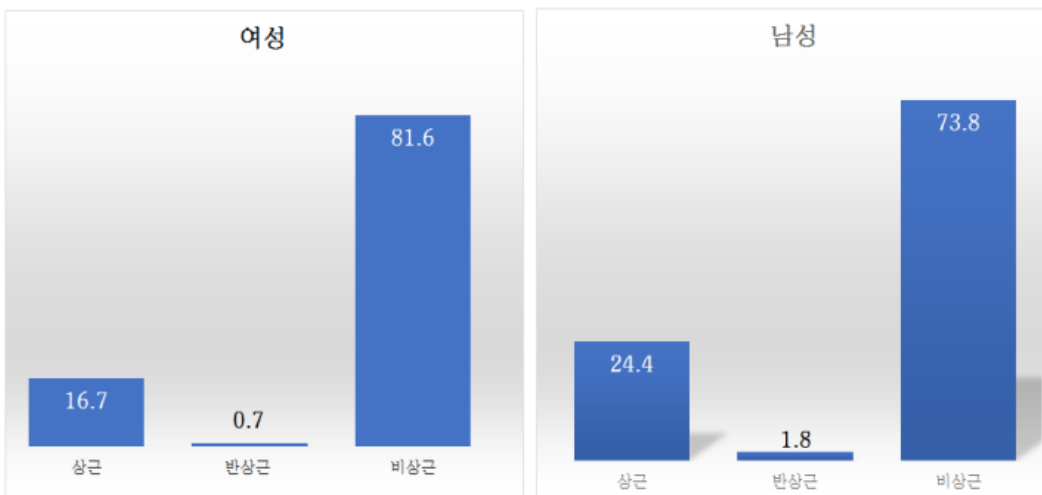
○ 남녀 임원 및 집행간부 현황



○ 임원 근무형태



○ 집행간부 근무형태



○ 성평등 관련 규약·규칙 제정 유무

구분	예(있음)	아니오(없음)	전체
여성할당제 제정 여부	16(9.0)	162(91.0)	178(100.0)
여성위원회 제정 여부	34(18.9)	146(81.1)	180(100.0)
성평등위원회 제정 여부	15(8.4)	164(91.6)	179(100.0)
성희롱, 성차별 전담기구 제정 여부	58(32.0)	123(68.0)	181(100.0)
여성, 성평등 사업계획 제정 여부	55(30.6)	125(69.4)	180(100.0)
여성, 성평등 전담부 제정 여부 (여성본부 또는 여성국 등)	68(37.4)	114(62.6)	182(100.0)
여성, 성평등 사업 예산 배정 여부	54(29.8)	127(70.2)	181(100.0)

○ 여성할당 관련 규약·규칙 유무

구분	예(있음)	아니오(없음)	전체
대의원 여성 할당 존재 여부	17(9.6)	161(90.4)	178(100.0)
임원 여성 할당 존재 여부	21(11.7)	159(88.3)	180(100.0)
임금·단체교섭위원 여성 할당 존재 여부	14(7.8)	165(92.2)	179(100.0)
교육·연수 기회의 여성 할당 존재 여부	29(16.1)	151(83.9)	180(100.0)
타임오프 사용시간의 여성 할당 존재 여부	9(5.1)	169(94.9)	178(100.0)
해외교류·연수, 국제(산별노조)회의 여성 할당 존재 여부	14(7.8)	166(92.2)	180(100.0)

○ 성평등 관련 단체협약 현황

구분	예(있음)	아니오(없음)	전체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42(24.7)	128(75.3)	170(100.0)
- 응답노조 38개 출산전후휴가 : 90일 52.6%, 90일 이상 180일 47.4% - 응답노조 33개 유사산휴가 : 10일 이하 12.1%, 10일~30일 24.2%, 30일 이상~90일 51.5%, 90일 이상 12.2%			
배우자출산휴가	163(89.1)	20(10.9)	183(100.0)
- 응답노조 76개 사업장 : 3~5일 42.9%, 6~10일 50%, 11일 이상 7.1%			
여성 육아휴직	143(81.3)	33(18.8)	176(100.0)
- 응답노조 66개 사업장 : 12개월 미만 1.5%, 12~24개월 74.1%, 36개월 24.2%			
남성 육아휴직	135(73.8)	38(26.2)	183(100.0)
- 응답노조 132개 사업장 : 남성 육아휴직 촉진 조항 여부 : 있다 20.5%, 없다 79.5%			

임신기 근로 시간단축	110(61.1)	70(38.9)	183(100.0)
- 응답노조 25개 사업장 : 1일 2시간보다 더 단축 12.0%, 임신 주수 상관없음 80.0%, 기타 8.0%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86(48.0)	93(52.0)	179(100.0)
- 응답노조 17개 사업장 : 유급으로 시간단축 허용 52.9%, 주당 30~35시가 허용 11.8%, 기타 35.3%			
노동안전보건, 재생산 건강 관련	43(24.9)	130(75.1)	173(100.0)
휴가.휴직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화	46(26.7)	126(73.3)	172(100.0)
채용시 성차별 금지 협약 존재 여부	92(49.7)	93(50.3)	185(100.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성차별 금지 협약 존재 여부	77(42.1)	106(57.9)	183(100.0)
승진시 성차별 금지 협약 존재 여부	89(48.4)	95(51.6)	184(100.0)
성희롱 예방교육 또는 성평등 교육 협약 존재 여부	156(84.8)	28(15.2)	184(100.0)
성평등 교육시 직접교육 의무화 협약 존재 여부	97(53.3)	85(46.7)	182(100.0)
성평등 교육시 노조와 사전협의 협약 존재 여부	74(40.4)	109(59.6)	183(100.0)
적극적고용조치(AA) 정보 공개 협약 존재 여부	42(24.1)	132(75.9)	174(100.0)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협약 존재 여부	55(30.2)	127(69.8)	182(100.0)
가족돌봄휴직 청구 시 보장 협약 존재 여부	90(50.3)	89(49.7)	179(100.0)
성희롱 고충위원회에 여성위원 30% 이상 협약 존재 여부	46(25.6)	134(74.4)	180(100.0)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협약 존재 여부	102(57.0)	77(43.0)	179(100.0)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여부	41(23.6)	133(76.4)	174(100.0)
생리·보건 유급 휴가 협약 존재 여부	102(56.0)	80(44.0)	182(100.0)
동일노동 동일임금 협약 존재 여부	110(62.1)	67(37.9)	177(100.0)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 차별 금지 협약 존재 여부	118(66.3)	60(33.7)	178(100.0)
신규 채용의 성별 비율 자료 제공 여부	142(78.5)	39(21.5)	181(100.0)
승진 직원의 성별 비율 자료 제공 여부	138(76.2)	43(23.8)	181(100.0)
성별 임금 격차 자료 제공 여부	127(70.9)	52(29.1)	179(100.0)
교육, 훈련, 연수 선발 직원의 성별 비율 자료 제공 여부	128(73.1)	47(26.9)	175(100.0)
적극적 고용조치(AA) 현황 및 자료 제공 여부	109(63.0)	64(37.0)	173(100.0)

나. 여성간부 현황 및 성평등 실태조사

1) 목적

- 노조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여성조직 실태 파악 및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하고 여성조직 확대 및 여성 과소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전략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2) 개요

- 조사대상 : 25개 회원조합 및 16개 시도지역본부
- 조사기간 : 2019. 8. 26(월) ~ 9. 6(금)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팩스조사
- 조사내용
 - 규약·규정상 성평등 기구 제도화 및 운영현황
 - 정책 및 의사결정 등 모든 수준에서의 여성참여 및 대표성 수준
 - 성인지적 통계 유무
 - 성별분리통계 현황 유무 등

3) 조사결과

- 규약·규정상 성평등 기구 명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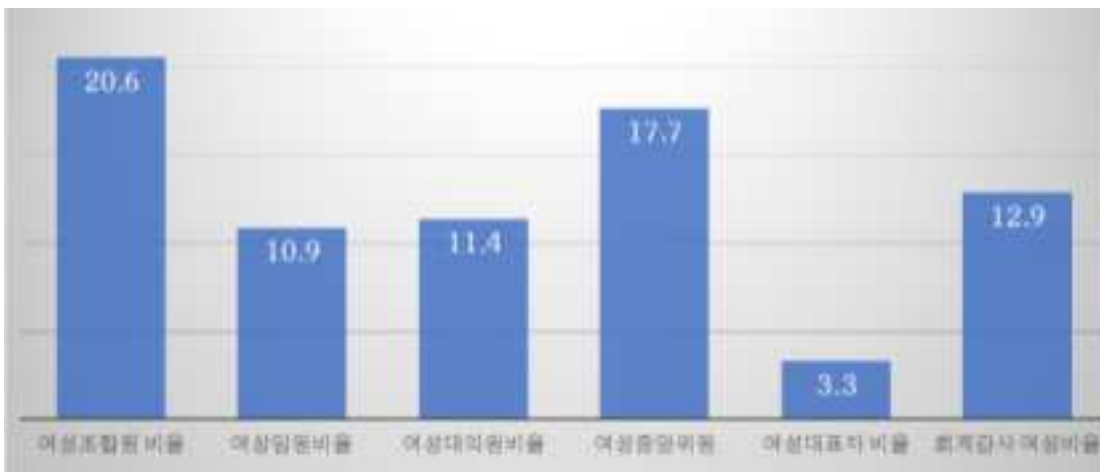
○ 여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 여성위원장 상근 : 금융, 우정, 철도사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회원조합 산하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 공공노련(3), 금융노조(13), 금속노련(2), 우정노조(8), 공공연맹(1), 의료노련(11) 이상 6개 회원조합 38개 조직
- 여성위원회 예산 : 섬유유통노련, 공공노련, 금융노조, 우정노조, 철도.사회산업노조, 의료노련,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 여성사업 부서가 있는 경우

- 회원조합 : 상근 51.9%, 비상근 48.1%, 여성업무 전담 27.8%
- 지역본부 : 상근 41.2%, 비상근 58.8%, 여성업무 전담 50.0%
- 여성사업비 : 회원조합 57.6%, 지역본부 25%(대부분 지자체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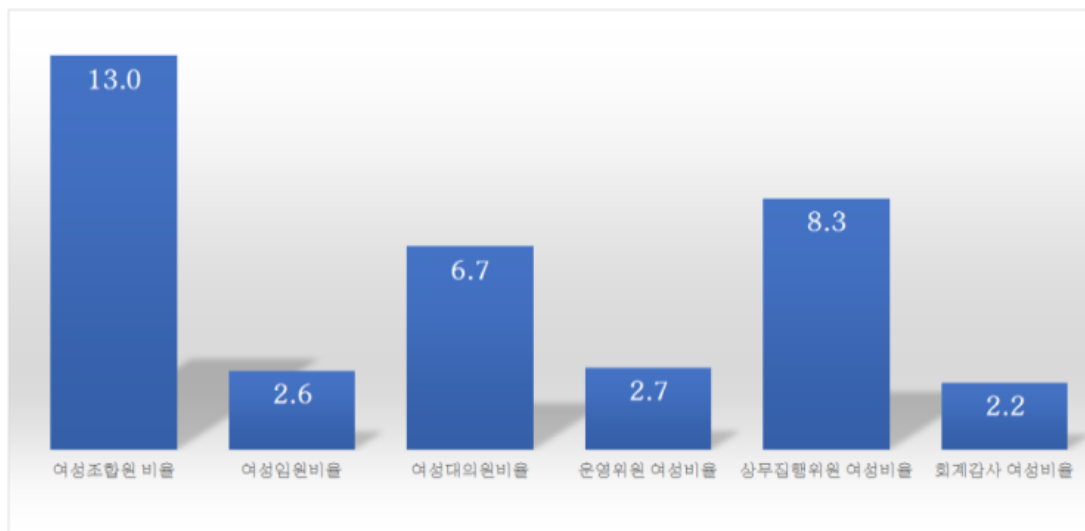
○ 회원조합 여성대표성



○ 회원조합 여성조합원 30% 이상 조직 여성대의원 현황



○ 지역본부 여성대표성



3. 제11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20년 111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카드뉴스로서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가. 3.8 세계여성 날에 대한 카드뉴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하루 12~14시간 고강도 노동에 지친 이들은 거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시간 노동제 철폐, 작업환경 개선, 성차별적 대우 개선, 정치권 불투명 보임!"



여성의 투쟁이 총파업으로 번져 1910년에는 '의류노동자연합'이 탄생하고 매년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10년 8월에 열린 제2차 국제여성사회주의자대회에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에 의해 세계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1911년 3월 19일, 첫 번째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후 각국에서 공휴일, 법정기념일 등의 형태로 여성의 날이 지정되었고, 1922년부터 매년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권투성이 발휘되는 여성의 날은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여성의 의식과 조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계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세계 여성의 날' 중





우리나라는 1920년대 중반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 격변기에 연혁이 끊어졌다가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고,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 왔을까요?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3월 8일을 세계여성들의 날로 기념하기로 합니다.

勤勞女性大會 개최

노동여성은 「세계여성의 해」의 첫걸음으로 18일 최초로 2차 전국여성대회 「근로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여성들 통한 근로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선언하고, 여성근로자의 일반 경제적 향상과 결혼지각의 중요, 일당일 노동으로 경제 생활 양식개선 등 여러 가지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975년 3월 18일,
세계여성의 해 사업으로 「근로여성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가 한국노총에서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한 첫 행사입니다.

大會宣言文

현재, 우리여성들의 물질적생활, 세계 48국이
노라이노 그라이노 활동하며 경제지적생활은
우리가 해야하는 숙제를 이해할 수 없고

현재, 일당일 노동의 원칙 아래있는 우리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지각 3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당연하고있는 동시에 보상의
결핍지각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이나라 사회
의행 주류가 아닌 이나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당하지는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은 일당일 노동
당일 노동 노동자들의 투쟁과 투쟁투쟁으로
만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로써를 그로로가 해결하여
본인들 우리들 그로로가 해결할 것이다.

이제 우리 공화국 근로여성들은 통일된 「세계여
성의 해」를 맞이하여 오늘 지각지각의 경제적
향상과 여성의 사회적, 국적 노동조합활동이
필요를 통해 우리로써를 그로로로로 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 투쟁을
계속할것을 언약하여 결의한다.

당시 대회에는 400여 명이 모여
정년차별, 결혼퇴직강요, 저임금장시간노동 철폐와
모성보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1975년 첫 대회 이후 10년 만인
1984년 5월 21일,
두 번째 근로여성대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근로여성의 조직화대.”

이 대회는 「여성 및 연소노동자(근로자) 보호
감조기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여성노동자의 권리, 자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역대 슬로건

1984년 이후, 근로여성대회,
전국근로여성대회, 근로여성 및 연소자대회,
여성 및 연소노동자대회 등
여러 이름으로 대회가 개최되었고,

1989년 5월 30일, 처음으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제로 열렸는지 살펴볼까요?

1984.05.21 근로여성회 조직화대
1985.05.20 행동하고 단결하면 생활의 실현
1986.05.21 행동하고 단결하면 생활의 보장
1987.05.26 여성노동의 편모와 공동생활을 위한 활동과제
1988.05.30 노동조합 여성활동 과제와 방향
1989.05.30 여성노동자의 미래 오늘과 내일의 전망
1990.05.30 여성노동의 행동·투쟁과 모성보호
1991.05.29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
1992.05.21 여성노동의 통일가치·통일노동·통일행동 확보
1993.05.26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적대사실 척결실현
1994.05.26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고용안정·모성보호 실현
1995.10.31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공동생활·모성보호 실현
1996.10.11 고용안정·고용행동·모성보호
1997.10.11 모성보호·고용안정·조직화대
1998.10.21 고용안정·조직화대·고용행동

2000.03.08 조직화대의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003.03.08 평등의 시작, 여성할당제!
 2004.03.08 일하는 여성! 정치의 주인으로!
 2005.03.08 다함께 여는 평등의 새날!
 2006.03.08 여성노동자, 절반의 액션! 미완의 액션!
 2007.03.08 일상의 정치, 생활의 정치
 2008.03.08 여성노(女)리(女)리(女)리(女)
 2010.03.08 여성노동자여, 지역정치와 함께하라!
 2011.03.08 강한 노조에 여성이 있다
 2012.03.08 일어나라! 참여하자! 여성리더!
 2013.03.08 일찍 낳기로 나는 평등세상
 2014.03.07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
 2015.03.07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
 2016.03.08 여성노동자에 일어나라! 이제는 투쟁이다!
 2017.03.08 100만 조합원 총투표로 정권교체! 적폐청산!
 친노동자 정권 수립!
 2018.03.08 여성이 희망이다 노동이 미래다
 2019.03.08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



올해 한국노총 여성활동의 슬로건은

“성평등, 조직화의 시작”

올해 한국노총은 조직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노동조합의 과제입니다.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
 곧 조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조직화의 시작이 되는
 성평등한 노동조합을 이루기 위해

- ① 성인지적 관행 강화, 여성간부 역량강화
- ②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
- ③ 여성할당제 정착으로 여성대표성 강화
- ④ 노조 내 여성위원회 설치 및 강화

를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와
 한국노총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 여성활동을 위해,
 성평등한 노동운동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나.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년도별 슬로건

- 부녀 및 연소노동자 보호 강조기간 (5월 중) : 1968(제1회) ~ 197
- 1975년 3월 18일 근로여성대회 - 세계여성의 해
- 1986년 5월 21일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
- 1987년 5월 28일 여성노동의 평등과 균등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 1988년 5월 30일 노동조합 여성활동 과제와 방향
- 1989년 5월 30일 여성노동자의 어제 오늘과 내일의 전망 - 제24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 보장 강조기간
- 1989. 3. 6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발표<3.8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차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 1990년 5월 30일 여성노동의 평등·발전과 모성평화 - 제25회 강조기간
- 1990. 3. 8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발표 <여성노동의 평등·발전과 모성보호정책을 촉구한다!>
- 1991년 5월 29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모성평화 - 제26회 강조기간
- 1992년 5월 21일 여성노동의 동일가치·동일노동·동일임금 확보 - 제27회 강조기간
- 1993년 5월 26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탁아시설 확충실현 - 제28회 강조기간
- 1994년 5월 26일 여성노동의 고용평등·고용안정·모성복지 실현 - 제29회 강조기간
- 1995년 10월 31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균등발전·모성복지 실현 - 제30회 강조기간 (10월로 변경)
- 1996년 10월 11일 고용안정·고용평등·모성보호 - 제31회 강조기간 One+One 여성의 힘
- 1997년 10월 11일 모성보호·고용안정·조직확대 - 제32회 강조기간 One+One 여성의 힘
- 1998년 10월 27일 고용안정, 조직확대, 고용평등
- 1998. 3. 8 세계여성의 날 90주년 기념대회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양대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공동주최)
- 1998. 2. 23 ~ 3. 8 3.8기념 사이버(CYBER) 토론회 (주제: 해고, 실업문제/비정규직 문제)
- 1999년 10월 27일 [주제누락]
- 1999. 3. 6 세계여성의 날 91주년 기념대회 “[주제누락]”(양대노총, 여성노동단체 공동주최)
- 2000년 3월 8일 조직확대와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0. 10. 24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제누락]”
- 2001년 3월 8일 [주제누락]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1. 2. 6 ~ 3. 8 3.8 여성의 날 기념 사이버 토론회 (주제: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의 걸림돌은?)
- 2002년 3월 8일 [주제누락]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3년 3월 7일 평등의 시작, 여성할당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4년 3월 8일 일하는 여성! 정치의 주인으로!
- 2005년 3월 8일 다함께 여는 평등의 새날!
- 2006년 3월 8일 여성노동자, 절반의 역사! 미완의 역사!
- 2007년 3월 8일 일상의 정치, 평등의 정치
- 200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2009년 3월 5일 여(女)노(勞)여(女)락(樂)
- 2010년 3월 8일 여성노동자여, 지역정치와 통(通)하라
- 2011년 3월 8일 강한 노조에 여성이 있다
- 2012년 3월 8일 일어나자! 참여하자! 여성이여!
- 2013년 3월 8일 양쪽 날개로 나는 평등세상
- 2014년 3월 8일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
- 2015년 3월 8일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
- 2016년 3월 8일 여성노동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투쟁이다!
- 2017년 3월 8일 100만 조합원 총투표로 정권교체! 적폐청산! 친노동자 정권 수립!
- 2018년 3월 8일 여성이 희망이다 노동이 미래다
- 2019년 3월 8일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
- 2020년 3월 8일 성평등, 조직화의 시작

4. 노동문화활동

가. 문화패 현황조사

1) 목적

- 사업장내의 문화패 구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조직활동에 문화활동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문화패를 구성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문화패 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 조사결과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율동/노래/풍물	비 고
1	한국보그워너T/S	한우리	율동	
2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율동	
3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풍물	
4	SK하이닉스이천	노동아리	노래	
5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풍물	
6		날개	율동	
7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풍물	
8		하울	율동	
9		담쟁이	노래	
10	명화공업/TRW연합	선포	율동	
11	대덕GDS	천재일우	풍물	
12		가온	율동	
13	세아베스틸	개벽	풍물	
14		불꽃	율동	
15	매그나칩반도체	초아	율동	
16	유니크	한동지	율동	
17	영신정공	서평	풍물	
18	대동하이렉스	은혼	율동, 풍물	
19	솔라이트	솔라이트	율동	
20	LS산전	깃발	율동	

나. 제 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

1) 문화담당자 및 패장회의

가) 목적

- 제9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에 관한 전반사항을 각 조직 문화담당자와 패장 논의
- 2019년 금속노련 문화사업 논의
- 단위노조 문화담당자들과의 연대 강화 및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14일(금) (1박 2일)
- 장소 : 공주 솔향팬션

다) 참석자

- 단위노조 문화담당자: SK하이닉스청주 김영삼 외 19명

라) 토의안건

(1) 제1회~8회에 걸친 노동문화경연대회 경과보고

- 2005년 1회 울동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017년 8회 노동문화경연 대회(울동, 풍물, 노래)까지 개최했으며, 2019년 10월 15일 9회 개최 예정

(2) 제8회 노동문화경연대회 평가의 건

- 경품을 늘려 관객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인책 강화
- 음향이 울리지 않게 좋은 업체 선정하고 장비 보강요청
- 지역본부의장들의 관심과 지원요청

(3)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 건

- 일시 : 2019년 10월 15일 오후 4시30분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
- 울동, 풍물, 노래 3개 경연부문

○ 경연대회 관련 일정

- 2월 21일 제 18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결정
- 5월 1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 확정
- 6월 13일 문화담당자 및 패장 회의 개최
- 6월 20일 단위노조에 경연대회 실시 확정 및 참가신청 공문 발송
- 워크숍 이후 경연대회 참가자 신청 등 계획서 공문발송
- 8월 16일 참가팀 신청접수 마감 예정

○ 참가팀 유의사항

- 율동패: 5분이내, 3인이상, MR참가자 준비
- 노래패: 5분이내, 3인이상, MR참가자 준비, 민중가요 및 노동가로 한정
- 풍물패: 10분이내, 3인이상, 악기는 각자 준비, 풍물 사물 제한 없음
- 경연순서: 경연시작 전 각 사업장 패장이 추첨

○ 시상부문

- 각 부문별로 4팀 이상 출전시: 금, 은, 동, 장려상
- 각 부문별로 4팀 미만 출전시: 점수로 평가하여 상을 정한다.

예를 들어 90점 이상시 금, 80점 이상시 은, 70점 이상시 동,
60점 이상시 장려상.

○ 제9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준비 기획단 구성

- 8회에 이어 축하공연을 심사평이전에 하고 초대가수 없이 대회 참가자 전체가 합창하는 것으로 하기로 함.
- 마지막 심사 시간에 위원장의 선창으로 무대에 오르고 경연대회 참가자 전원은 무대에 올라 “함께 가자 이길”을 합창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세밀한 부분은 기획단에서 논의 하기로 함
- 구성 역할 등을 연맹본부에 위임하기로 함.
- 대회개최 후 참가팀 각2명씩 평가워크숍 진행요청
- 경연대회 페이스북 생중계

(4) 금속노련 노동문화 활성화 방안

- 단조에서 요청시 노련에서 문화 강사를 파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

(5) 금속노련 공통활동 보급 방안

- 파업가, 철의 노동자, 단결투쟁가 3곡의 공통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패사업장 중심으로 공통활동을 활용한 모습을 찍어서 문화패 밴드에 업로드

2)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준비기획단 1차 회의

가) 일정 및 장소

- 2019년 7월 29일(월) 13시 30분
- 금속노련 회의실

나) 참석

- 기획단 김영삼 사무국장, 이기화부위원장, 김귀녀 사무국장, 김영미 금속노련 본부장, 박강원 홍보부장

다) 회의 결과

○ 문화담당자회의 결과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경연대회 순서
- 노동의례
- 대회사
- 심사위원소개
- 경연대회
- 심사평
- 축하공연
- 발표 및 시상
- 폐회
- 다함께 부르는 노래(철의 노동자)

○ 축하공연

- 곡명: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 참가자 전원이 김만재 위원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
- 무대를 오를 때까지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무대에 좌우로 나눠 올라갈 것 공지.
- 참가자 전원에게 미리 음악파일과 가사를 배포
- 형광봉을 이용해(400개 준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킴

○ 관중 독려의 건

- 경연대회 참석하는 대표자들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경품추천을 하고 좀더 많은 상품을 확보할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의견개진

○ 무대배경 및 걸개그림

- 경연대회 대강당 무대의 걸개그림을 새로이 하여 공연팀의 공연을 빛나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공연자를 돋보이게 하는 경연대회만을 위한 걸개그림 제작요청

○ 심사기준

- 율동 : 예술성, 기술성, 표현성, 창의성, 협동성
- 풍물 : 창작성, 단결력, 표현력, 조화력, 호응동
- 노래 : 박자,음정,가사전달, 가창력, 무대매너

○ 경연대회 평가워크숍

- 참가팀에서 각2명(패장1 패원1)이 참여하는 평가워크숍 제주도 개최.
- 일시는 12월 4일(수)~6일(금)

○ 음향 및 조명 업체선정

- 8회 경연대회에서 음향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많음. 무대조명 밝게 요청 있음.
- 노래패가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음향 및 마이크 세팅 등에 관심을 요함.

○ 제 2차 기획단 회의 일정

- 참가팀 접수 완료후 접수한 팀의 패장들과 함께 대회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회의를 하자는 의견

3) 대회 준비기획단 2차 회의 및 경연대회 참석팀 패장회의

가)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5일(월) 13시 30분
- 충북지역본부 회의실

나) 참석

- 노련본부: 김영미 정책본부장, 박강원 홍보부장
- 단위노조: 김영삼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외 12명

다) 회의결과

○ 문화담당자회의 결과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준비기획단 1차회의 결과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와 진행에 관한 건

○ 축하공연

- 예년과 동일하게 함.
- 곡명: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참가자 전원이 김만재 위원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
- 무대 앞쪽 중앙에는 김만재 위원장, 관객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 앞은 SK하이닉스이천 노래패, 오른쪽은 SK하이닉스청주 노래패가 선다.
- 어수선한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무대에 좌우로 나뉘 올라갈 것 공지.
- 김만재 위원장과 울동패, 풍물패 참가자 동지들은 왼쪽 오른쪽 나뉘 미리 빨리 올라가고, 공연이 시작하면 SK하이닉스이천 노래패와 SK하이닉스청주 노래패가 무대에 오른다.
- 가자 전원에게 미리 음악파일과 가사를 배포
- 광봉을 이용해(400개 준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킴

○ 관중 독려의 건

- 추천상품 수량을 50개 이상 확보 요청

○ 심사 기준표

번호	심 사 기 준 (품물)					합계
	예술성 (20)	기술성 (20)	표현성 (20)	창의성 (20)	협동성 (20)	
1						
번호	심 사 기 준(율동)					합계
	창작성 (20)	단결력 (20)	표현력 (20)	조화력 (20)	호응도 (20)	
1						
번호	심 사 기 준(노래)					합계
	박자 (20)	음정 (20)	가사전달 (20)	가창력 (20)	무대매너 (20)	
1						

○ 기타의견

- SK하이닉스이천 마이크 5개 스탠딩으로 요청.
- 문화패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다같이 모여 워크숍 가는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 문화패 전체가 모여서 금속노련 공통울동을 연습할 수 있는 자리마련 요청
- 11월 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금상팀이 공연하기로 함
- 리허설은 도착순으로 할 수 있음.

라) 참가팀 현황

- 노래 2팀, 율동 9팀, 품물 4팀 총 15개팀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부문	참가곡명	인원
1	대덕GDS	가온	율동	동지가	7
2	대동하이렉스	은혼	율동	다시 싸움을	11
3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우리	율동	길 그 끝에 서서	5
4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율동	비상	4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부문	참가곡명	인원
5	세아베스틸	불꽃	울동	추후통보	4
6	명화공업안산지부 &남양넥스모	선포	울동	소나기&비정규직철폐가	10
7	유니크	한등지	울동	바위처럼	6
8	SK하이닉스청주	너울패	울동	연대투쟁가 + 포장마차	5
9	솔라이트	솔라이트울동패	울동	동지가	7
10	대덕GDS	천재일우	풍물	웃다리사물	13
11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풍물	모듬북	5
12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풍물	하울림 만파식, 고	9
13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풍물	삼도사물놀이	9
14	SK하이닉스이천	노동아리	노래	한 걸음씩	9
15	SK하이닉스청주	담쟁이	노래	연대투쟁가 + 바위처럼	6

4) 제 9 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가) 취지

- 지난 2005년 대표자 체육대회와 함께 시작되었던 노동문화경연대회는 10회를 개최하였고 금속노련 9회를 앞두고 있다. 많은 사업장들에서 문화패를 만들고 유지하고 없어지고하면서 꾸준히 활동해온 문화패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본노련은 단위사업장에서 문화패를 필두로 조직력을 강고히 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대회에 관한 사항

-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16:30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경기 여주)
- 경연부문 : 울동, 노래, 풍물(사물, 풍물)
- 참가단위 : 한 사업장에서 각 종목별 한 팀만 출전가능

다) 대회 순서

- 노동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대회사
- 심사위원 소개
- 경연대회
- 연맹 위원장, 참가팀 합창(함께 가자 이길)
- 심사평
- 발표 및 시상
- 폐회 (철의노동자)

라) 경연대회 결과

노래부문	금상	SK하이닉스청주 담쟁이
	은상	SK하이닉스이천 노동아리
율동부문	금상	대덕GDS 가온
	공동은상	대동하이렉스 은혼,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동상	쏠라이트 단심
	장려상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우리, 세아베스틸 불꽃, 명화공업안산지부 & 남양넥스모 선포, 유니크 한동지, SK하이닉스청주 너울패
풍물부문	금상	대덕GDS 천재일우
	은상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동상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장려상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마) 평가

- 노동문화 경연대회를 9회차 걸치면서 율동, 풍물, 노래 3부문이 모두 출전하면서 훨씬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전체적으로 금속노련의 노동문화경연대회가 명실상부 문화패의 자랑이 되었으며 훨씬 수준높은 실력들을 뽑내는 대회가 되었다. 새로운 사업장들의 출전도 빛났으며 대회를 진행하면서 워크샵, 회의, 평가 워크샵까지 진행하면서 참가자 전원이 함께 한 대회가 되었다.
- 많은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함께 금속노련의 노동문화경연대회는 금속조직의 최강 사업이 되었음을 볼수 있는 대회였다.

5)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평가워크숍

가) 목적

- 단위노조 문화패는 투쟁의 선봉에서 활동을 해왔다. IMF이후 투쟁과 교섭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 문화패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금속노련에서는 문화패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문화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고 올해 제9회에 이르렀다. 문화패의 활동은 조직강화의 가장 핵심이다. 강한조직에 문화패가 있고 문화패가 있는 조직이 강한조직임은 잘 알고 있다. 이에 노동문화경연대회를 마치고 문화패들의 진행과정과 대회이후의 평가를 하고자 함.

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 6일(금)
- 장소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회의실

다) 참석

- 노련본부: 김영미 정책본부장, 이익선 차장
- 단위노조: 김영삼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외 28명

라) 워크숍 진행내용

- 문화담당자회의 결과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준비기획단 1차회의 결과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준비기획단 및 참가조직 패장회의 결과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와 진행 결과 보고
- 제9회 노동문화경연대회 영상 상영후 평가회의
- 기타평가 토의내용
 - 역대 최대 팀이 참석한 것은 그동안의 연맹과 현재의 문화패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
 -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른후 연맹에서 대회를 하면 좋겠다.

- 매년 문화패 워크숍 진행요청
- 현장의 조합원들이 평균연령이 높아서 후배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 경연대회에서 순위를 하지말고 문화제형식의 대회였으면한다
- 스탠드마이크 먹어서 소리가 잘 안들렸다.
- 각 사업장의 문화패 유지, 새로운 멤버구성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야한다.
- 마지막에 다같이 율동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한국노총에서도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 노총 11.16일 금.은상팀 공연 자랑스러웠고 금속문화패의 위상을 높임
- 대표자들의 저조한 참가율을 높이는 부분에 좀더 고민해보자
- 제주도 4.3 사건의 역사적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행으로 문화탐방이 너무 좋았다.

다. 금속노련 문화패 연대활동

1) 우정노조 결의대회 연대

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 집회

- 일시 : 2019 년 4 월 15 일 14:00
- 장소 : 청와대 사랑채앞
- 참석팀 : 대동하이렉스 은혼

나)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 집회

- 일시 : 2019 년 5 월 23 일 13:30
- 장소 : 청와대 사랑채앞
- 참석팀 : 스탠츠허팩코리아 화살

다) 주5일제 쟁취 투쟁집회

- 일시 : 2019 년 6월 3일 19:00
- 장소 : 우정노조 충청지방본부(대전)

- 참석팀 : 한국보그워너T/S 한우리

라) 주5일제 쟁취 투쟁집회

- 일시 : 2019 년 6월 5일 19:00
- 장소 : 부평역 광장
- 참석팀 :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마) 총파업 결의대회

- 일시 : 2019 년 7 월 6 일(토) 13:00
- 장소 : 청와대 사랑채앞
- 참석팀 :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